

발 간 등 록 번 호
11-1383000-001030-10

# 2022년 국가성평등보고서

---

2022. 12.



# 2022년 국가성평등보고서

2022. 12.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효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권도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연구요약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국가성평등지수는 2009년 우리나라 성평등 실태와 개선 정도, 성불평등이 심각한 분야와 그 원인을 파악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 제고와 국가 경쟁력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고 있음.
- 2022년 연구는 현행 국가성평등지수 지표체계에 따라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하위 지표들의 분석하여 성평등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더불어 성격차지수(GGI), 성불평등지수(GII) 등 국제성평등지수를 분석하여 한국의 성평등 위치와 성평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의 전략적 정책 방향을 검토할 목적으로 추진됨.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연구내용은 크게 세 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각 세부 내용을 분석함.

#### 1.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및 추이 분석

- 2021년 기준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및 영역·분야별 최근 6년간 성평등 수준 분석
- 지수의 특징, 산정방안, 하위영역 및 분야, 세부지표의 내용분석, 자료원 정리

#### 2.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성평등 위치 분석

- 주요 국제성평등지수인 GGI, GII 등의 분석을 통해 한국 성평등 위치 파악
- OECD 회원국 등 주요 국가와의 성평등 수준 비교 분석
- 주요 국제성평등지수와 국가성평등지수의 연계 및 관리방안 제시

#### 3. 양성평등 수준 제고 전략 도출

- 주요 성평등 정책과 지표의 연계표 제시
- 지표별 관리 부처 연계
- 국가성평등지수의 대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방안 제시

□ 연구 방법

- 첫째, 기존 문헌 연구 및 통계수집·분석을 실시함. 성평등지수와 관련된 문헌 연구, 성평등지수 관련 방법론, WEF, UNDP 등 국제기구의 성평등지수 등에 대한 문헌을 검토함. 또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양성평등기본계획,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 등의 정책을 검토함.
- 둘째,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함. 전문가 자문은 성평등지표 활용을 위한 자문과 최종보고서에 관한 분석 결과에 대한 자문과 국가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내용에 대해 자문을 얻음.
- 셋째,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함. 전문가 자문은 성평등지표 활용을 위한 자문과 최종보고서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한 자문과 국가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내용에 대해 자문함.

### 3.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구성

- 2022년도 국가성평등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제시한 정책영역별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로 지표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성됨.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영역	분야	지표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성별 임금 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의사결정	국회의원 비율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정부위원회 위원 비율
	교육·직업훈련	평균 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직업교육훈련경험 비율		

영역	분야	지표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비빈곤인구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비율
		장애인고용률
	보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안전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강력범죄(홍약법) 피해자 비율	
성평등 의식·문화	가족	가사노동 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문화·정보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성별 정보화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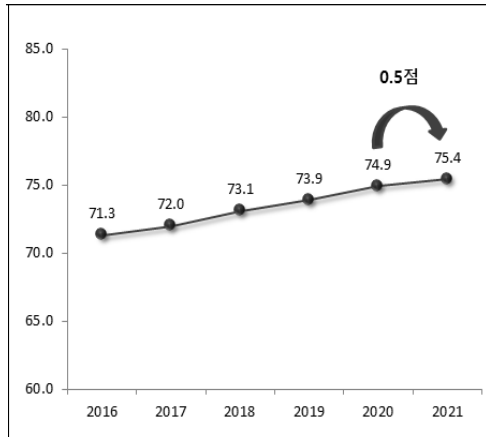
#### 4. 국가성평등지수의 산정 방법 및 특징

- 국가성평등지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첫째, 투입보다 성과를 측정하는 지수임.
  - 둘째, 성별 격차를 측정하는 지수임.
  - 셋째,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점검하고 정책의 관리를 목적으로 측정되는 지수임.
- 국가성평등지수는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걸쳐 산정됨.
  - 단계 1. 지표의 수준이 최소 0과 최대 100으로 표준화
  - 단계 2. 지표 값을 성비(Female-to-male ratio)로 전환
  - 단계 3. 비율로 전환된 지표 값에 관련 가중치(Weight) 부여
  - 단계 4. 분야별 지수 추정치 산정
  - 단계 5. 국가성평등지표의 복합지수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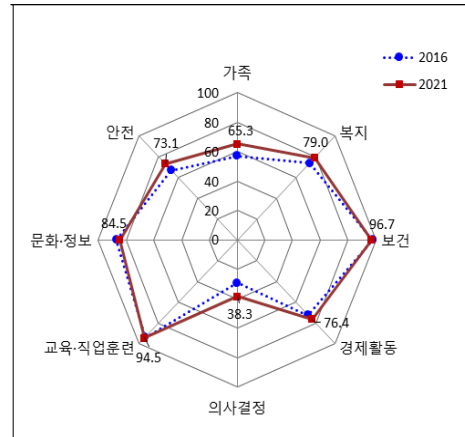
## 5.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추이

□ (총점) '21년 기준 국가성평등지수는 75.4점으로, 전년(74.9점) 대비 0.5점 상승

〈연도별 성평등 변화 추이〉



〈분야별 수준 변화〉



□ (영역별)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82.9점)의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고,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74.9점), 사회참여 영역(69.7점) 순임

□ (분야별) 8개 분야 중 보건 분야(96.7점)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으며, 의사결정 분야(38.3점)는 지속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저조

\* 보건(96.7점) > 교육·직업훈련(94.5점) > 문화·정보(84.5점) > 복지 (79.0점) > 경제활동 (76.4점) > 안전(73.1점) > 가족(65.3점) > 의사결정(38.3점)

\* (전년 대비 상승) 의사결정(1.9점 ↑), 가족(1.7점 ↑), 안전(1.0점 ↑), 경제활동(0.3점 ↑), 복지(0.2점 ↑)

(전년 대비 하락) 문화·정보(1.9점 ↓), 교육·직업훈련(0.2점 ↓), 보건(0.1점 ↓)

□ (지표별) 전체 25개 중 16개 지표 상승, 8개 지표는 하락, 1개 지표는 전년 동일

○ (상승) 육아휴직 성비(3.2점 ↑), 4급 이상 공무원 성비(3.2점 ↑),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2.9점 ↑), 국회의원 성비(2.6점 ↑) 등이 상승

○ (하락) 성별정보화격차(3.1점 ↓), 여가만족도 성비(1.7점 ↓), 장애인고용률 성비(1.1점 ↓), 직업교육훈련 경험률(1.0점 ↓) 등은 하락

## 6. 분야별 성평등 지표 추이와 특징

□ (경제활동 분야) '21년 76.4점으로 전년(76.1점) 대비 0.3점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 및 상용 근로자 비율은 개선되었으나 성별 임금격차 점수는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 : ('20) 女 59.1 / 男 77.9 → ('21) 女 59.9 / 男 78.0

\* 월급여총액(천원) : ('20) 女 2,239 / 男 3,306 → ('21) 女 2,314 / 男 3,439

\*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율(%) : ('20) 女 64.9 / 男 76.7 → ('21) 女 65.4 / 男 76.9

###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 점수〉

연도	경제활동 분야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성비	
'20년	76.1	75.9	67.7	84.6
'21년	76.4	76.8	67.3	85.1
(증감)	0.3	0.9	-0.4	0.5

□ (의사결정 분야) '21년 38.3점으로 전년(36.4점) 대비 1.9점 상승했으나, 여전히 8개 분야 중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음

○ 4급 이상 여성공무원 증가로 공직에서 여성 대표성이 높아졌으며, 국회의원 중 여성비율 또한 상승

\* 4급 이상 공무원(명): ('20) 女 1,464 / 男 6,780 → ('21) 女 1,672 / 男 6,807

\* 국회의원의 여성비율(%): ('20) 17.3 → ('21) 19.0

\* 관리자 성비(%): ('20) 15.7 → ('21) 16.3

\*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 ('20) 39.5 → ('21) 39.8

###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 점수〉

연도	의사결정 분야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 점수			
		국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관리직 성비	정부위원회 위원
'20년	36.4	20.3	36.3	24.8	64.1
'21년	38.3	22.9	39.5	25.8	65.0
(증감)	1.9	2.6	3.2	1	0.9

- (교육·직업훈련 분야) '21년 94.5점으로 전년(94.7점) 대비 0.2점 하락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전년 대비 남녀 모두 상승하며,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완전 성평등 수준 유지
  - 직업교육훈련 경험률은 남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여성의 감소폭이 남성에 비해 커서 점수는 1점 하락
    -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 ('20) 女 76.1 / 男 69.3 → ('21) 女 77.4 / 男 70.3
    - \* 직업교육훈련 경험률(%) : ('20) 女 49.9 / 男 53.9 → ('21) 女 45.4 / 男 49.6
    - \* 평균교육연수(년) : ('20) 女 12.0 / 男 13.1 → ('21) 女 12.1 / 男 13.2

〈교육·직업훈련 분야 성평등 점수〉

연도	교육·직업훈련 분야	평균교육연수 성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직업교육훈련 경험률 성비
'20년	94.7	91.6	100.0	92.5
'21년	94.5	92.1	100.0	91.5
(증감)	-0.2	0.5	-	-1.0

- (복지 분야) '21년 79.0점으로 전년(78.8점) 대비 0.2점 상승
- 공적연금가입자 비율은 남녀 모두 전년 대비 높아졌으며 점수는 1.6점 상승
    - \* 빈곤율(%) : ('20) 女 16.9 / 男 13.7 → ('21) 女 16.6 / 男 13.6
    - \* 공적연금가입자 비율(%) : ('20) 女 60.8 / 男 68.8 → ('21) 女 63.3 / 男 70.4
  - 장애인 고용률은 여성은 감소하고 남성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여 점수가 하락
    - \* 장애인 고용률(%) : ('20) 女 22.7 / 男 43.8 → ('21) 女 22.2 / 男 43.8

〈복지 분야 성평등 점수〉

연도	복지 분야	비빈곤 인구 성비	공적연금 가입률 성비	장애인 고용률 성비
'20년	78.8	96.3	88.4	51.8
'21년	79.0	96.5	90.0	50.7
(증감)	0.2	0.2	1.6	-1.1

□ (보건 분야) '21년 96.7점으로 전년(96.8점) 대비 0.1점 하락했으나, 8개 분야 중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

○ 건강 삶의 질은 다소 성별 격차가 감소하였으나,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성별 격차는 다소 높아짐

\* 건강 삶의 질(EQ-5D): ('20) 女 0.960 / 男 0.971 → ('21) 女 0.962 / 男 0.972

\* 건강검진 수검률(%) : ('20) 女 66.3 / 男 69.2 → ('21) 女 64.6 / 男 67.5

\* 스트레스 인지율(%) : ('20) 女 30.6 / 男 27.5 → ('21) 女 30.6 / 男 27.3

〈보건 분야 성평등 점수〉

연도	보건 분야	건강 관련 삶의 질 (EQ-5D) 성비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20년	96.8	98.9	95.8	95.7
'21년	96.7	99.0	95.7	95.4
증감	-0.1	0.1	-0.1	-0.3

□ (안전 분야) '21년 73.1점으로 전년(72.1점) 대비 1점 상승하였지만, 8개 분야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

○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남녀 모두 개선되어 전반적 사회 안전인식 성비가 1.8%p 증가함

\* 사회 안전인식비율(13세 이상, %): ('20) 女 27.6 / 男 36.0 → ('21) 女 28.6 / 男 36.5

○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성폭행) 피해자는 남녀 모두 감소하고 성비가 다소 상승

\*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피해자 비율(%): ('20) 89.3 → ('21) 89.2

〈안전 분야 성평등 점수〉

연도	안전 분야	전반적 사회 안전인식 성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20년	72.1	76.7	67.5
'21년	73.1	78.5	67.8
증감	1.0	1.8	0.3

□ (가족 분야) '21년 65.3점으로 전년(63.6점) 대비1.7점 상승

○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여전히 남성보다 긴 상태이나,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

\* 가사시간(시간:분) : 취업자 ('20) 女 2:26/男 0:51 →('21) 女 2:27/男 0:52  
비취업자 ('20) 女 3:52/男 1:08 →('21) 女 3:53/男 1:09

\* 육아휴직자(명) : ('20) 女 84,617 / 男 27,421→('21) 女 81,516 / 男 29,039

○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비교적 큰 폭으로 2.9%p 상승하고,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는 완전 성평등 상태에서 0.1%p 상승

\* 가족관계 만족도(%) : ('20) 女 56.1 / 男 61.5 →('21) 女 59.8 / 男 63.5

\*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명) : ('20) 106.6 →('21) 106.5

〈가족 분야 성평등 점수〉

연도	가족 분야	가사노동시간 성비	육아휴직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셋째아 이상 출생 성비
'20년	63.6	31.3	32.4	91.2	99.4
'21년	65.3	32.0	35.6	94.1	99.5
증감	1.7	0.7	3.2	2.9	0.1

□ (문화·정보 분야) '21년 84.5점으로 전년(86.4점) 대비 1.9점 하락

○ 여가시간은 남성이 여전히 여성보다 많고, 만족도도 남성이 높음

\* 여가시간(시간:분) : 취업자 ('20) 女 2:32/男 3:13 →('21) 女 2:23/男 3:04  
비취업자 ('20) 女 4:20/男 6:24 →('21) 女 4:11/男 6:15

\* 여가만족도(%) : ('20) 女 28.9 / 男 30.3 →('21) 女 26.1 / 男 27.9

○ 정보화 수준은 여성은 소폭 하락, 남성은 소폭 상승하여 성별 격차 증가

\* 정보화 수준(%) : ('20) 女 96.1/男 103.9 →('21) 女 94.4/男 105.6

〈문화·정보 분야 성평등 점수〉

연도	문화·정보 분야	성별 정보화격차		
		여가시간 성비	여가만족도 성비	성별 정보화격차
'20년	86.4	71.4	95.2	92.5
'21년	84.5	70.5	93.5	89.4
증감	-1.9	-0.9	-1.7	-3.1

## 7. 국제 성평등지수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 □ 성격차지수(GGI)

- (총괄) '22년 146개국 중 99위를 기록해 지난해(102위/156개국)보다 3순위 상승, 점수는 0.689점으로 '21년(0.687점) 대비 0.002점 상승
  - \* 유사업무 임금성비(0.029점 ↑), 전문직 비율(0.030점 ↑), 고등교육기관 취학률(0.026점 ↑) 지표의 개선이 점수 개선의 주된 사유
- (분야별) 4개 분야 중 3개 분야의 순위 상승
  - \* 경제참여 및 기회(123위→115위), 교육적 성취(104위→97위), 건강과 생존(54위→52위) 영역은 각각 8순위, 7순위, 2순위 상승
  - \* 정치적 권한(68위→72위) 영역은 4순위 하락
- (지표별) 14개 지표 중 6개 지표는 점수 상승, 4개 지표는 점수 하락
  - \* 유사업무 임금성비, 관리직 비율, 전문직 비율, 초등학교 취학률,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순위와 점수 모두 상승
  - \* 국회의원 비율, 경제활동참가율, 중등학교 취학률, 건강기대수명은 점수는 하락하나, 순위는 상승
  - \* 장관비율, 여성국가수장재임기간은 점수가 동일하나 순위는 상승
  - \* 추정소득은 점수는 상승하나 순위는 하락
  - \* 출생성비는 점수와 순위 변함 없음

### □ 성불평등지수(GII)

- 우리나라 성불평등지수(GII)는 0.067점으로 191개국 중 '20년보다 4단계 순위가 낮아진 15위를 기록

- 부문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생식건강 영역에서 모성사망비는 '20년과 동일, 청소년 출산율은 1.4명→2.2명으로 증가하여 불평등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
  - \* 여성권한 영역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16.7%→19.0%로 2.3%p 상승, 중등교육 이상 교육받은 여성 비율은 80.4%→83.1%로 2.7%p 상승
  - \* 노동참여 영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2.9%→53.4%로 0.5%p 상승,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3.1%→72.4%로 0.7%p 하락

□ 성개발지수(GDI)

- 2022년은 0.944점('20년 0.936점)으로 성격차 수준 3그룹으로 구분, 순위가 낮은 주된 원인은 남녀 소득 수준 격차가 크기 때문
  - \* 1인당 GNI(PPP\$) : 여성 \$29,300, 남성 \$59,737
-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 점수는 여성 0.894점, 남성 0.947점으로 남녀 성비로 계산되는 GDI 점수는 0.944로 측정

## 8. 성평등지수 관련 정책과제

-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제6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2018~2022),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8~2022) 등의 성평등관련 정책과 연계표를 제시함. 연계는 분야별 지표별로 연계하여 제시했으며, 국정과제와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은 정책 연변을 연계표로 제시함.
- 성평등지수 활용 및 관리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국가성평등지수는 지표의 관리기관과 협력하여 지표를 개선·관리 방안 제언
  - 둘째, 중앙행정 부처는 성평등 관리지표에 대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과의 연계 분석이 필요성 제언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내용과 방법 .....	5
가. 연구내용 .....	5
나. 연구방법 .....	7
II. 국가성평등지수 개요 .....	9
1. 지표의 특징과 구성 .....	11
가.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변화와 법적 기반 .....	11
나. 국가성평등지수의 영역 및 분야별 지표구성 .....	14
2. 산정방법 .....	16
III.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과 추이 .....	23
1.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특징 .....	25
가. 성평등지수 수준과 변화 추이 .....	25
나. 정책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의 변화와 특징 .....	26
2. 분야별 지표의 성평등 수준의 변화와 특징 .....	32
가.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	32
나.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 .....	42
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 .....	51
IV. 국제성평등지수와 한국의 성평등 수준 .....	61
1.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	63
가.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소개 .....	63
나. GG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	68

2. 유엔개발계획의 성개발지수와 성불평등 지수 .....	76
가. 남녀개발지수의 소개 .....	76
나. GD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	80
다. 성불평등지수 소개 .....	84
라. GI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	90
3. 국제성평등지수 비교와 한국 성평등 수준 차이 .....	95
가. 국제성평등지수와 한국 성평등 수준 차이 비교 .....	95
나. 국제성평등지수에서 나타난 한국의 순위 해석 및 시사점 .....	98
<b>V. 국가성평등 관리방안 .....</b>	<b>101</b>
1. 국가성평등지수와 성평등 정책의 연계 .....	103
2. 국가성평등지수 활용 및 관리방안 .....	114
<b>■ 참고문헌 .....</b>	<b>117</b>
<b>■ 부    록 .....</b>	<b>119</b>
〈부록 1〉 분야별 성평등 지표의 통계표 .....	121
〈부록 2〉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개요 .....	130
〈부록 3〉 개편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	134

## 표 목 차

〈표 I-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 .....	6
〈표 II-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구성 변화 .....	12
〈표 II-2〉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	13
〈표 II-3〉 「양성평등기본법」 조항과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	15
〈표 II-4〉 2018년 성평등지수의 지표 값 산정에 적용되는 조정치 .....	18
〈표 II-5〉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별 가중치 .....	20
〈표 II-6〉 2021년 추정 통계를 활용한 지표들 .....	20
〈표 II-7〉 국가성평등지수 지표별 지수 산정 산식 .....	21
〈표 III-1〉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성평등지수 변화 .....	42
〈표 III-2〉 인권·복지 영역 성평등지수 변화 .....	51
〈표 III-3〉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 성평등지수 변화 .....	59
〈표 IV-1〉 GGI의 구성 및 각 영역별 지표 .....	65
〈표 IV-2〉 GGI의 지표구성과 자료원 .....	66
〈표 IV-3〉 GGI 지수 산출을 위한 가중치 .....	68
〈표 IV-4〉 한국의 GGI 수준 추이 .....	70
〈표 IV-5〉 경제참여와 기회 분야의 GGI 수준 추이 .....	71
〈표 IV-6〉 교육적 성취 분야의 GGI 수준 추이 .....	72
〈표 IV-7〉 건강과 생존 분야의 GGI 수준 추이 .....	72
〈표 IV-8〉 정치적 권한 분야의 GGI 수준 추이 .....	73
〈표 IV-9〉 OECD국가 중 GGI 1위 국가와 한국간의 점수격차(2022년) .....	74
〈표 IV-10〉 OECD 회원국의 GGI 현황(2022년) .....	74
〈표 IV-11〉 기존 GDI와 새로운 GDI 비교 .....	76
〈표 IV-12〉 GDI 영역과 지표 .....	77
〈표 IV-13〉 GDI 지표별 자료원(2022년) .....	78
〈표 IV-14〉 GDI의 최대·최소값 설정 .....	79
〈표 IV-15〉 한국의 GDI 수준 .....	81
〈표 IV-16〉 기존 GDI의 한국 수준 .....	82

〈표 IV-17〉 OECD 회원국의 GDI 현황(2022년) .....	83
〈표 IV-18〉 GII의 영역과 지표 .....	87
〈표 IV-19〉 GII 지표별 자료원 .....	88
〈표 IV-20〉 한국의 GII 수준 추이 .....	92
〈표 IV-21〉 OECD 회원국의 GII 현황(2022년) .....	93
〈표 IV-22〉 국제성평등지수와 OECD 회원국(38개국) 내 한국의 현황 .....	97
〈표 IV-23〉 국제성평등지수 비교 .....	99
〈표 V-1〉 연계표에 활용된 성평등 정책 목록 .....	103
〈표 V-2〉 국가성평등지수와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	104
〈표 V-3〉 국가성평등지수와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	106
〈표 V-4〉 국가성평등지수와 교육·직업훈련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	107
〈표 V-5〉 국가성평등지수와 복지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	108
〈표 V-6〉 국가성평등지수와 보건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	109
〈표 V-7〉 국가성평등지수와 안전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	110
〈표 V-8〉 국가성평등지수와 가족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	112
〈표 V-9〉 국가성평등지수와 문화·정보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	113
〈표 V-10〉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별 관리와 생산기관 .....	115

## 그림 목 차

[그림 I-1] 본 연구의 주요 내용 .....	5
[그림 II-1] 국가성평등지수 산정방법 .....	16
[그림 III-1] 성평등지수 수준과 변화 .....	25
[그림 III-2] 국가성평등지수 증감 .....	26
[그림 III-3]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	27
[그림 III-4]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	29
[그림 III-5] 여성 인권·복지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	30
[그림 III-6] 성평등한 의식·문화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	31
[그림 III-7] 성별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변화 추이 .....	32
[그림 III-8] 연도별 임금성비 변화 추이 .....	33
[그림 III-9] 성별 상용직 근로자 비율 변화 추이 .....	34
[그림 III-10] 경제활동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	34
[그림 III-11] 국회의원 여성 비율 변화 추이 .....	35
[그림 III-12] 성별 4급 이상 공무원 변화 추이 .....	36
[그림 III-13] 성별 관리자 변화 추이 .....	37
[그림 III-14] 성별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변화 추이 .....	38
[그림 III-15] 의사결정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	38
[그림 III-16] 성별 평균 교육년수 변화 추이 .....	39
[그림 III-17] 성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변화 추이 .....	40
[그림 III-18] 성별 직업교육 훈련경험자 비율 변화 추이 .....	41
[그림 III-19] 교육·직업훈련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	41
[그림 III-20] 성별 공적연금 가입률 변화 추이 .....	43
[그림 III-21] 성별 빈곤율 변화 추이 .....	44
[그림 III-22] 성별 장애인 고용률 변화 추이 .....	45
[그림 III-23] 복지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	45
[그림 III-24]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지수 변화 추이 .....	46
[그림 III-25] 성별 건강검진 수검률 변화 추이 .....	47

[그림 III-26] 성별 스트레스 인지율 변화 추이 .....	48
[그림 III-27] 보건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	48
[그림 III-28]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변화 추이 .....	49
[그림 III-29] 성별 강력범죄(홍악범죄) 피해자 변화 추이 .....	50
[그림 III-30] 안전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	50
[그림 III-31] 가사노동 시간 변화 추이 .....	52
[그림 III-32]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추이 .....	53
[그림 III-33] 출산 순위별 출생성비 변화 추이 .....	54
[그림 III-34] 성별 육아휴직자 수 변화 추이 .....	55
[그림 III-35] 가족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	56
[그림 III-36] 남녀 여가시간 및 여가시간 성비 변화 추이 .....	57
[그림 III-37] 성별 여가만족도 변화 추이 .....	57
[그림 III-38] 성별 정보화 격차 변화 추이 .....	58
[그림 III-39] 문화·정보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	58

## 부 표 목 차

〈부표 1-1〉 경제활동참가율 .....	121
〈부표 1-2〉 성별 임금 격차(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	121
〈부표 1-3〉 상용근로자 .....	121
〈부표 1-4〉 국회의원 .....	122
〈부표 1-5〉 4급 이상 공무원 .....	122
〈부표 1-6〉 관리자 현황 .....	122
〈부표 1-7〉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중앙행정기관) .....	123
〈부표 1-8〉 평균 교육년수 .....	123
〈부표 1-9〉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	123
〈부표 1-10〉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	124
〈부표 1-11〉 빈곤율 .....	124
〈부표 1-12〉 공적연금 가입자 .....	125
〈부표 1-13〉 장애인고용률 .....	125
〈부표 1-14〉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	126
〈부표 1-15〉 건강검진 수검률 .....	126
〈부표 1-16〉 생활 스트레스 인지율 .....	126
〈부표 1-17〉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	127
〈부표 1-18〉 강력범죄(흉악범죄) 피해자 .....	127
〈부표 1-19〉 성별, 취업여부별 평균 가사노동 시간 .....	127
〈부표 1-20〉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	128
〈부표 1-21〉 가족관계 만족도 .....	128
〈부표 1-22〉 육아휴직자 .....	128
〈부표 1-23〉 성 및 취업상태별 여가시간 .....	129
〈부표 1-24〉 여가만족도(전 연령) .....	129
〈부표 1-25〉 성별 정보화 격차 .....	129



# I

## 서론

- |               |   |
|---------------|---|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
| 2. 연구내용과 방법   | 5 |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1항<sup>1)</sup>은 ‘양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양성평등은 양성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를 보장받고 동등한 지위에서 동등한 권리와 이익의 향유로 정의하고 있다.

성평등은 경제성장 혹은 국가경쟁력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은 성평등지수와 국가경쟁력지수를 동시에 발표하면서, 두 지수는 높은 양의 상관을 가진다는 것을 증명했고, 세계은행(World Bank, 2007)은 경제성장률이 성평등과 유의미한 상관을 가진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sup>2)</sup>

1995년은 북경 세계여성행동강령에서 각국에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여성정책전담 국가기구를 설치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각 국은 여성정책전담 국가기구를 설치하고 각종 성평등정책을 이행·점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평등 정책을 주관하는 국가기구는 1988년 정무장관실이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998년 대통령소속 여성특별위원회로 이어져 여성정책을 담당했고 정부조직법 개정과 더불어 2010년 이래 여성가족부로 확대되어 성평등 정책들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성평등 정책이 양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발표하는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에서 2022년 발표 기준 146개국 중 99위<sup>3)</sup>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성평등 수준은 경제참여와 기회와 정치적 권한 부여 영역에 성격차가 매우 크다.

성평등지수는 성평등 수준을 계량화하여 보여주는 수치로, 특정 집단의 성평등 위치를 보여줄 뿐 아니라, 성평등 수준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점검과 관련 정책 혹은 제도의 평가 등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국가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이들 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성평등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의 ‘3-2-1 여성정책 협의·조정 강화’에서 성평등지표를 통한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2009년 개발되어 매년 발표된다. 2015년 7월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국가성평등지수를 공식으로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19조)를 마련하게 되었다. 「양성평등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양성평등기본법>

2) 김태홍 외(2010), 「2010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p.3 인용

3) WEF(2022), The Global Gender Gap Index 2022

기본법」 제19조 1항은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국가성평등 지표를 개발·보급하고, 개발 및 보급 사항에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여성의 인권·복지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4)</sup>

국가성평등지수는 2009년 시범 작성된 이후 현재 3개 영역, 8개 분야, 25개의 지표 체계로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개선 정도를 측정하고 성불평등이 심각한 분야와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해 왔다. 또한, 국가성평등지수는 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을 높임으로써 성평등에 대한 정책 수요를 가져오게 한다. 2022년 연구는 현행 국가성평등지수 지표체계에 따라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하위 지표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성평등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성격차지수(GGI), 성불평등지수(GII) 등 국제성평등지수를 분석하여 한국의 성평등 위치와 성평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의 전략적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

4) 주재선 외(2017), 「2017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pp.3~4 인용

## 2. 연구내용과 방법

### 가. 연구내용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각 범주의 세부 내용은 [그림 I-1]과 같다.



[그림 I-1] 본 연구의 주요 내용

#### 1)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및 추이 분석

본 연구는 국가성평등의 구성 지표들을 측정하고 영역·분야별 성평등 수준의 변화를 분석하여 복합지수 형태의 국가성평등지수를 산정한다. 성평등 지표는 지표의 주기를 고려하여 그 변화 추이를 분석하며, 성평등 복합지수와 영역별, 분야별, 지수별 수준에 대해 최근 6년간의 시계열 변화추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영역별 구성 지표들의 변화를 주요 변수 등을 통해 국가 성평등지수와 영역별 변화 특징과 원인을 추적하고 지표별 분석을 통해 국가성평등지수의 변화 원인을 파악하고 영역별 변화의 특성을 진단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가성평등지수의 특성을 제시하고 지표구성과 산정 방법, 자료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구성은 3개 영역, 8개 분야, 25개의 지표로 측정되며, 구체적인 구성 내용은 <표 I-1>과 같다.

<표 I-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

영역	분야	지표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성별 임금 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의사결정	국회의원 비율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정부위원회 위원 비율
	교육·직업훈련	평균 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직업교육훈련경험 비율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비빈곤 가구주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비율
		장애인고용률
	보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안전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강력범죄(홍약범) 피해자 비율
	성평등 의식·문화	가족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문화·정보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성별 정보화 격차

## 2)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성평등 위치 분석

본 장은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 값이 성평등 수준을 어느 정도 나타내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을 분석한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성평등지수 중 유엔개발계획(UNDP)의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 성개발지수(Gender Development Index)와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지수(GGI)의 특징과 한국의 수준을 분석한다.

## 3) 양성평등수준 제고 전략 도출

이 장에서는 국가성평등지수와 성평등 정책을 연계하였다. 정책 연계는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제6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018~2022)',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2020~2024)',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21~ 2025)' 등 성평등 정책과 연관 있는 계획을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와 연계하여 제시한다.

## 나.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 성평등 관련 방법론과 정책을 검토한다. 성평등지수와 관련된 문헌 연구, 성평등지수 관련 방법론, WEF, UNDP 등 국제기구의 성평등지수 등에 대한 문헌을 분석한다. 또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양성평등기본계획,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 등의 정책을 검토한다.

둘째, 지표별 통계를 수집·분석한다. 분야별 성평등 지표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자료원을 수집한다. 자료 수집은 국가통계포털 등 통계DB와 부처의 행정통계를 통해 이루어지나, 일부 지표는 마이크로데이터 분석과 재산정 방식을 통해 수집한다.

셋째,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한다. 전문가 자문은 성평등지표 활용을 위한 자문, 최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대한 자문과 국가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내용에 대해 자문을 얻는다.



## II

# 국가성평등지수 개요

1. 지표의 특징과 구성	11
2. 산정방법	16



## 1. 지표의 특징과 구성<sup>5)</sup>

### 가.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변화와 법적 기반

국가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성 불평등이 심각한 분야를 진단하여 성평등 정책 수립과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다. 이 지수는 2009년도에 여성 및 사회지표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와 전문가 및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 분야와 지표 초안을 구성하였고, 법적 기반이 구축되면서 분야와 지표들이 조금씩 변경되어 왔다. 이에 지표구성의 변화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표 II-1>과 같다.

2009년 지표구성은 8개 분야 226개의 성평등지표 풀(pool)을 학계 및 정부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제안받아, 자문회의, 분야별 전문가집단(교수, 연구자, 행정공무원 등) 대상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대표지표 21개, 관리지표 83개로 확정되었다. 여기서 대표지표란 우리나라 전체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변화 추이, 변동 요인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과 동시에, 국가성평등지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를 의미한다. 이에 대표지표는 분야별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대한 전문가의 조사결과와 통계의 측정 가능성, 품질, 주기 등을 고려하여 21개를 선정하였다. 대표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83개)들은 관리지표로 분류하였고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성불평등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009년에 개발된 지표는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에 걸쳐 약간씩 구성상의 변화가 있었다. 개편된 지표는 성평등 수준이 완전 평등상태에 도달하거나, 성평등 측정의 적합성, 통계의 품질 문제 등을 고려하고 당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하였다. 2016년 이후도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있었으나, 2019년 성평등지수에 대한 전면 개편 연구가 진행되고 이후 성평등 지표 확정을 위한 TF 등이 구성됨에 따라 지수 측정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 단, 2018년은 복지 분야의 빈곤 가구주 비율을 성별 빈곤 인구로 변경하였다. 지표를 가구 단위의 빈곤에서 개인 단위의 빈곤으로 변경하고 빈곤 기준선을 최저소득 이하의 절대 빈곤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상대빈곤으로 변경하였다.

5) 주재선 외(2021), 『2021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p.11~16. 인용

〈표 II-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구성 변화

연도	지표구성 개편 내용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8개 분야 226개 지표폴 구성 후 자문회의를 통해 8개 분야 149개 지표 구성</li> <li>○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200명)하여 대표지표 21개, 관리지표 83개, 분야별 가중치 측정</li> <li>○최종 8개 분야(가족, 보건, 복지, 경제활동·소득,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안전) 21개의 대표지표로 국가성평등지수 측정</li> </ul>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개 분야 20개의 지표로 지수 산정</li> <li>- '성별 건강수명' 지표가 생산주기가 불규칙하고 완전 평등수준 도달로 삭제</li> <li>-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성별 격차'를 '건강 관련 삶의 질(EQ-5D)'로 대체</li> <li>- '인구 10만명 당 범죄 피해자 성별 격차'를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 피해자 비율'로 대체</li> <li>- '성별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을 '상용직 근로자 비율'로 대체</li> </ul>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개 분야 21개의 지표로 지수산정</li> <li>- '건강보험 입원급여 수급자의 성비'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급자의 성비'로 지표명 변경</li> <li>- 보건 분야에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지표 추가</li> </ul>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국가성평등지수 작성의 법적 근거 마련</li> <li>○8개 분야 23개의 지표로 지수 산정</li> <li>- 가족 분야에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와 '육아휴직 성비' 지표 추가</li> <li>- 문화·정보 분야에서 '성별 정보화 격차'를 추가하고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의 성비' 삭제</li> <li>- 보건 분야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급자 성비' 삭제</li> </ul>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개 분야 25개의 지표로 지수 산정</li> <li>- 의사결정 분야에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을 '4급 이상 공무원 비율'로 수정하고 '정부위원회 위원 비율' 추가</li> <li>- 보건 분야에서 '스트레스 인지율' 추가</li> </ul>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지 분야 빈곤지표 측정 방법 변경</li> <li>- 성별 빈곤가구수를 성별 빈곤인구로 변경함. 즉, 가구 단위 빈곤 지표를 개인 단위 빈곤으로 변경하고 빈곤 기준선을 최저소득 이하의 절대 빈곤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상대 빈곤 기준으로 변경</li> </ul>

자료: 주재선 외(2021), 『2021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12. 인용.

국가성평등지수는 2016년 법적 생산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 2009년 첫 개발 시 국가성평등지수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의 '3-2-1 여성정책 협의·조정 강화'를 토대로 성평등지표를 통하여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산정·발표되었으나, 2015년 7월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공표되면서 법적 근거(제19조)를 갖게 된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 19조는 ①항을 보면, 국가성평등지표는 세 개의 영역 즉,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국가성평등지수는 경제, 교육, 문화, 보건, 복지, 인권,

의사결정의 양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II-2〉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b>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b> 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 및 조사·공표 등) ①여성가족부 장관이 조사·공표하는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이하 "국가성평등지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이하 "지역성평등지수"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2. 보건, 복지 및 인권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3. 의사결정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4. 그 밖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22.11.1.), <https://www.law.go.kr/법령/양성평등기본법>

국가성평등지수는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복합지수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과 성격을 가진다.

첫째, 국가성평등지수는 정책의 투입(Input)보다 성과(Outcome)를 측정하도록 개발되었다. 성평등지수는 지수의 목적에 따라 투입지표와 성과지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성평등지수 중 OECD의 사회제도와 젠더지수(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SIGI)는 성 불평등을 초래하는 전통, 사회적 규범, 문화적 관습 및 제도와 같은 투입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하지만 대부분 국제성평등지수는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성평등을 측정한다. 성평등 수준의 국가별 비교를 위해서 측정·발표되고 있는 WEF의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Social Watch의 성형평성지수(Gender Equity Index), UNDP의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와 성개발지수(Gender Development Index)는 물론 지금은 발표되지 않지만 2010년까지 가장 널리 활용되었던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또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측정되는 지수이다.

둘째, 국가성평등지수는 성별 수준(Level)보다 성별 격차(Gap)에 초점을 두고 측정된다. 성별 수준은 자원과 기회에 대한 남녀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하지만 수준은 한 국가의 개발 정도와 환경에 크게 의존하는 단점으로 인해, 분야별 성평등 수준이 성취 정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가 있다. 국가성평등지수를 성별 격차로 산정한다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성격차 해소에 두고 추진한다는 의미이다. 여성의 수준 개선과 성 격차의 해소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성평등 정책의 지향점에 따라서 약간 달리 해석된다. 즉, 성평등 정책의 지향점을 수준 개선에 둔다면 정책의 우선순위가 항상 낮은 수준의 지표 개선에 있을 것이고, 성격차 해소에 둔다면 남녀의 수준 차이가 큰 지표에 우선순위를 두고 개선하게 될 것이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원칙적으로 두 목적을 모두 고려하고 있지만, 측정방법론 관점으로 볼 때, 성별 격차의 해소에 더 큰 관심을 둔 지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성평등지수는 성 격차가 감소할 때 성평등이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셋째, 국가성평등지수는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데 활용하는 지표와 함께 각 분야의 성평등 정도를 점검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측정된다. 이에 국가성평등지수는 성평등 달성 뿐만 아니라 여성 지위 및 권한 향상을 목적으로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성평등지수는 대표지표와 관리지표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대표지표는 지수 산정에 활용하고 관리지표는 성평등 변화를 점검하고 성평등 변화 원인, 성평등 정책 효과 등을 추적하기 위해 활용된다.

#### 나. 국가성평등지수의 영역 및 분야별 지표구성

국가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제19조 ①항과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영역과 분야를 구성하고 있다.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구성은 3개의 정책영역, 8개 분야의 2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3개의 정책영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있는 영역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제3장 중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 국가성평등지수의 정책영역으로 구성되어있고 정책 영역의 분야는 시행령 15조에 따라 정책영역별로 배치하고 있다.

제3장 제2절 양성평등 참여와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제20조 적극적 조치, 제21조 정책결정과과정 참여, 제22조 공직 참여, 제23조 정치 참여, 제24조 경제활동 참여, 제25조 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26조 일·가정 양립지원, 제27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제28조 여성인재의 관리·육성으로 구성되어 있다.<sup>6)</sup> 이들은 시행령 15조에 따라 국가성평등지수에서는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분야와 연계 구성하였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장의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영역은 제29조 성차별의 금지, 제30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31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 조치, 제32조 성희롱 실태조사, 제33조 복지증진, 제34조 건강증진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시행령 15조에 근거하여 국가성평등지수 중 복지, 보건, 안전 분야에 연계되어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단, 시행령 15조는 복지, 보건, 인권으로 되어 있으나, 인권 분야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안전으로 좁혀 제시하였다.

〈표 II-3〉 「양성평등기본법」 조항과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정책영역	분야	지표
① 성평등한 사회참여 - 「양성평등기본법」 제2절 - (양성평등 참여)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성별 임금 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의사결정	국회의원 비율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정부위원회 위원 비율
	교육·직업훈련	평균 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직업교육훈련경험 비율
② 여성의 인권·복지 - 「양성평등기본법」 제3절 -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	복지	비빈곤인구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비율 장애인고용률
	보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안전	전반적 안전의식 비율 강력범죄(홍악법) 피해자 비율
③ 성평등 의식·문화 - 「양성평등기본법」 제4절 - (양성평등 문화확산 등)	가족	가사노동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비율 육아휴직자 비율
	문화·정보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성별 정보화 격차

자료: 주재선 외(2021), 『2021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 15. 인용

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양성평등기본법>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3장의 제4절 양성평등 문화확산 등에 속하는 조항으로는, 제35조 양성평등한 가족, 제36조 양성평등 교육, 제37조 양성평등 문화조성, 제38조 양성평등주간, 제39조 여성친화도시, 제40조 국제협력, 제41조 평화·통일 과정 참여로 구성되어있다. 이는 시행령 15조에 의해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로는 가족과 문화·정보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정책영역과 분야를 연계한 후 지표는 정책영역의 성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로 구성하였다. 단, 지표의 선택은 통계의 주기, 품질, 안정성, 포괄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분야별 지표 구성은 2016년 일부 변경 후 2017년부터는 산정의 안정성을 위해 변경 없이 8개 분야 25개를 유지하고 있다.

## 2. 산정방법기

국가성평등지수는 다음의 5단계를 거쳐 복합 지수로 산정된다.



[그림 II-1] 국가성평등지수 산정방법

7) 주재선 외(2019), 『2019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p. 16-22에서 인용 및 수정

단계1은 지표를 표준화(Normalization)하는 단계이다. 표준화는 지표값을 성평등 최저점 '0'에서 최고점 '1(혹은 100)'로 만드는 과정이다. 모든 지표는 남녀의 비율 50% 지점에서 완전 성평등 기준점 '1(혹은 100)'을 만족하며, 지표의 최저치와 최고치를 제한하지 않는다. 단, 강력범죄피해자와 같은 부정적 지표는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한하고 있다. 최대-최소치를 설정한다는 것은 지표의 수준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으로 강력범죄피해자의 경우 10만 명당 최대치는 300명<sup>8)</sup>으로 제한했고 최소치는 피해자가 없는 0명으로 두었다. 지표 값이 최대치에 가까울수록 높은 패널티를 받아 0에 가깝게 되고, 역으로 최소치에 가까울수록 1에 수렴하게 된다. 이 지표의 표준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sup>9)</sup>

$$I = [(Max(x) - x) / [(Max(x) - Min(x))]$$

단계2는 지표 값을 성비(Female-to-male ratio)로 전환하는 단계이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수준 자체보다 여성과 남성의 성취 수준을 보여주기 위해 지표 값을 남녀의 성비로 전환한다.

단계3은 성비로 전환된 지표 값을 관련 대상 모집단으로 보정 하는 단계이다. 성평등은 남녀가 동등한 권리, 의무, 기회를 얻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정한 성평등지표의 지수값을 산정할 경우, 해당 성평등 지표의 대상이 되는 성별 인구로 조정한다. 국가성평등지수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보면 <표 II-4>와 같다.

경제활동 분야의 지표 중에서 상용근로자와 관리자의 경우 각각 15세 이상 남성 임금근로자에 대한 여성 임금근로자 비율의 역수와 남성 취업자에 대한 여성 취업자 비율의 역수를 가중치로 부여하고 있다.

가족 분야의 셋째 아 출생성비는 자연출생성비(Sex ratio at birth)를 조정치로 활용하고 있다. 성비 계산도 국제기구와 동일한 방식인 여성 대비 남성 비의 역수를 활용하며,

8) 최대치를 300으로 제한한 이유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7개 시도의 강력범죄자의 10만명당 발생 건수는 여성의 경우 최소 48.8명, 최대 140.7명이고 남성의 경우 최소 9.1명, 최대 49.4명이었다. 이에 10만명 당 최대 발생 건수인 140.7명의 두 배를 수준인 300명을 패널티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두었다. 패널티 기준(300)에 가까우면 점수가 크게 낮아지며, 이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성비와 관계없이 성평등 점수는 0점이 된다.

9) 지수의 표준화 방법은 기준점(reference point)으로부터 거리, 범주별 점수화, 서열화  $I = Rank(X)$ , 정규화  $I = \frac{X - X_m}{\sigma}$ , 최소-최대  $I = \frac{X - Min(X)}{Max(X) - Min(X)}$ , 평균 이상과 이하의 점수화 등 크게 9가지가 있음. 표준화 방법과 특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ECD(2008), pp. 27-30 참조.



공무원 수)'를 곱해서 산정한다. 동 분야 지표인 국회의원 비율과 관련된 가중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선거권 행사 연령인 25세 이상 인구 성비의 역수이다.

복지 분야의 지표인 공적연금가입자 비율은 18~59세 인구 성비 역수를 가중치로 적용하였다. 이외 문화·정보 분야의 지표인 여가시간의 가중치는 20세 이상 인구의 성비 역수이고, 안전 분야의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성비를 가중치로 설정하였다. 또한, 여가 시간은 앞서 가사노동시간과 동일하게 취업상태의 영향을 고려하여 취업자의 여가 시간과 비취업자의 여가 시간을 평균한 값을 활용하고 있다.

단계4는 분야별 점수를 산정하는 단계이다. 분야별 지숫값은 단순 평균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국제성평등지수 중 WEF의 GGI는 각 하위분야 지수에 속하는 지표의 가중치를 이용해서 분야별 지수 값을 산정한다. 이때 가중치는 지표 값의 표준편차 역수를 가중치로 부여해서 남녀격차가 큰 국가는 상대적으로 큰 패널티를 받도록 설계하였다<sup>10)</sup>. 이와 같은 방식은 국가 간 혹은 지역 간 차이가 작은 지표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케 할 수 있으나 한 국가의 지수 산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볼 수 없다. 이에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별 지수는 모든 지표 값의 개선 정도를 동일한 가치로 보고 단순 평균하는 방식으로 측정된다.

단계5는 국가성평등지수 값을 산정하는 단계이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서로 다른 8개 분야의 구성 지표들로 구성된 복합지수(Composite Index)로, 분야별 가중치를 활용하여 산정된다. 국가성평등지수의 가중치는 계층적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이란 통계적 방법을 통해 산출하였다. 계층적 분석법은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해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가성평등지수의 가중치는 2009년 성평등 관련 전문가인 교수, 연구자,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분석 결과 상대적 가중치는 경제활동 0.19, 의사결정 0.13, 교육·직업훈련 0.14, 복지 0.13, 보건 0.10, 안전 0.12, 가족 0.11, 문화·정보 0.08이었다. 본 연구에서 성평등지수의 최종 지표 값은 개별 분야별 지표 값에 각각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

10) GGI의 교육 분야의 지표 중에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을 보면 2012년 지수의 경우 상대적으로 표준편차가 적은 초등학교 취학률(표준편차: 0.060)의 가중치가 0.459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중등학교(표준편차: 0.120) 0.230, 고등교육기관(표준편차: 0.228) 0.121순이었음(WEF(2012), p.5.)

〈표 II-5〉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별 가중치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0.19	0.13	0.14	0.13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
0.10	0.12	0.11	0.08

한편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산정원칙은 2021년 기준의 통계를 활용한다. 하지만 국가성평등지수 중 일부 지표의 경우 생산 주기가 1년 이상(2년 혹은 5년)이며, 1년 주기인 경우에도 2022년 11월 말까지 공표되지 못한 통계가 있다. 이 경우 본 연구에서는 외삽법(extrapolation)을 이용한 추정치를 활용하고 있다. 외삽법은 일반적으로 5년의 평균 변화를 적용하는 방식을 활용하나, 2년 주기는 두 조사의 평균 변화를 통해 산정했다.

〈표 II-6〉 2021년 추정 통계를 활용한 지표들

지 표	추정 방법	주기
가사노동 시간의 성비,	2014년과 2019년의 평균변화를 적용	5년
여가시간의 성비	2014년과 2019년의 평균변화를 적용	5년
평균 교육년수 성비,	2015년과 2020년의 평균변화를 적용	5년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2015년과 2020년의 평균변화 적용	1년
건강검진수검률	2015년과 2020년의 평균변화 적용	1년

〈표 II-7〉 국가성평등지수 지표별 지수 산정 산식

분야 및 분야별 지표	지표 값 계산방법	계산 산식	비고
<b>경제활동</b>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X = [ F / M ]$	15-64세 인구
성별 임금격차	남녀 근로자의 임금 성비	$X = [ F / M ]$	
상용근로자 비율	대상 남녀 임금근로자 비율로 조정된 상용근로자 성비	$X = W_m/f \times [ F / M ]$	
<b>의사결정</b>			
국회의원 비율	25세 이상 남녀 인구 비율로 조정된 국회의원의 성비	$X = W_m/f \times [ F / M ]$	전국구+지역구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대상 남녀 공무원 인원 비율로 조정된 4급 이상 공무원 성비	$X = W_m/f \times [ F / M ]$	
관리직 비율	대상 남녀취업자비율로 조정된 관리직 성비	$X = W_m/f \times [ F / M ]$	
정부위원회 위원 비율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비율 성비	$X = [ F / M ]$	
<b>교육·직업훈련</b>			
평균 교육년수	평균 교육년수의 성비	$X = [ F / M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고등교육기관(전문대 이상) 진학률 성비	$X = [ F / M ]$	
직업교육훈련경험 비율	임금근로자 중 직업교육훈련경험이 있는 비율의 성비	$X = [ F / M ]$	
<b>복지</b>			
비빈곤인구 비율	대상 남녀 인구 비율로 조정된 비빈곤인구 성비	$X = W_m/f \times [ F / M ]$	
공적연금가입자 비율	18~59세 남녀 인구 비율로 조정된 연금가입자 성비	$X = W_m/f \times [ F / M ]$	
장애인고용률	장애인고용률 성비	$X = [ F / M ]$	
<b>보건</b>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	$X = [ F / M ]$	
건강검진 수검률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X = [ F / M ]$	

분야 및 분야별 지표	지표 값 계산방법	계산 산식	비고
스트레스 인지율	비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X = [ F' / M' ]$ , $F' = 100 - F$ , $M' = 100 - M$ 여기서 F'과 M'은 여성과 남성의 스트레스 비인지율	스트레스 비인지율 로 변경 후 산정
<b>안전</b>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지의식	대상 인구로 조정된 사회 안전 인식집단 성비	$X = W\_m/f \times [ ( F / M ) ]$	
강력범죄(홍역범) 피해자 비율	강력범죄로 부터 안전한 남녀 비율의 성비(역수) <sup>11)</sup>	$X = [ Sm/ Sf ](-1)$ Sm 혹은 Sf = $[(300 - x)/300]$ 으로 표준화	Max(x)=300 Min(x)=0
<b>가족</b>			
가사노동 시간	취업상태를 고려한 가사시간 성비 (역수) <sup>12)</sup>	$X = ( T\_Em + T\_Nm ) / ( T\_Ef + T\_Nf )$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자연출생성비로 조정된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X = [ M / F ] \times \frac{1}{1.06}$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X = [ F / M ]$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자 성비 (역수)	$X = [ M / F ]$	
<b>문화·정보</b>			
여가시간	취업상태를 고려한 여가시간 성비 <sup>13)</sup>	$X = [ ( LT\_Ef + LT\_Nf ) / ( LT\_Em + LT\_Nm ) ]$	
여가만족도	여가만족도 성비	$X = [ F / M ]$	
성별 정보화(디지털정보화) 격차	인터넷과 컴퓨터 활용능력에 대한 성비	$X = [ F / M ]$	

주: 1) F, M은 각각 해당 지표 여성지표 값과 남성지표 값을 나타냄.

2)  $W\_m/f$  : 가중치(Weight)로써 해당 지표의 적용대상 인구를 기준으로 (여성인구/남성인구)의 역수, 'T'는 100을 나타냄.

- 11) Sf, Sm은 상대적으로 강력범죄로부터 안전한 남녀비율, pf, pm: 지표 대상 인구의 여성비율, 남성비율을 나타냄.
- 12) T\_Em, T\_Nm, T\_Ef, T\_Nf : 각각 남성취업자, 남성비취업자, 여성취업자, 여성비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을 나타냄.
- 13) LT\_Em, LT\_Nm, LT\_Ef, LT\_Nf : 각각 남성취업자, 남성비취업자, 여성취업자, 여성비취업자의 여가시간을 나타냄.

### Ⅲ

##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과 추이

- 1.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특징 25
- 2. 분야별 지표의 성평등 수준의 변화와 특징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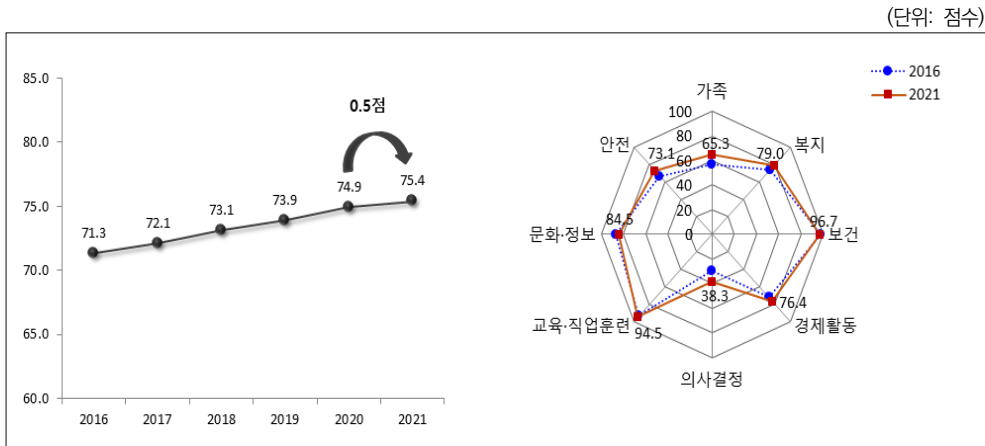


## 1.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특징<sup>14)</sup>

### 가. 성평등지수 수준과 변화 추이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sup>15)</sup>은 2021년 기준 75.4점이다. 국가 성평등 수준은 2016년 71.3점이래 2021년까지 매년 0.8~1.0점 정도로 상승하였고 2021년은 전년 대비 0.5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국가성평등지수 값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보건 분야가 96.7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직업훈련 분야(94.5점), 문화·정보 분야(84.5점), 복지 분야(79.0점), 경제활동 분야(76.4점), 안전 분야(73.1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결정 분야가 38.3점으로 8개 분야 중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았고, 가족 분야(65.3점)는 성평등 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70.0점 이하로 나타났다.



[그림 Ⅲ-1] 성평등지수 수준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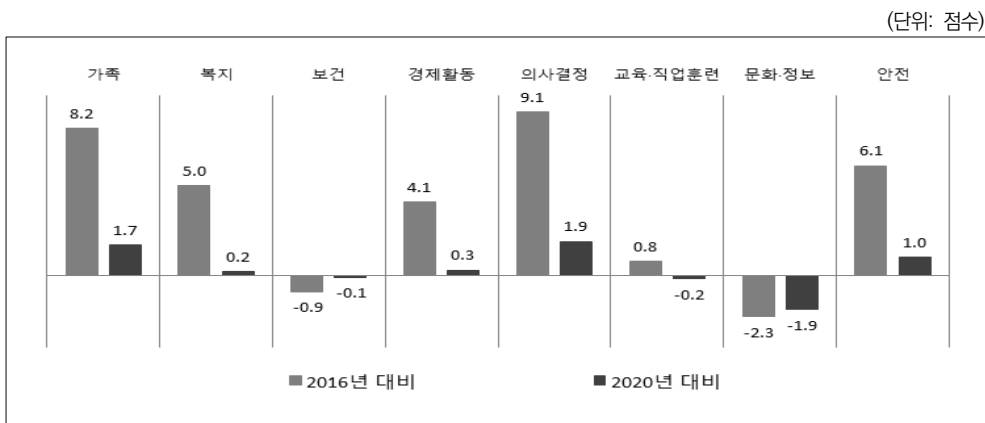
국가성평등지수는 매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분야별로 살펴보았다. 2016년과 2020년과 비교하여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그림 Ⅲ-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2016년과 비교해 보면, 성평등 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분야는 의사결정 분야로 9.1점 상승하였다. 다음으로 많이 개선된 분야는 가족 분야 8.2점, 안전 분야 6.1점, 복지 분야 5.0점, 경제활동 분야 4.1점, 교육·직업훈련 분야 0.8점 순이었다. 이에 비해 문화·정보와 보건 분야는 2016년과 비교하여 오히려 각각 2.3점과 0.9점 하락한

14) 본 보고서의 Ⅲ장은 국가성평등지수 측정을 수행해 온 주재선이 작성한 원고를 재구성 함.

15) 본 보고서에 제시된 모든 연도는 지표의 통계 생산연도를 기준으로 제시함.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해 보면, 2016년 이래 국가성평등지수가 상승하는 이유는 의사결정, 가족, 안전, 복지, 경제활동 분야의 상승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2020년 대비 국가성평등지수의 증감을 살펴보면, 가족, 복지, 경제활동, 의사결정, 안전 분야에서 개선되고, 보건,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분야에서 하락하였다. 2020년 대비 의사결정 분야는 1.9점이 상승했고 가족(1.7점 ↑), 안전(1.0점 ↑), 경제활동(0.3점 ↑), 복지(0.2점 ↑) 순으로 소폭 개선되었다. 반면 문화·정보 분야는 1.9점으로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교육·직업훈련과 보건 분야에서 각각 0.2점과 0.1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III-2] 국가성평등지수 증감

#### 나. 정책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의 변화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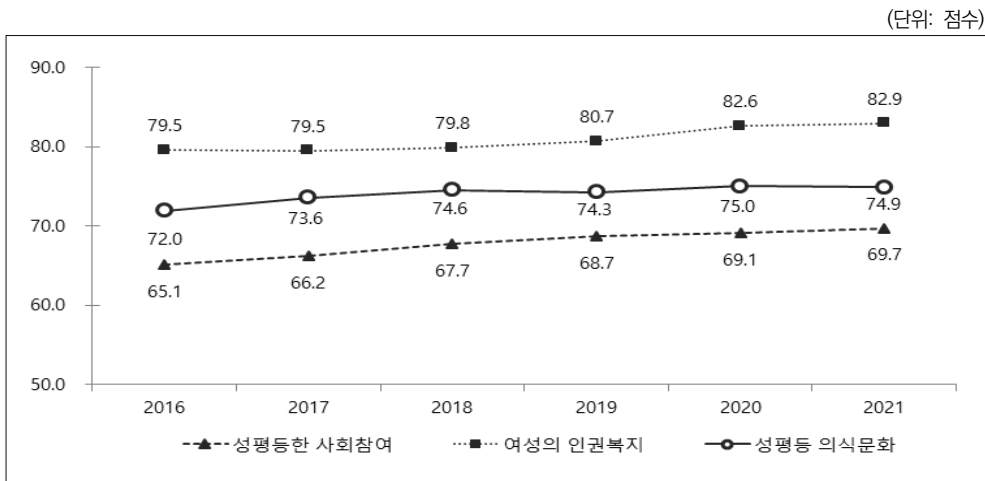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으로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82.9점)의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고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74.9점),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69.7점)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분야로 측정되며, 이 영역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6년 65.1점에서 2021년 69.7점으로 4.6점 상승한다. 이와 같은 상승은 세 분야 모두의 상승에 기인한 것이지만 특히 의사결정과 경제활동 분야의 동기간 상승이 높았기 때문이다. 의사결정 분야는 2016년 29.2점에서 2021년 38.3점으로 9.1점 상승했고, 경제활동 분야는 2016년 72.3점에서 2021년 76.4점으로 4.1점 상승하였다. 한편 전년 대비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0.6점 상승하였는데, 상승의 주된 원인은 의사결정 분야의 개선이다. 세 분야 중 의사결정 분야는 전년 대비 1.9점 개선

되었으며, 경제활동 분야는 0.3점 개선된다. 반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중 교육·직업 훈련 분야는 0.2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가족과 문화·정보 분야로 측정되는 영역이다. 이 영역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6년 72.0점에서 2021년 74.9점으로 지난 5년간 2.9점 상승했다. 지난 5년 간 이 영역에서의 성평등 개선은 가족 분야의 성평등 개선 때문이다. 가족 분야는 2016년 57.1점에서 2021년 65.3점으로 동기간 8.2점 상승했다. 그러나 가족 분야의 높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의 전반적인 개선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못한데, 그 이유는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 수준 하락 때문이다. 문화·정보 분야는 2016년 86.8점에서 2021년 84.5점으로 동기간 2.3점 하락하였다. 전년 대비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0.1점 하락하는데, 이는 이 또한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이 전년 대비 1.9점 낮아졌기 때문이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복지, 보건, 안전 분야로 구성되어있다. 이 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세 개 영역 중 가장 높고 성평등 수준도 지속해서 상승하는 영역이다. 이 영역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6년 79.5점에서 2021년 82.9점으로 동기간 3.4점 개선되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2016년 대비 안전 분야가 6.1점 상승하여 성평등 수준이 가장 크게 개선되었고 복지 분야(5.0점↑)의 개선이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성평등 수준이 높은 보건 분야는 동 기간내 0.9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0년과 비교해 보면, 안전 분야가 1.0점으로 가장 큰 개선을 보이며 복지 분야 또한 0.2점 상승하여, 보건 영역이 소폭 하락함에도, 이 영역의 성평등은 전년 대비 0.3점 개선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Ⅲ-3]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 1)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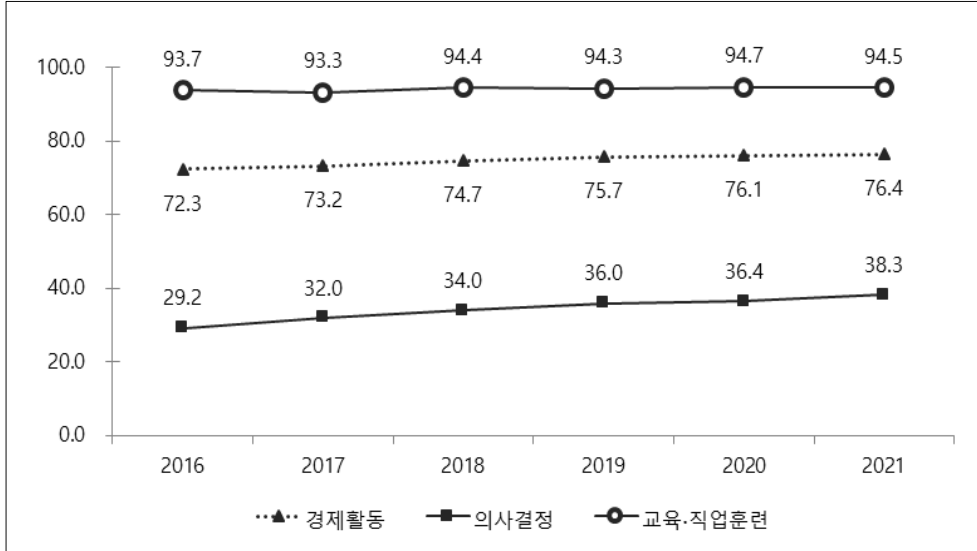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경제활동 분야, 교육·직업훈련 분야, 의사결정 분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2021년 기준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교육·직업훈련 분야로 94.5점이고, 경제활동 분야 76.4점, 의사결정 분야 38.3점 순이다.

연도별 성평등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제활동 분야는 2016년 72.3점, 2018년 74.7점, 2020년 76.1점으로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이며 2021년 76.4점으로 전년 대비 0.3점 상승한다. 경제활동 분야의 점수 상승은 세 개의 지표 모두가 개선되어 나타난다. 2016년 대비 경제활동 참가율, 임금 성비, 상용직 비율은 각각 2.9점, 3.2점, 6.2점 개선된다. 특히 상용직 비율 성비 개선은 지난 5년간 높은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을 끌어올리는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1년은 COVID-19 상황에서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하는 시기로, 경제활동참가율과 상용직 비율 성비가 전년 대비 0.9점과 0.5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성별 임금 격차는 2019년 이래 계속 악화되어 2021년 전년 대비 0.4점 하락한다.([그림 III-10] 참고).

의사결정 분야는 2016년 29.2점에서 2021년 38.3점으로 9.1점 상승한다. 이와 같은 상승은 구성 지표 모두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상승 때문이다.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2016년 26.1점에서 2021년 39.5점으로 동기간 13.4점 상승하며, 여기에 관리자 성비(2016년 14.9점 → 2021년 25.8점, 10.9점 상승),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비율 성비(2016년 56.0점 → 2021년 65.0점, 9.0점 상승), 국회의원 성비(2016년 19.8점 → 2021년 22.9점, 3.1점 상승) 등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성평등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의사결정 분야는 2020년 대비 1.9점의 비교적 높은 상승을 보이는데, 이는 전년 대비 국회의원 성비(2.6점 상승)와 4급 이상 공무원 성비(3.2점 상승) 등에서 높은 개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 III-15] 참고)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2016년 93.7점에서 2021년 94.5점으로 소폭 상승한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8개의 성평등 분야 중 두 번째로 높은 분야로, 세 지표 모두의 성평등 수준 변화가 높지 않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16년부터 완전평등상태(100.0점)를 보이며, 평균 교육연수 격차는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경험 성비는 연도별로 소폭 등락으로 인해 이 분야의 성평등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III-19] 참고)

(단위: 점수)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4]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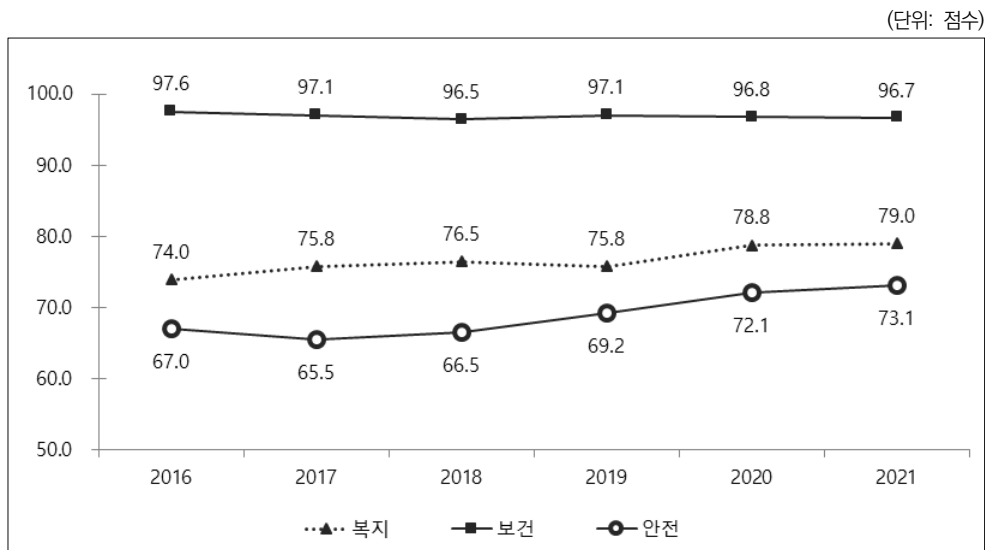
## 2)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보건 분야, 복지 분야, 안전 분야로 측정된다. 2021년 기준 이 영역은 82.9점으로 세 영역 중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다. 분야별로 보면, 성평등 수준은 보건 분야가 96.7점으로 가장 높았고, 복지 분야는 79.0점, 안전 분야는 73.1점으로 모두 70점 이상의 성평등을 보인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 분야는 2016년 97.6점에서 2021년 96.7점으로 동기간 0.9점 하락한다. 하락 원인을 살펴보면,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와 스트레스인지율 성비가 5년 전과 비교하여 각각 1.2점과 2.1점 낮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 분야를 구성하는 세 지표는 모두 95점 이상으로 높은 성평등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 분야는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비빈곤 인구 성비, 장애인 고용률로 구성되며, 2016년 74.0점에서 2021년 79.0점으로 5.0점 상승한다. 이 분야의 주된 상승 원인은 공적연금 가입자와 장애인 고용률의 개선 때문이다.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의 경우 2016년 82.0점에서 2021년 90.0점으로 8.0점 개선되며, 장애인 고용률 성비는 동기간 6.5점 상승한다. 비빈곤인구 비율은 성별 모두 빈곤율이 하락하면서, 성비는 2016년 95.7점에서 2021년 96.5점으로 0.8점 상승한다([그림 Ⅲ-23] 참고). 한편 2020년과 비교하여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개선에 힘입어 복지 분야는 0.2점 개선한다.

안전 분야의 구성 지표는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성비와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로 구성된다. 안전 분야는 2016년 67.0점에서 2021년 73.1점으로 6.1점 상승했다. 높은 성평등 상승의 주된 원인은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의 성비 개선때문이다.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성비는 2016년 66.7점에서 2021년 78.5점으로 11.8점 개선된다.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는 2016년 67.4점 이래 성비가 등락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2021년 67.8점으로 0.4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전년 대비 안전 분야는 1.0점 개선되며, 지표별로는 전반적 사회 안전의식 성비가 1.8점,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는 0.3점 높아졌다.([그림 III-30] 참고).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III-5] 여성 인권·복지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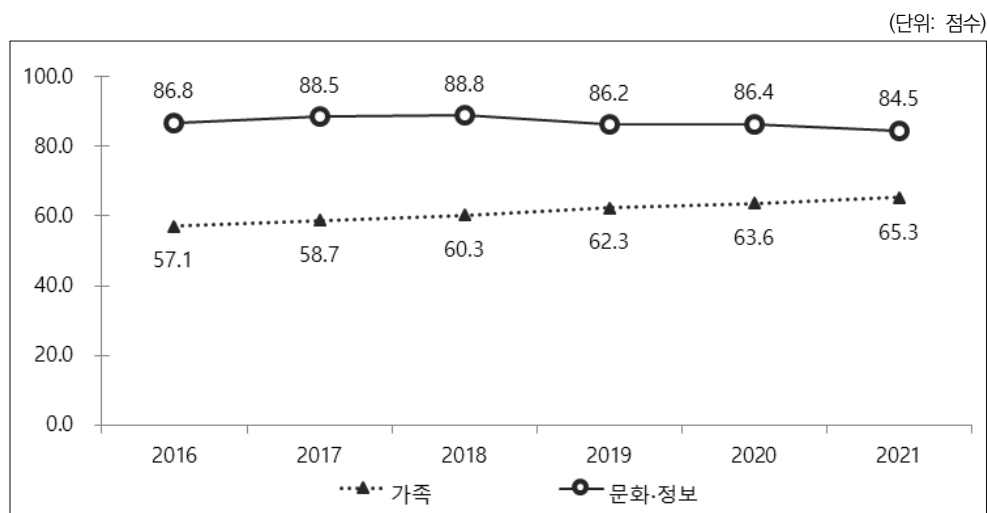
### 3) 성평등한 의식·문화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성평등한 의식·문화 영역은 가족 분야, 문화·정보 분야로 구성되며, 2021년 기준 74.9점으로 2016년 대비 2.9점 개선된다. 분야별로 보면 문화·정보 분야는 84.5점, 가족 분야는 65.3점이다.

가족 분야 성평등지수 값은 2016년 57.1점에서 2021년 65.3점으로 8.2점 상승하고, 점수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육아휴직 성비 개선으로 나타난다. 육아휴직 성비는 2016년 9.3점으로 매우 낮은 편이었으나 2021년 35.6점으로 크게 상승하여 성평등 정도는 동기간 26.3점 개선된다. 가사노동시간 성비, 가족관계만족도, 셋째아 출생성비는

동기간 각각 5.6점, 0.1점, 0.8점 개선된다. 한편 전년 대비 가족 분야 성평등은 1.7점 상승한다. 지표별로 보면, 전년 대비 육아휴직비율, 가족관계만족도, 가사노동시간 성비가 각각 3.2점, 2.9점, 0.7점 개선되어 가족 분야의 성평등은 1.7점 개선된다. (그림 Ⅲ-35) 참고)

문화·정보 분야는 2016년 86.8점에서 2021년 84.5점으로 동기간 2.3점 하락한다. 2016년 대비 문화·정보 분야의 하락의 주된 원인은 여가시간 성비 때문이다. 여가시간 성비는 2016년 77.7점에서 2021년 70.5점으로 동기간 7.2점 감소한다. 여가의 양적 부분 뿐 아니라 질적 측면의 성평등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즉, 여가만족도 성비는 2016년 94.7점에서 2021년 93.5점으로 1.2점 낮아졌다. 단, 성별정보화격차는 2016년 88.0점에서 2021년 89.4점으로 1.4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전년 대비 문화·정보 분야 성비는 세 구성 지표 모두에서 성평등 수준이 하락하면서 성평등 수준이 1.9점 낮아진다. 즉, 전년 대비 성별정보화격차는 3.1점, 여가시간 성비 0.9점, 여가만족도 성비 1.7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 하락이 비교적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Ⅲ-39) 참고)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Ⅲ-6] 성평등한 의식·문화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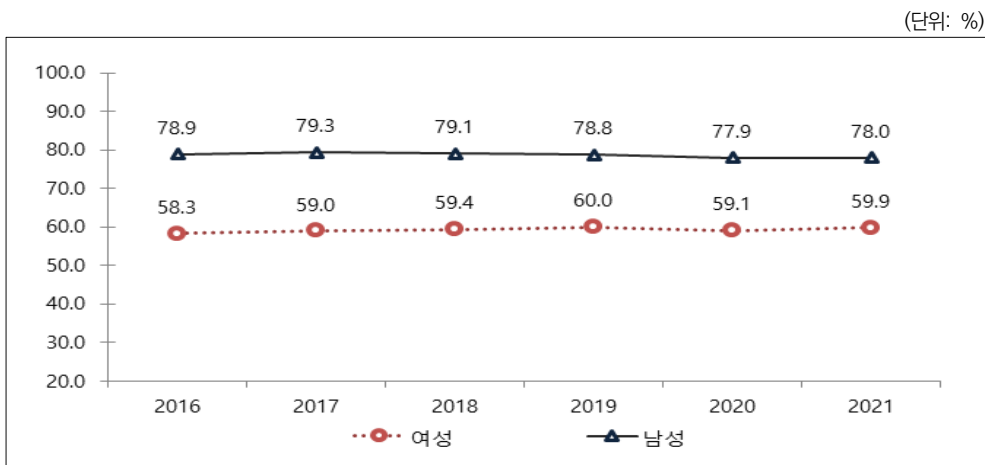
## 2. 분야별 지표의 성평등 수준의 변화와 특징

### 가.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 1) 경제활동 분야

경제활동 분야는 경제활동 참가율, 성별 임금 격차, 상용직 근로자 비율로 측정되며, 2021년 기준 8개 분야 중 성평등 수준이 다섯 번째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6년 72.3점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해 2021년에는 76.4점으로 2016년 대비 4.1점 상승하였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 참가율(15~64세)은 노동시장의 참여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 소폭 하락하지만, 전반적으로 2016년(58.3%) 이래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2021년 59.9%로 상승했다. 이는 전년 대비 0.8%p, 2016년 대비 1.6%p 상승한 수준이다.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7년 79.3%에서 하락하는 추세로 2020년 77.9%까지 낮아진다. 하지만 2021년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여 78.0%로 0.1%p 높아졌다. 이와 같은 추세로 경제활동 참가율의 성별 격차는 2016년 20.6%p에서 2021년 18.1%p로 낮아졌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을 크게 밀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력 유지, 성 평등한 직장문화와 성별 고정관념 해소, 더 나아가 여성 일자리 창출, 미래 유망 일자리로의 도약 등을 통한 노동시장 내 성 격차 해소는 중요한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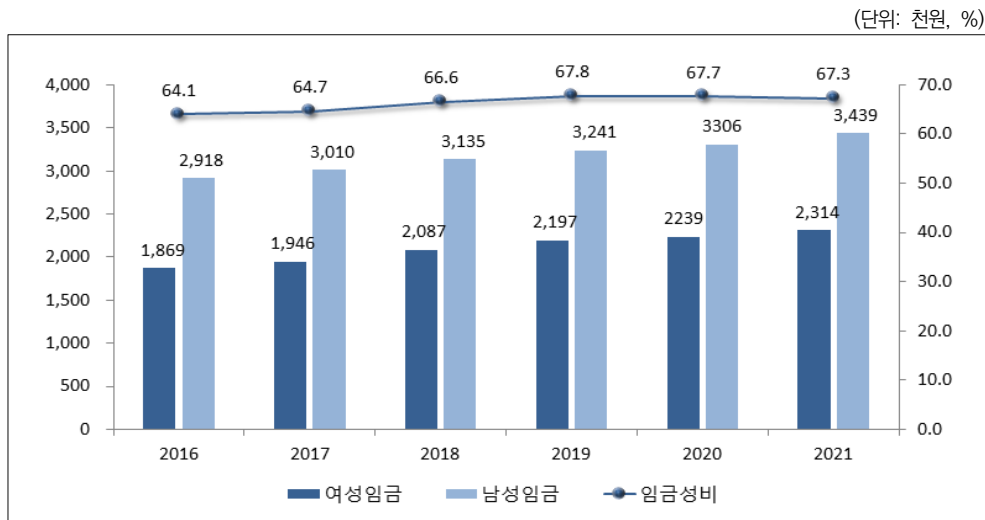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III-7] 성별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변화 추이

성별 임금 격차는 노동시장의 환경과 대우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지표로 활용되는 월급여액은 1인 이상 사업체의 정액급여와 초과급여의 합이며, 연간 상여금과 특별급여는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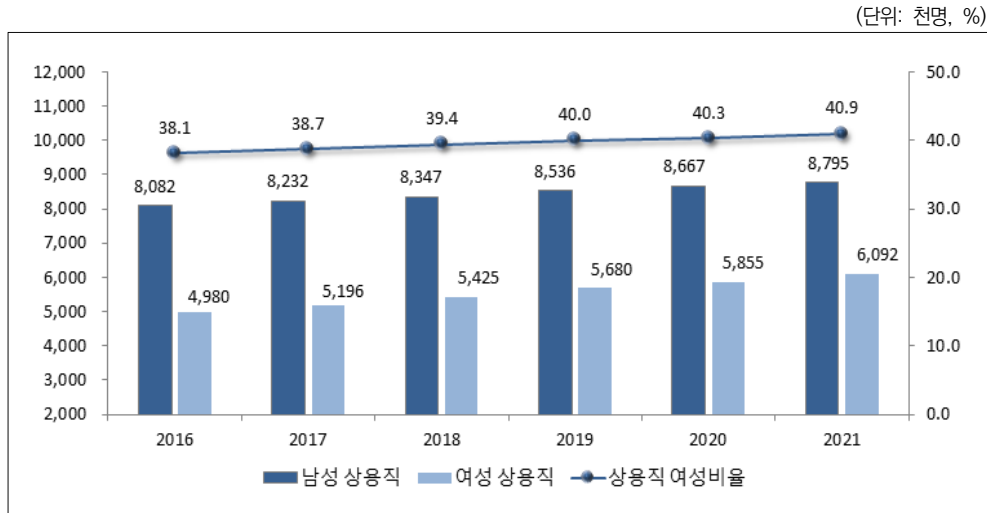
월급여액을 살펴보면 여성은 2016년 평균 1,869천 원에서 점차 상승하여 2021년 평균 2,314천 원으로, 동기간 445천원 높아졌고, 남성은 2016년 평균 2,918천 원에서 2021년 평균 3,439천 원으로 동기간 521천원 높아졌다. 이와 같은 추세로 인해 임금 성비는 2016년 64.1%에서 2021년 67.3%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전년 대비 임금 성비는 0.4%p 하락하는 등 여성의 임금 수준은 남성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그림 Ⅲ-8] 연도별 임금성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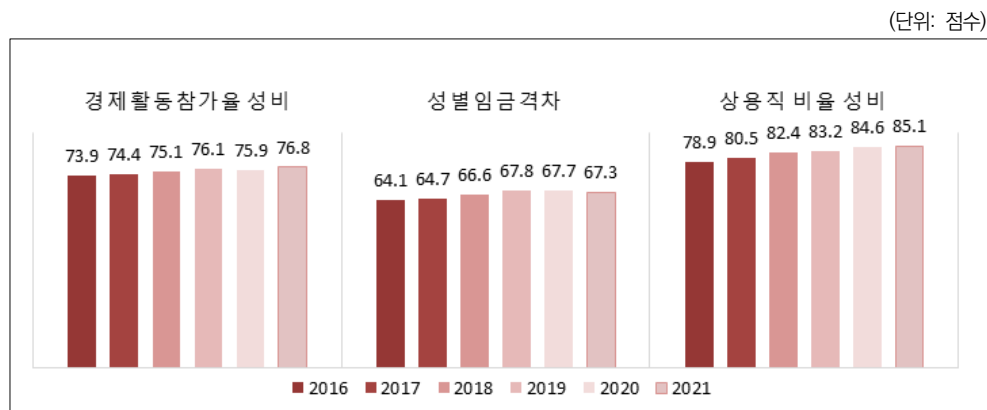
상용직 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중 고용계약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 임시직 및 일용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근로 안정성이 높은 지위에 해당한다. 여성 상용직 근로자는 2016년 4,980천 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6,092천 명으로 증가하였고, 남성 상용직 근로자는 2016년 8,082천 명에서 지속해서 증가하여 2021년 8,795천 명으로 증가한다. 이와 같은 추세로 전체 상용직 근로자 중 여성 비율은 2016년 38.1%에서 2021년 40.9%로 점차 개선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상용직 여성비율이 50%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여성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차별, 지속적 생계 설계 부재 등 중대한 문제가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III-9] 성별 상용직 근로자 비율 변화 추이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지표를 통해 성평등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2016년 73.9점에서 2021년 76.8점으로 개선되었고, 성별 임금 격차도 2016년 64.1점에서 2021년 67.3점으로 개선되었다. 다만 성별 임금 격차는 코로나 19로 특징 지워지는 2021년에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하는 특징을 보인다. 상용직 비율 성비는 2016년 78.9점에서 2021년 85.1점으로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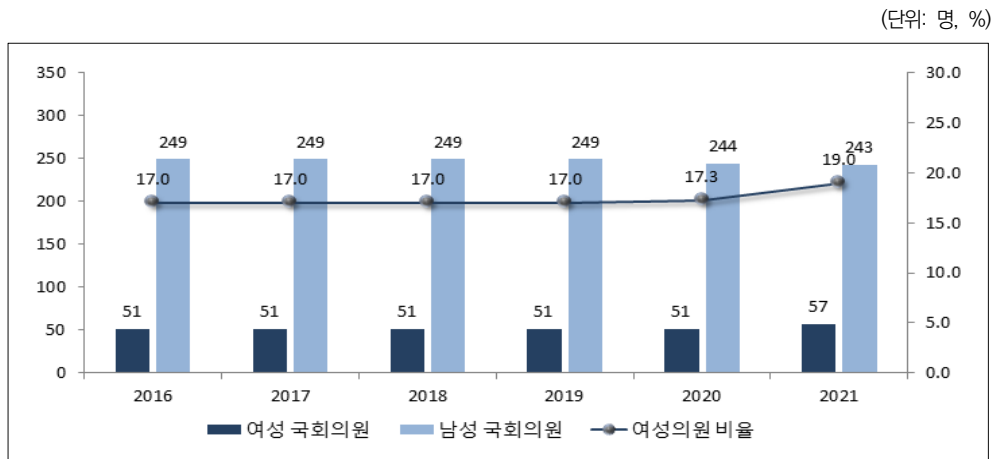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III-10] 경제활동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2) 의사결정 분야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성차별 해소 및 실질적인 평등 실현을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정책 등 의사결정 행사에서 여성의 참여 정도를 지표화하고 그 권한을 측정하기 위해 국회의원 비율,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비율을 지표화하여 성평등 정도를 측정하였다. 2021년 기준 8개 분야 중 성평등 수준은 가장 낮다. 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6년 29.2점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해 2021년에는 38.3점으로 동기간 9.1점 상승하였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국회의원 여성 비율은 입법기관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여성의 정치적 권한을 측정하고 비교하는 지표로 가장 많이 활용된다. 국회의원은 4년 주기로 선출되며, 보궐선거 등으로 국회의원 규모가 변경될 수 있다. 국회의원 여성 비율은 2016년 17.0%에서 미미한 수준의 등락을 보이다 2021년에 19.0% 수준으로 다소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전년 대비 1.7%p, 2016년 대비 2.0%p 상승한 수준이다. 2021년 21대 총선에서의 19.0% 기록은 비례대표 후보 50% 여성 할당제에 기인한 것으로 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석의 약 15% 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적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sup>16)</sup>. 최저 임계치인 30% 수준 까지 여성의 대표성을 개선하는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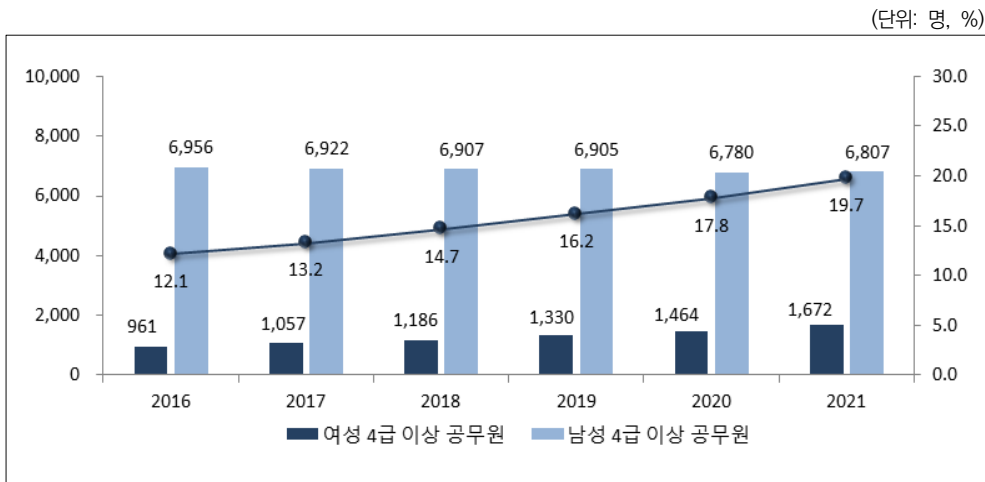


자료: 국제의원연맹, 홈페이지

[그림 III-11] 국회의원 여성 비율 변화 추이

16) 김은경 외(2020), 「국회 여성 비례대표 의원의 역할인식과 활동성과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비율은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관리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행정영역의 관리직 지위에서 의사결정 권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2016년 12.1%에서 지속해서 상승하여 2021년 19.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1.9%p 높아진 수준이고, 2016년 대비 7.6%p 상승한 수준이다. 정부는 2018년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2022년까지 고위 공무원 여성 비율 10%,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 21% 이상 확대, 그리고 2018년 내 모든 중앙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 1명 이상 임용 추진을 계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1년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8.5% 달성(목표치 8.2%),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 22.8% 달성(목표치 21.0%), 여성 고위 공무원이 1명도 없는 부처 2018년 10개에서 6개 부처로 감소한 상황이라고 발표하고 있다<sup>17)</sup>. 그러나 2021년 행정부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38.3%에 이르는 것과 비교할 때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료: 인사혁신처(각 연도), 「인사혁신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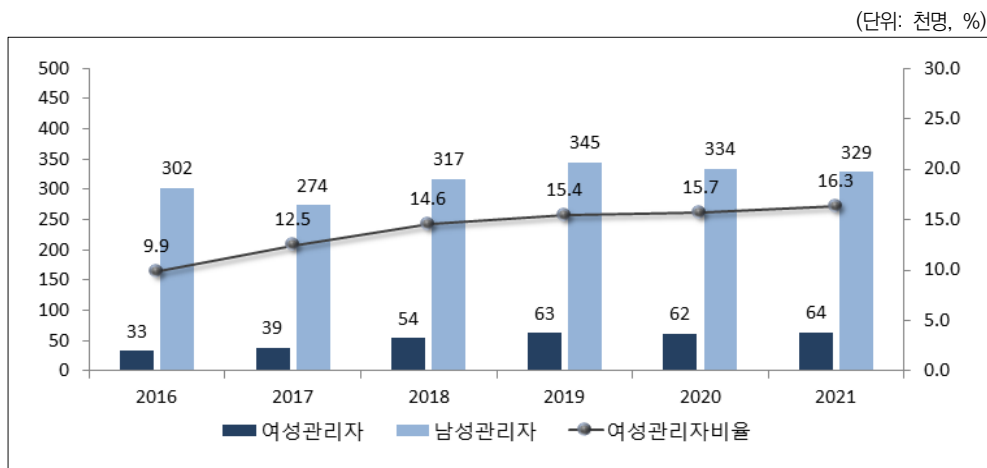
[그림 III-12] 성별 4급 이상 공무원 변화 추이

관리자<sup>18)</sup> 비율은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 지휘, 조정하는데 직무 시간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직군의 비율이다.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16년에 9.9%에서 2021년 16.3%로

17) ‘공공부문 모든 분야서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 달성’(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21.9.17.일자)

18) 제7차 표준직업분류체계(2018년) 기준

상승했다. 이는 전년 대비 0.6%p 상승한 수준이고, 2016년 대비 6.4%p 증가한 수준이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가 잘 갖춰진 사업장에서 여성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19) 조직 인력의 다양성과 여성인재 활용, 조직성과 추구 차원에서 고급 여성 인력의 여성 관리자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20).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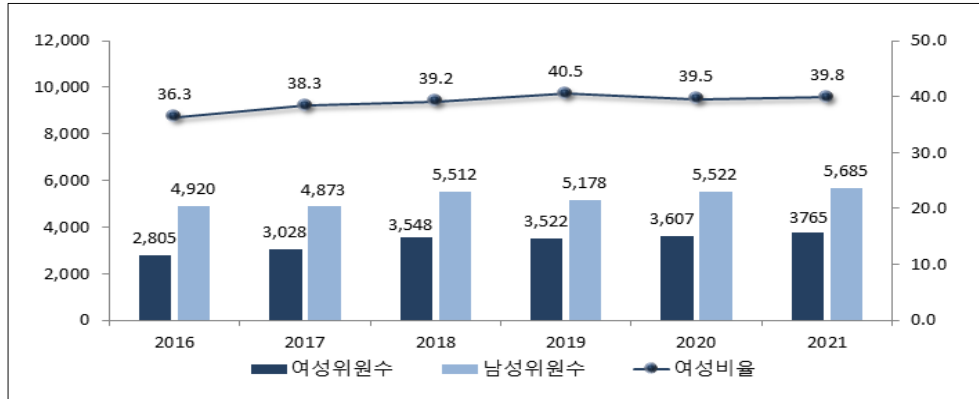
[그림 Ⅲ-13] 성별 관리자 변화 추이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여성 비율은 2016년 36.3%에서 2019년 40.5%까지 지속해서 증가하다 2020년 39.5%로 다소 하락하지만, 2021년 39.8% 소폭 상승했다. 즉, 전년 대비 0.3%p, 2016년 대비 3.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19)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시행(2006년) 이후 여성 근로자 비율 6.92%p, 관리자 비율 10.7%p 증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11.25.)

20) '성과 추구하는 경영자라면 여성인재로 눈 돌려라', 중앙일보 오피니언(2021.8.3.)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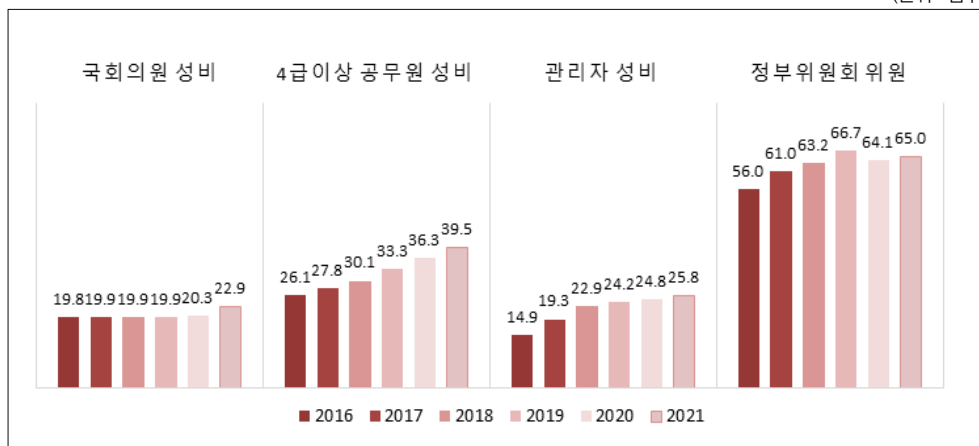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그림 III-14] 성별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변화 추이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 지표를 통해 성평등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국회의원 성비는 2016년 19.8점에서 2021년 22.9점으로 개선되었고, 4급 이상 공무원 성비는 2016년 26.1점에서 2021년 39.5점으로, 관리자 성비는 2016년 14.9점에서 2021년 25.8점으로,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비율 성비는 2016년 56.0점에서 2020년 소폭 하락하나 2021년 65.0점으로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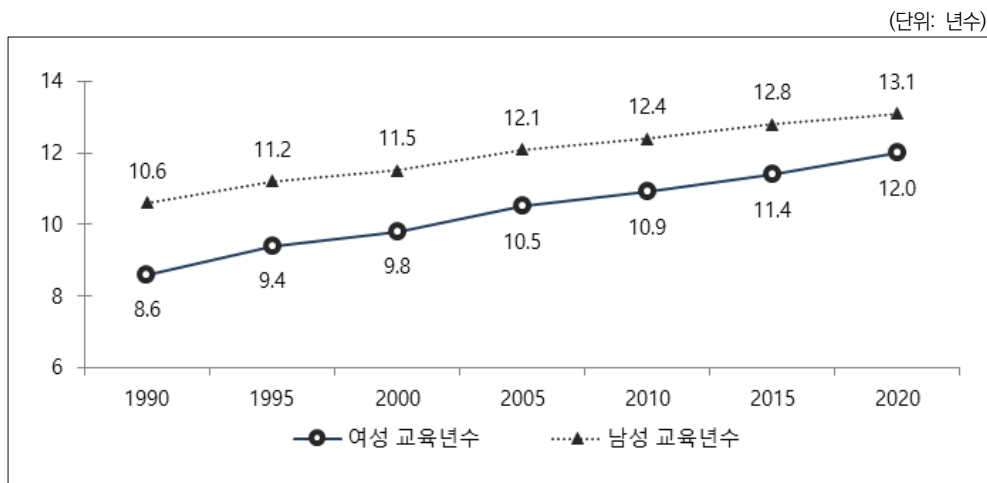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III-15] 의사결정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 3) 교육·직업훈련 분야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평균 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직업 교육·훈련 경험 비율로 측정되며, 2021년 기준 8개 분야 중 성평등 수준이 두 번째 순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6년 93.7점에서 등락을 반복하지만 2021년 94.5점으로 소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평균 교육년수<sup>21)</sup>는 교육 기회의 충족과 관련성이 높은 지표로 여성은 2005년 10.5년에서 점차 높아져, 2020년 12.0년으로 나타났다. 남성 또한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동일하게 보이면서 2020년 13.1년을 보인다. 하지만 교육 수준에서 여성의 상승 정도가 더 높음에 따라, 남녀의 교육년도 차이는 2005년 1.6년에서 점차 좁혀져 2020년 1.1년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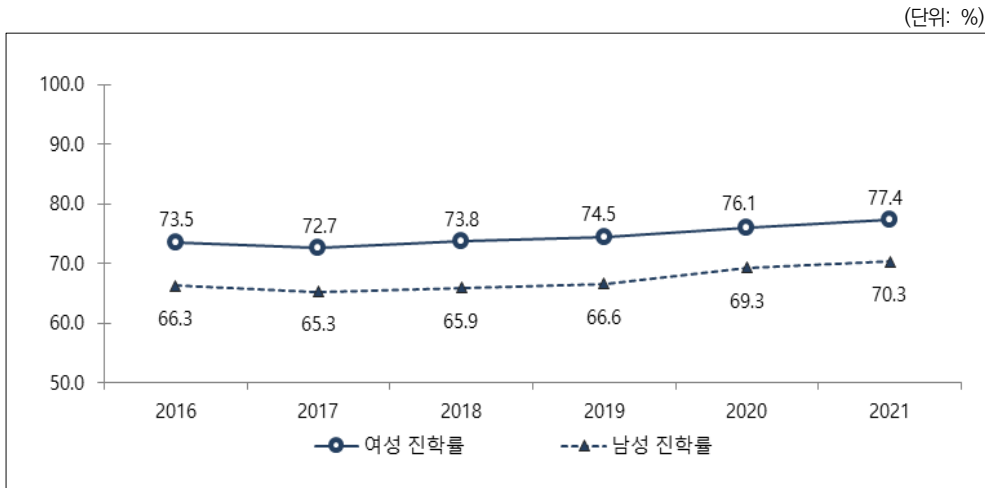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한국의 사회지표」.

[그림 III-16] 성별 평균 교육년수 변화 추이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고등학교 졸업자 대비 대학 진학자 비율로 측정된다. 여성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16년 73.5%에서 2017년 소폭 하락하지만 이후 점차 상승하여 2021년 현재 77.4%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년 대비 1.3%p 상승한 수준이고, 2016년 대비 3.9%p 증가한 수준이다. 남성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17년 65.3%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나 이후 여성과 동일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2021년

21) 재학생은 제외

70.3%로 70% 대에 진입한다. 이는 전년 대비 1.0%p, 2016년 대비 4.0%p 상승한 수준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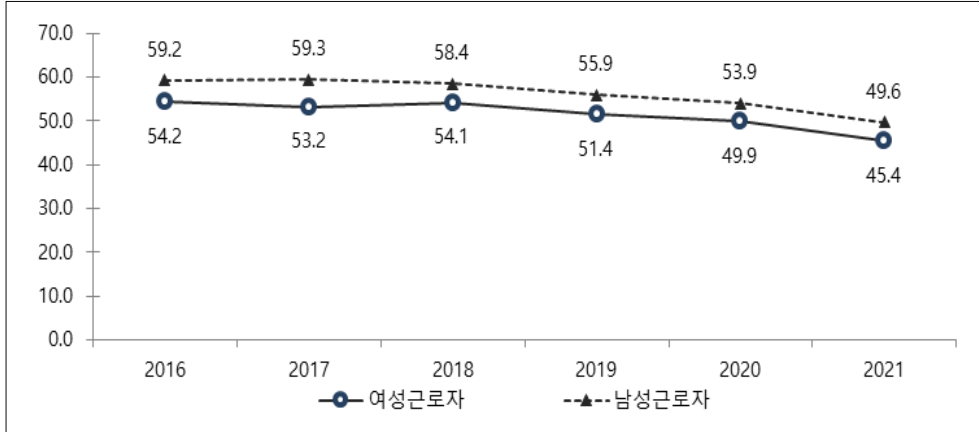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그림 III-17] 성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변화 추이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교육 분야에서의 성 격차는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간주 되곤 한다. 그러나 사회가 고도화되고 4차 산업 등 미래 시장과의 연계점에서 성별에 따른 전공 분리, 인력수급 불일치 등 다양한 정책과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은 여성 근로자 중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비율로, 2016년 54.2%에서 등락을 거듭하지만, 2018년 이래 감소 추세를 유지하면서 2021년 현재 45.4%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년 대비 4.5%p 낮아진 수준이고, 2016년 대비 8.8%p 하락한 수준이다. 남성의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은 2016년 59.2%에서 2017년 59.3%로 상승하다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여 2021년 현재 49.6% 수준에 낮아졌다. 단,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은 남녀가 모두 하락하는 추이로 인해 성별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의 차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2016년 5.0%p, 2021년 4.2%p). 직업교육훈련은 자기계발 및 취업역량 강화, 노동시장 수급에 부응하여 여성 인력 이동, 미래 유망 일자리로의 여성 진출 브릿지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거듭 부각되고 있다. 성별에 따른 훈련 분야, 훈련 성과, 일·가정 양립과 더불어 접근성 제고 등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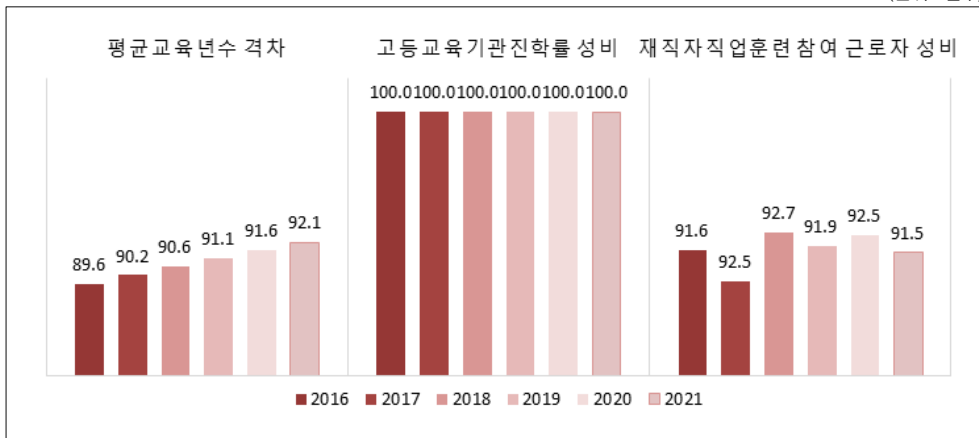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III-18] 성별 직업교육 훈련경험자 비율 변화 추이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 지표를 통해 성평등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평균 교육년수의 성비는 2016년 89.6점에서 2021년 92.1점으로 개선되었고,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여학생 진학률이 남학생보다 높음에 따라 2016년 이래 완전성평등 수준(100.0)을 유지하고 있다. 재직자 직업 교육훈련 경험 비율의 성비는 2016년 91.6점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2021년 91.5점으로 2016년 대비 0.1점 하락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점수)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III-19] 교육·직업훈련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이상에서 살펴본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2020년 대비 2021년 성평등지수 변화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 III-1>과 같다. 성평등한 사회참여영역의 3개 분야 중에서 2020년 대비 의사결정 분야 1.9점, 경제활동 분야 0.3점 상승하며,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0.2점 낮아진다. 의사결정 분야의 경우 비례제 여성할당제로 인한 국회의원 성비 점수가 2020년 대비 2.6점으로 상승하고 정부의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성과 관리에 기인하여 4급 이상 공무원 성비 점수가 3.2점 상승하면서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을 이끈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은 경제활동참가율 성비와 상용직 비율 성비 점수가 각각 0.9점과 0.5점 상승으로 인해 소폭 상승하는 반면에,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참여 성별 격차가 상승하면서 성평등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1>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성평등지수 변화

(단위: 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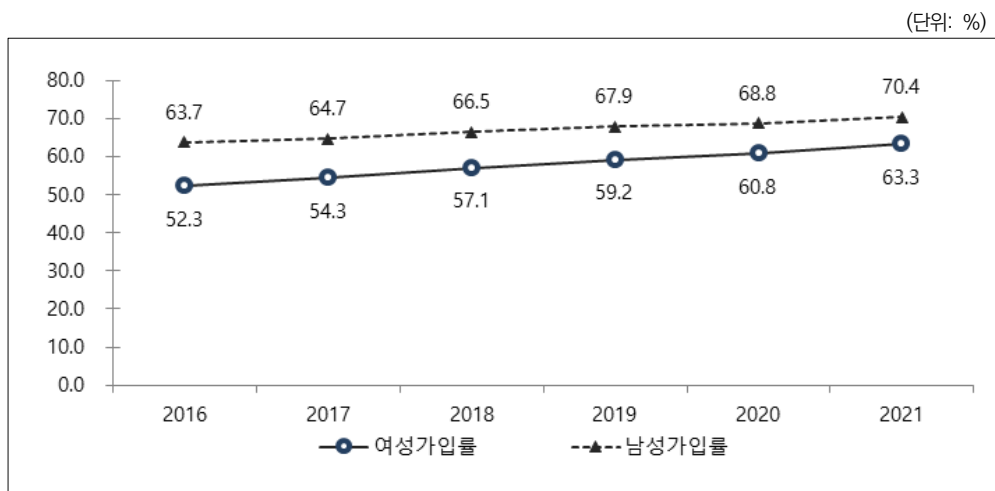
분야별 지수 변화				지표 변화			
분야	2020	2021	증감	지표	2020	2021	증감
경제활동	76.1	76.4	0.3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75.9	76.8	0.9
				성별 임금 격차 성비	67.7	67.3	-0.4
				상용직 비율 성비	84.6	85.1	0.5
의사결정	36.4	38.3	1.9	국회의원 성비	20.3	22.9	2.6
				4급 이상 공무원 성비	36.3	39.5	3.2
				관리자 성비	24.8	25.8	1.0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64.1	65.0	0.9
교육·직업훈련	94.7	94.5	-0.2	평균 교육년수 격차	91.6	92.1	0.5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00.0	0.0
				재직자 직업훈련참여 근로자 성비	92.5	91.5	-1.0

## 나.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

### 1) 복지 분야

복지 분야는 공적연금 가입자, 빈곤율, 장애인 고용률로 측정되며, 2021년 기준 8개 분야 중 성평등 수준이 네 번째 순위를 나타냈다. 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6년 74.0점에서 2021년 79.0점으로 5.0점 상승하였다.

지표별로 보면, 성별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가입률 추이는 여성 가입자의 경우 2016년 52.3%에서 지속해서 상승하여 2021년 63.3%가 되었다. 2021년 여성 가입자 비율은 전년 대비 2.5%p, 2016년 대비 11.0%p 상승하였다. 2021년 남성 가입자 비율은 2016년 63.7%에서 70.4%로 높아져 2016년 대비 6.7%p 상승하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성별 격차는 2016년 11.4%p에서 2021년에는 7.1%p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은 남성보다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이 낮는데, 소득활동자 중심의 연금체계에서 여성들이 경력단절 등의 문제로 공적연금 가입 수준이 낮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에서 남녀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용상 남녀 격차 해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사회참여 분야 성평등 지수 개선과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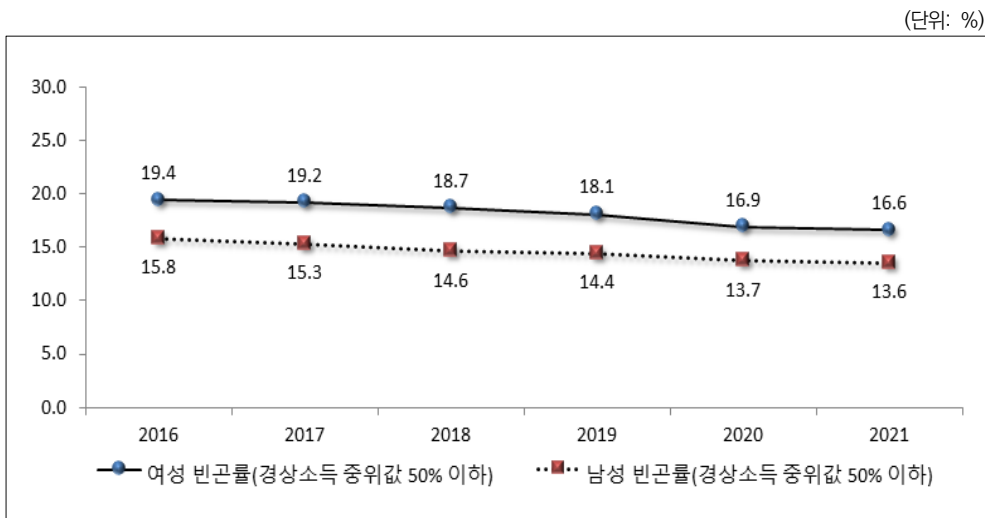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각 연도),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각 연도), 「공무원연금통계」; 사학연금관리공단(각 연도), 내부자료 및 「사학연금통계」.

[그림 Ⅲ-20] 성별 공적연금 가입률 변화 추이

빈곤율은 성평등 측정에서는 비빈곤율로 측정된다. 빈곤율은 경상소득 기준으로 중위 소득 50% 이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경상소득을 균등화한 소득을 개인화하여 분석하고 있다. 여성 빈곤율<sup>22)</sup>은 2017년 19.2%에서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며, 2021년 16.6%로 하락한다.

22) 빈곤율 연도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년도에서 n-1를 기준으로 작성되나, 본 연구의 빈곤율 연도는 조사년도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남성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2017년 남성 빈곤율은 15.3%에서 2021년 13.6%를 기록하였다. 빈곤율이 남녀 모두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여성의 빈곤율 하락이 다소 높아, 빈곤율의 성별 격차는 2017년 3.9%p에서 2021년 3.0%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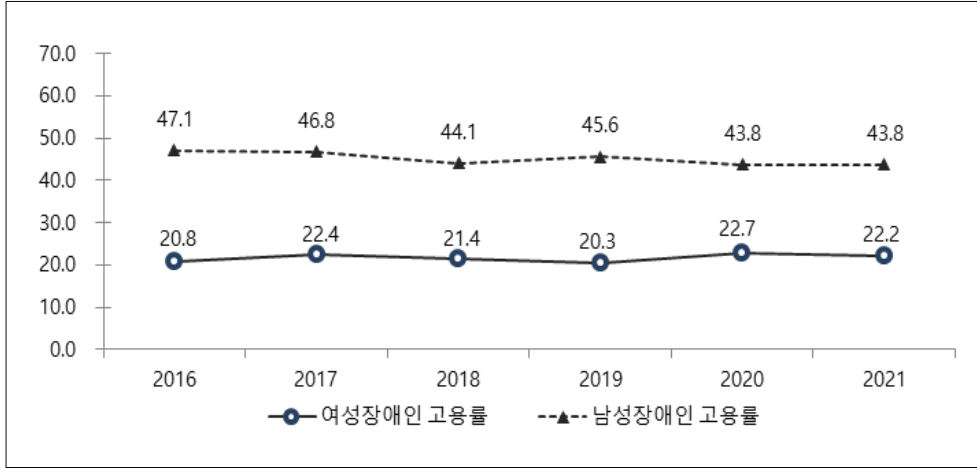


주: 통계는 2017년 이후는 시계열이 동일하지만, 이전 통계는 시계열이 다소 다름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그림 III-21] 성별 빈곤율 변화 추이

장애인 고용률의 경우 여성은 2016년 20.8%에서 등락을 반복하지만 2021년 22.2%로 1.4%p 상승한다. 반면에 남성은 2016년 47.1%에서 등락하면서 하락하여 2021년 43.8%로 낮아진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장애인 고용률 성별격차는 2016년 26.3%p에서 2021년에 21.6%p로 낮아진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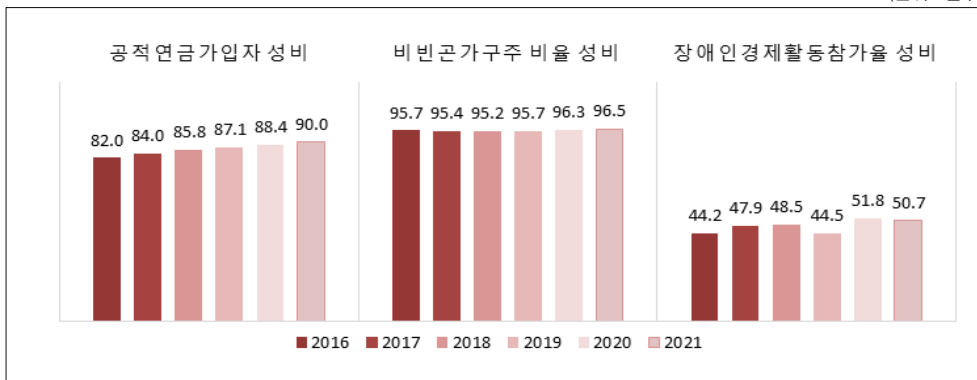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각 연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그림 Ⅲ-22] 성별 장애인 고용률 변화 추이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통해 복지 분야 지표의 성평등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성비 점수는 2016년 82.0점에서 지속해서 상승하여 2021년 90.0점이 된다. 비빈곤율 성비 점수는 남녀 모두 빈곤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성별 격차가 좁아져, 2016년 95.7점에서 2021년 96.5점으로 상승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2016년 44.2점에서 성평등 점수가 등락하는 특성을 보이며, 2021년 50.7점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단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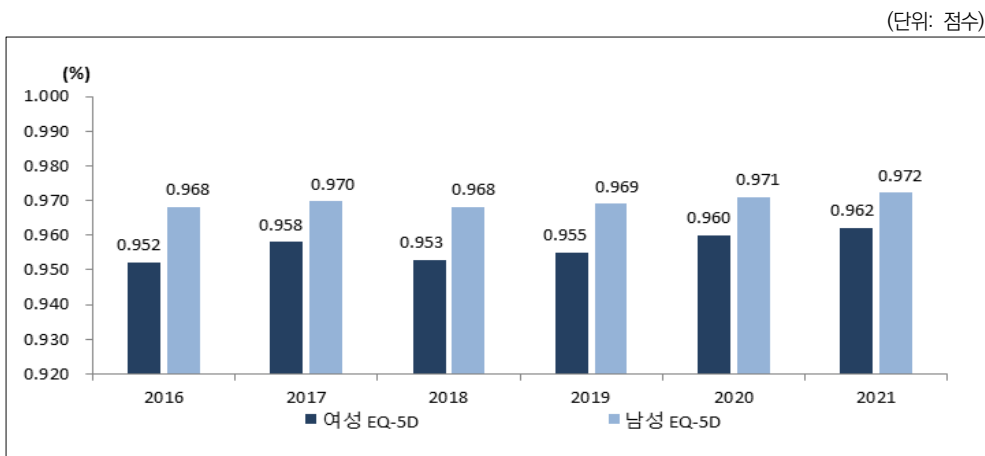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Ⅲ-23] 복지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 2) 보건 분야

보건 분야는 건강 관련 삶의 질,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로 측정되며, 2021년 기준 8개 분야 중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였다. 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6년 97.6점에서 2021년(추정치) 96.7점으로 동기간 0.9점 하락하였다.

건강 관련 삶의 질(EQ-5D<sup>23)</sup>) 지표에서 19세 이상 여성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은 2018년 이래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며, 2021년에는 0.962로 소폭 상승한 현상을 보인다. 남성은 전반적으로 여성보다 높은 가운데, 변화 특성은 여성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남성도 2018년 이래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1년 0.972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성별 격차는 2016년 0.016에서 2021년 0.010으로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 질병관리청(각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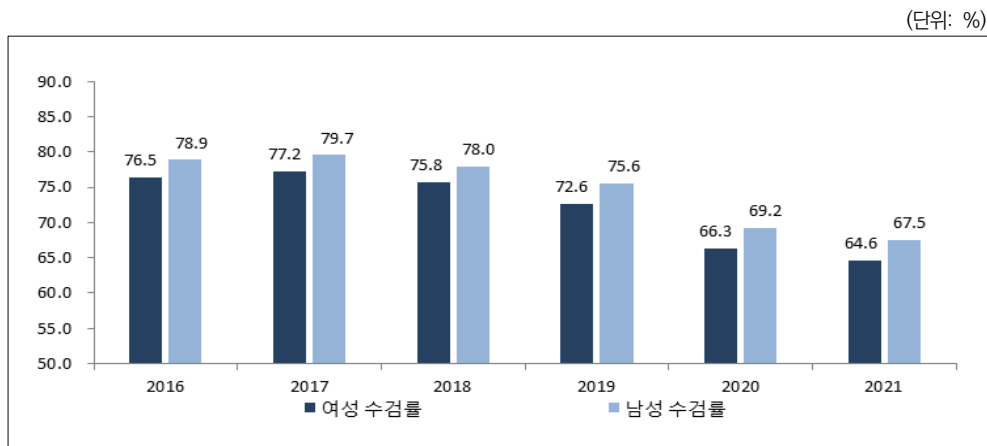
[그림 III-24]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지수 변화 추이

건강검진 수검률 현황을 보면 여성의 건강검진 수검률<sup>24)</sup>은 2016년 76.5%에서 2017년 77.2%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2018년 75.8%, 2019년 72.6%로 하락하며 코로나 상황에서 더 크게 하락하여 2020년 66.3%, 2021년 64.6%로 낮아졌다. 이러한

23) EQ-5D는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나타내는 5가지 차원 즉, 운동능력(Mobility), 자기관리(Self-care), 일상 활동(Usual activity), 통증/불편감(Pain/Disability), 그리고 불안과 우울(Anxiety and Depression)의 기술체계를 종합한 지표임. 5가지 차원을 나타내는 항목에 대한 현상을 3개 수준 중 하나로 응답한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하며, 비표준화 값임.

24) 1차 검진대상 인원 대비 수검인원 비율을 의미함.

추이는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2016년 78.9%에서 2017년 79.7%로 상승 하였지만 이후 하락하여 2019년 75.6%, 2021년에는 67.5%이다. 건강검진 수검률의 성별 격차는 2016년 2.4%p에서 2018년 2.2%p까지 낮아졌지만, 2021년 격차는 2.9%p로 다시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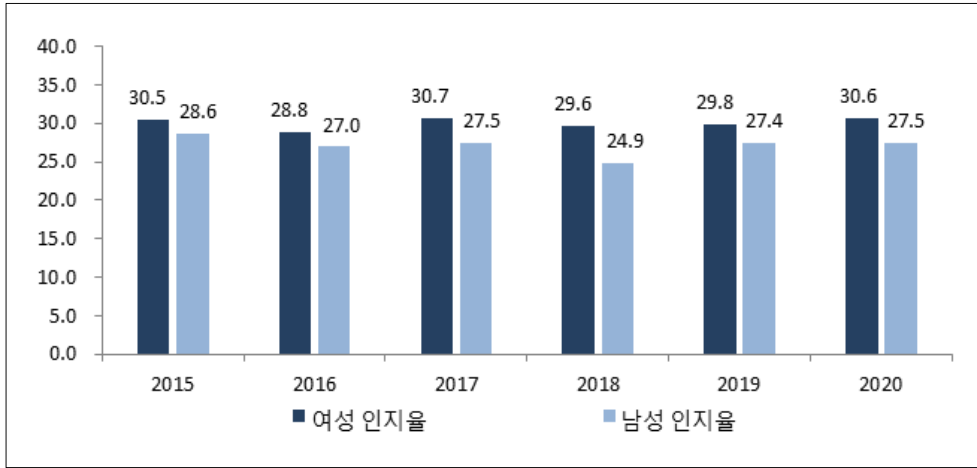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각 연도). 「건강검진통계연보」.

[그림 Ⅲ-25] 성별 건강검진 수검률 변화 추이

스트레스 인지율<sup>25)</sup>은 모든 연도에서 여성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동시에 그 격차가 더 커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여성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016년 28.8%에서 2017년 30.7% 상승 후 2018년 29.6%로 하락한 후 다시 상승하여 2020년 30.6%를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남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스트레스 인지율의 성별 격차는 2016년 1.8%p에서 2020년 3.1%p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25)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이라고 응답한 19세 이상인 사람의 비율을 나타냄. 19세 이상 표준화된 통계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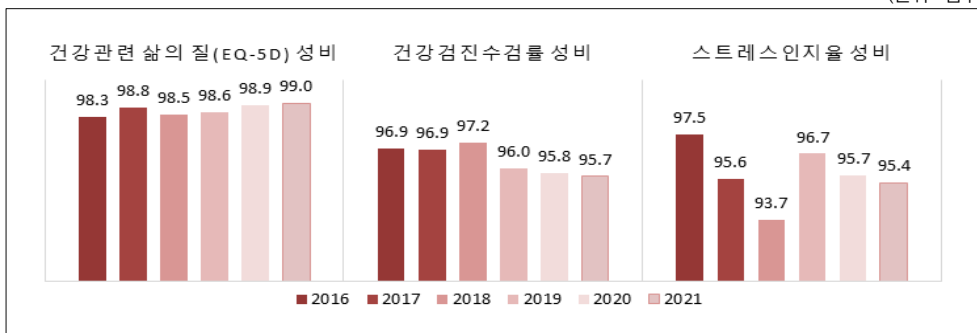


자료: 질병관리청(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III-26] 성별 스트레스 인지율 변화 추이

종합해보면 보건 분야는 모든 지표의 성비가 90점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건강 관련 삶의 질은 2016년 98.3점에서 2021년 99.0점으로 동기간 0.7점 개선되면서 완전 성평등에 더 가깝게 다가섰다. 반면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2016년 96.9점에서 2018년 97.2점으로 개선되지만 이후 하락하여 2021년 95.7점을 보인다.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역시 2016년 97.5점에서 2018년까지 하락하고 2019년 상승 후 다시 하락하여 2021년 95.4점으로 동기간 2.1점 낮아진다. 보건 분야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평등을 보이지만,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뿐 아니라 스트레스 인지율과 같은 주관적 지표의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단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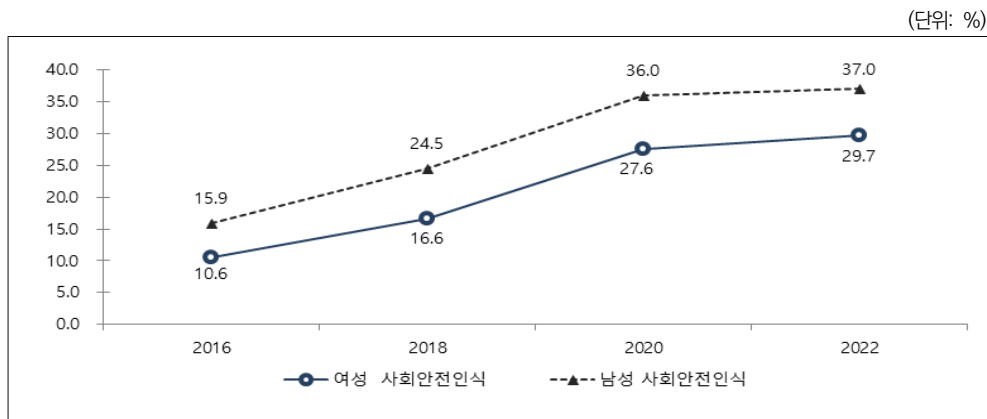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III-27] 보건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 3) 안전 분야

안전 분야는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과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성비로 측정되며, 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6년 67.0점에서 2021년 73.1점으로 동기간 6.1점 상승했다. 2021년 기준 8개 분야 중 6번째 순위이다.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은 ‘매우 안전하다’와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합이며, 이 지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점차 높아지는 추이를 보였다. 여성은 2016년 10.6%, 2018년 16.6%, 2020년 27.6%, 2022년 29.7%로 상승하였고, 남성 또한 2016년 15.9%, 2018년 24.5%, 2020년 36.0%, 2022년 37.0%로 개선되었다. 하지만 성별 개선 정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아, 성별 격차는 2016년 5.3%p에서, 2018년 7.9%p, 2020년 8.4%p로 점차 높아졌으며, 2022년은 소폭 성별 격차가 축소 되었으나 7.3%p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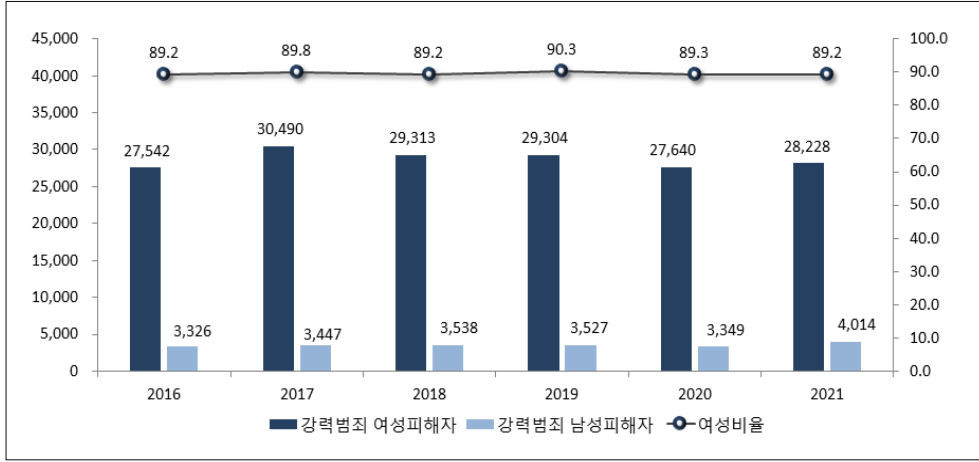


주: 13세 이상 인구대상 기준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회조사」.

[그림 Ⅲ-28]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변화 추이

안전 분야의 또 다른 지표인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성비를 살펴보면, 강력범죄의 여성 피해자는 2017년 30,490명에서 점차 하락하여 2020년 27,640명까지 감소한다. 하지만 2021년은 28,228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강력범죄의 남성 피해자는 여성 피해자보다 그 수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으며, 2016년 3,326명에서 2018년 3,538명으로 늘었다가 2020년에는 3,349명으로 다시 소폭 감소하였다. 하지만 2021년은 여성과 동일하게 소폭 증가한 4,014명을 보인다. 이 같은 변화로 인해 강력범죄에서의 여성 비율은 90% 전후를 유지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89.2%를 기록하였다.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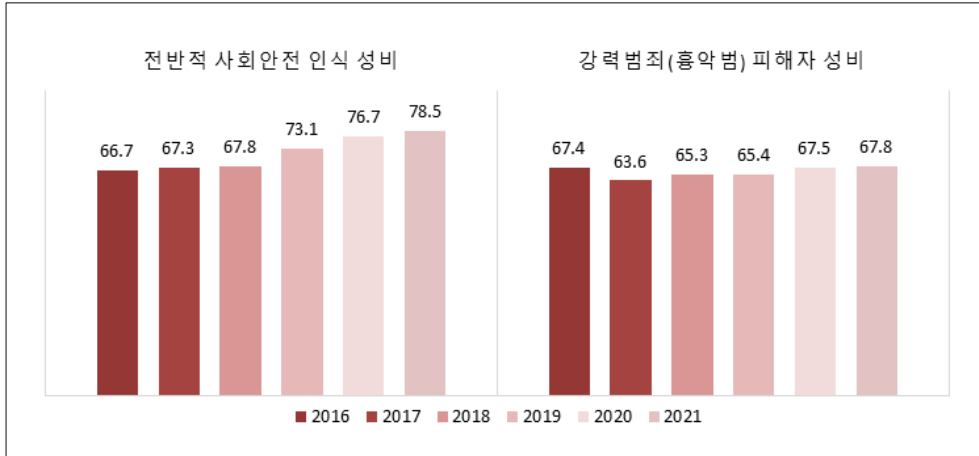


주: 1)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는 강도, 방화, 강간, 살인 피해자의 합임  
 2) 미상 제외  
 자료: 대검찰청(각 연도). 「범죄분석」; 경찰청(각 연도). 「범죄분석」 원자료 분석

[그림 III-29] 성별 강력범죄(흉악범죄) 피해자 변화 추이

종합해보면, 안전 분야 지표는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개선으로 인해 성비가 2016년 66.7점, 2019년 73.1점으로 70점 이상으로 개선되고 2021년 78.5점으로 높아졌다.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는 2016년 67.4점에서 2017년 63.6점으로 낮아지나, 이후 점차 개선되어 2021년은 67.8점을 기록하고 있다.

(단위: 점수)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III-30] 안전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이상에서 살펴본 인권·복지 영역의 2020년 대비 2021년 성평등지수 변화를 요약하면 아래 <표 Ⅲ-2>와 같다. 인권·복지 영역의 3개 분야 중에서 복지 분야 0.2점, 안전 분야 1.0점 상승이 있었고 보건 분야는 0.1점 하락을 보였다. 복지 분야의 경우 공적연금가입자 성비와 비빈곤가구주 비율 성비 점수가 상승하여 분야 점수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2020년 대비 점수가 1.1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 상황에서 노동 약자의 성별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전 분야는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성비는 2020년과 비교하여 0.3점 높아졌고 전반적 사회 안전인식 성비가 1.8점 상승하여 안전 분야의 성평등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보건 분야는 성비가 거의 100에 가까운 분야로 2020년 대비 점수 변화는 전년 대비 0.1점 하락한다. 세부 지표를 보면 건강 관련 삶의 질 성비 지표는 0.1점 상승하였고, 이외 건강검진 수검율 성비와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는 각각 0.1점과 0.3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보건 분야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성별 건강검진 수검률은 남녀 모두 2017년 이래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Ⅲ-2> 인권·복지 영역 성평등지수 변화

(단위: 점수, %)

분야별 지수 변화				지표 변화			
분야	2020	2021	증감	지표	2020	2021	증감
복지	78.8	79.0	0.2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88.4	90.0	1.6
				비빈곤가구주 비율 성비	96.3	96.5	0.2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51.8	50.7	-1.1
보건	96.8	96.7	-0.1	건강 관련 삶의 질 성비	98.9	99.0	0.1
				건강검진 수검율 성비	95.8	95.7	-0.1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95.7	95.4	-0.3
안전	72.1	73.1	1.0	전반적 사회 안전 인식 성비	76.7	78.5	1.8
				강력범죄(흉악범)피해자 성비	67.5	67.8	0.3

#### 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

##### 1) 가족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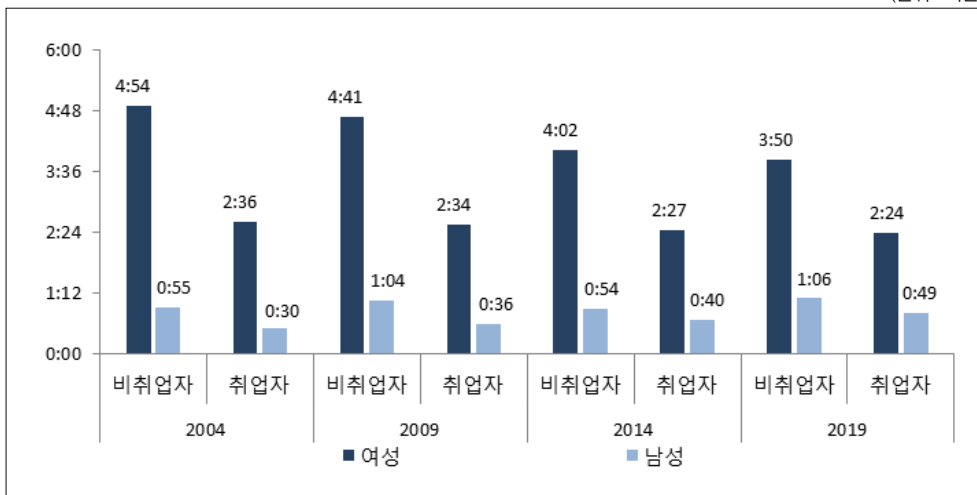
가족 분야는 가사노동 시간,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비율로 측정되며, 성평등 수준은 전체 8개 분야 중에서 의사결정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분야였다. 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6년 57.1점에서 2021년 65.3점으로

동기간 8.2점 상승했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가사노동 시간은 일상생활에서 분담과 책임에 있어 성별 간 불평등 구조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분야로 가정관리와 돌봄노동을 포함한 시간이다. 따라서 의식주와 관련한 가사 노동 시간과 가족 및 가구원 돌봄을 위해 소요되는 돌봄 노동 시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성별과 취업 여부에 따른 가사노동 시간 차이를 모두 고려하여 평균 시간으로 산정하고 있다.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여성 취업자의 가사노동 시간은 2014년 2시간 27분에서 2019년 2시간 24분으로 동기간 3분 감소하며, 여성 비취업자의 가사노동 시간은 2014년 4시간 2분에서 2019년 3시간 50분으로 12분 감소했다. 여성 취업자의 가사노동 시간은 비취업 여성보다 낮은 수준이긴 하나 가사노동 시간이 거의 변화가 없이 2004년부터 2019년까지 대략 2시간 30분 내외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남성은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가사노동에 1시간 안팎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취업자의 가사노동은 2014년 40분에서 2019년 49분으로 9분 증가했고, 비취업자 가사노동은 2014년 54분에서 2019년 1시간 6분으로 12분 증가했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격차는 취업자의 경우 1시간 47분에서 1시간 35분으로 감소했으며, 비취업자의 경우 3시간 8분에서 2시간 44분으로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격차 감소 폭이 매우 적어서 가사노동 시간에서의 성불평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관련 정책의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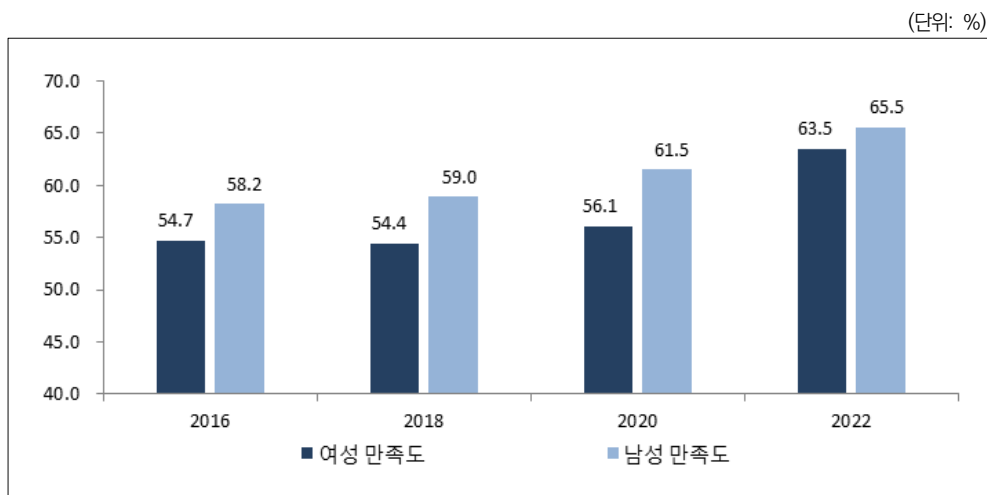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생활시간조사」.

[그림 III-31] 가사노동 시간 변화 추이

가족관계 만족도는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여 그 중 '만족한다(매우 만족, 약간 만족)'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성별로 산정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족관계 만족도는 남녀 모두 상승한다. 여성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2016년 54.7%에서 2018년 54.4%로 하락하지만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20년 56.1%, 2022년 63.5%로 상승한다. 이에 비해 남성은 2016년 58.2%에서 2018년 59.0%, 2020년 61.5%, 그리고 2022년 65.5%로 계속해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가족관계 만족도에서의 성별 격차는 2016년 3.5%p, 2018년 4.6%p, 2020년 5.4%p로 점차 높아진다. 하지만, 2022년의 성별 격차는 2.0%p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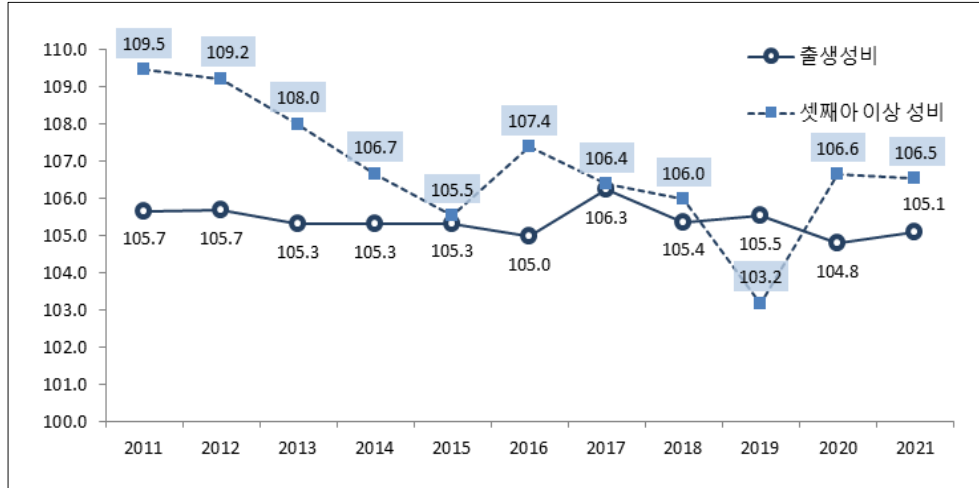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회조사」.

[그림 Ⅲ-32]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추이

출산 순위별 출생 성비를 보면 출생성비는 1995년에 자연 출생 성비인 106~107을 이미 도달했다. 이후 2021년까지 출생성비는 105.0~106.3 수준에서 변동하는 자연출생성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를 보면 [그림 Ⅲ-33]에서와 같이 2011년에는 109.5로 자연 출생 성비 수준을 넘어섰고 2013년까지 자연 출생 성비를 초과하는 범주를 보인다. 하지만 출생아 수의 감소와 함께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도 2014년부터 자연 출생 성비 범주 안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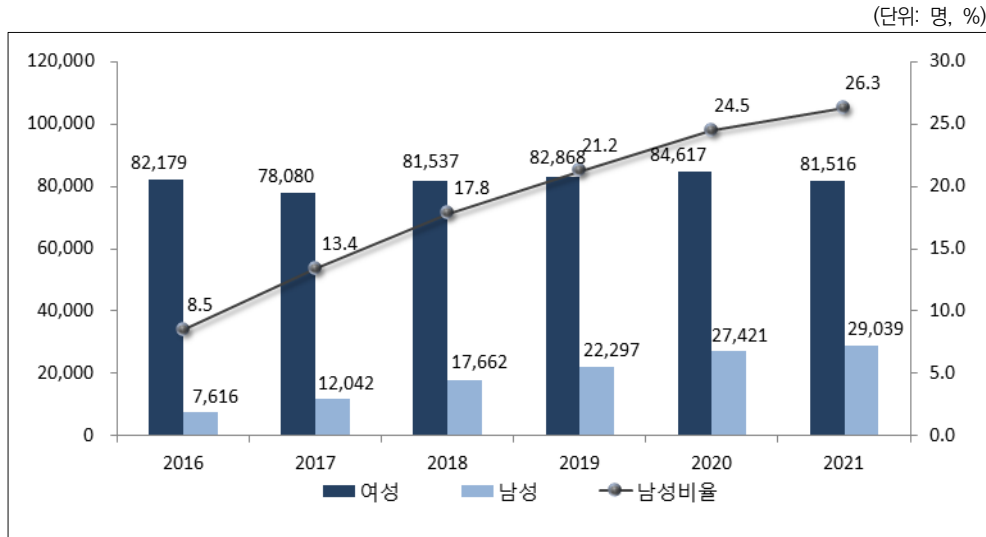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인구동향조사」.

[그림 III-33] 출산 순위별 출생성비 변화 추이

육아휴직자 지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아동돌봄의 분담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로 여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6년 82,179명을 기록한 이후 2017년 78,080명으로 감소 하지만 이후 증가하여 2020년 84,617명을 보인다. 그리고 2021년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 하여 81,516명이 육아휴직자로 나타난다.

반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6년 7,616명에서 매년 빠르게 증가하여 2017년에는 12,042명으로 1만명 대에 진입했다. 그리고 이후 그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져 2019년에는 22,297명으로 2만명을 넘어섰고, 2021년에는 29,039명이 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육아휴직자 중에서 남성 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크게 상승하고 있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016년 8.5%에서 2019년 21.2%로 20%를 넘어섰고, 2021년에는 26.3%로 급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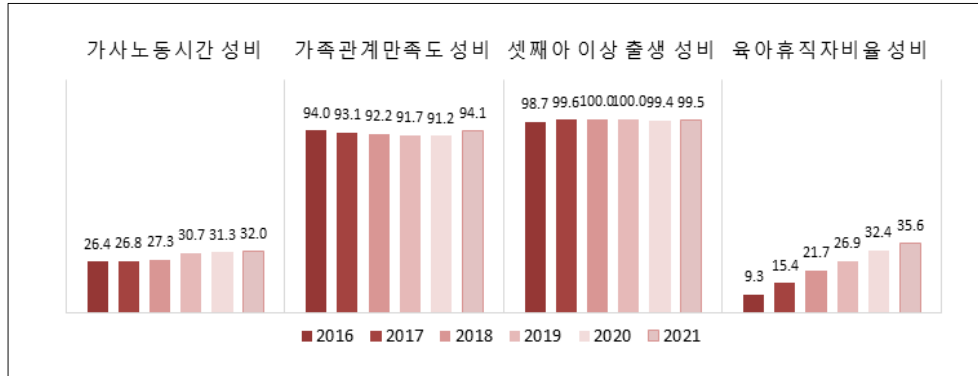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각 연도). 「고용보험통계」.

[그림 Ⅲ-34] 성별 육아휴직자 수 변화 추이

가족 분야의 지표별 성평등 수준은 육아휴직자 성비의 개선이 가장 뚜렷하며, 가사노동시간 성비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아 출생 성비의 경우 2019년까지 완전 평등에 도달하여 100점을 기록하였는데 2021년에는 99.5점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반면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2016년 이래 하락하는 추세에서 벗어나, 2021년 소폭 개선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지표의 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점수 상승 폭이 높은 지표는 육아휴직자 비율 성비로 2016년 9.3점에서 2021년 35.6점으로 동기간에 26.3점 상승했다. 가사노동 시간 성비는 2016년 26.4점에서 2021년 32.0점으로 동기간 5.6점 높아졌으며,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2016년 98.7점에서 2021년 99.5점으로 0.8점 상승하였다.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2016년 94.0점에서 2020년 91.2점으로 하락세를 멈추고 2021년 9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점수)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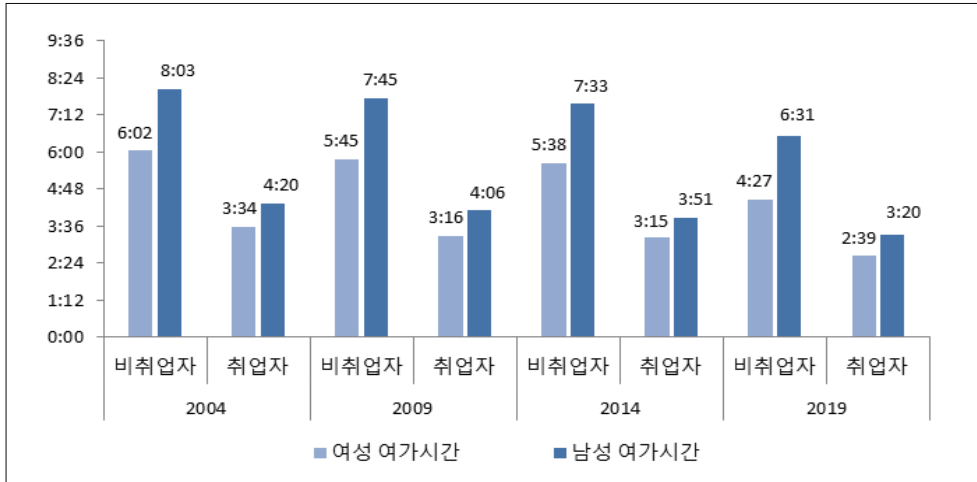
[그림 III-35] 가족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 2) 문화·정보 분야

문화·정보 분야는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성별 정보화 격차로 측정되며, 성평등 수준은 전체 8개 분야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6년 86.8점에서 2021년 84.5점으로 하락하였다.

지표별로 보면 여가시간은 가사노동 시간과 같이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높아 취업자와 비취업자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이 지표는 [그림 III-36]과 같이 남녀 모두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여성의 여가시간은 2014년 취업자 3시간 15분, 비취업자 5시간 38분에서 2019년 취업자 2시간 39분, 비취업자 4시간 27분으로 동기간 취업자는 36분, 비취업자는 1시간 11분 감소했다. 남성의 여가시간도 2014년에 비해 2019년 감소하였으며, 동기간 취업자는 31분, 비취업자는 1시간 2분 감소했다. 종합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여가시간이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기준 여가시간은 여성 취업자가 남성 취업자에 비해 41분 적었고, 여성 비취업자는 남성 비취업자보다 2시간 4분 더 적었다.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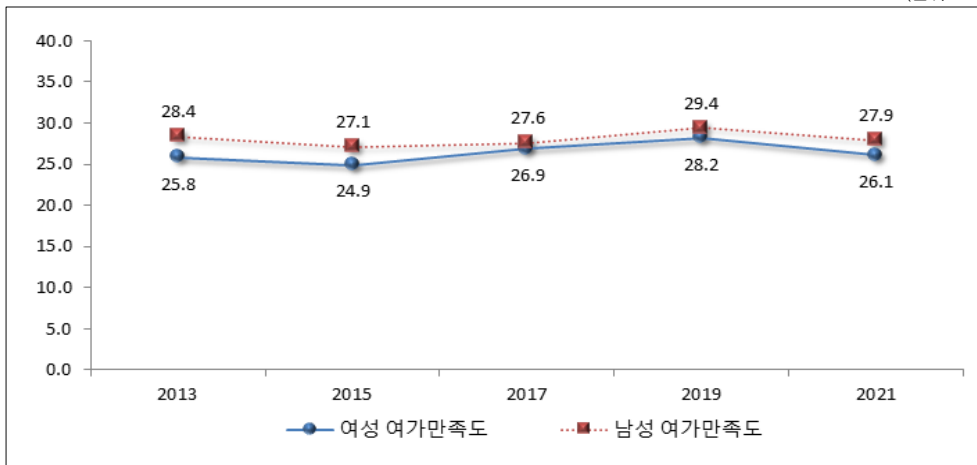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생활시간조사」.

[그림 III-36] 남녀 여가시간 및 여가시간 성비 변화 추이

여가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하는 비율이며, 여성의 여가만족도는 2015년 24.9%에서 2019년 28.2%로 상승하나, 2021년 26.1%로 하락한다. 남성의 여가만족도 역시 여성과 동일한 증감 현상을 보인다. 즉, 남성의 여가만족도는 2015년 27.1%에서 2019년 29.4%로 높아졌고, 2021년에는 27.9%를 하락한다. 여가만족도의 성별 격차는 2015년 2.2%p에서 2021년 1.8%p로 소폭 좁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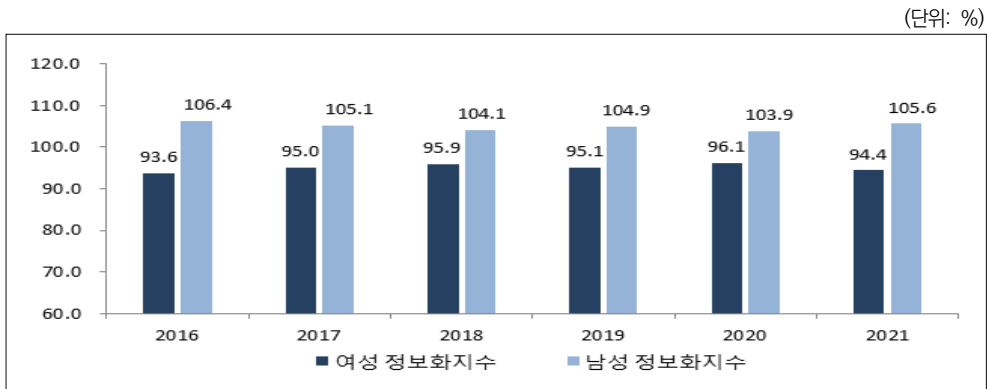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회조사」.

[그림 III-37] 성별 여가만족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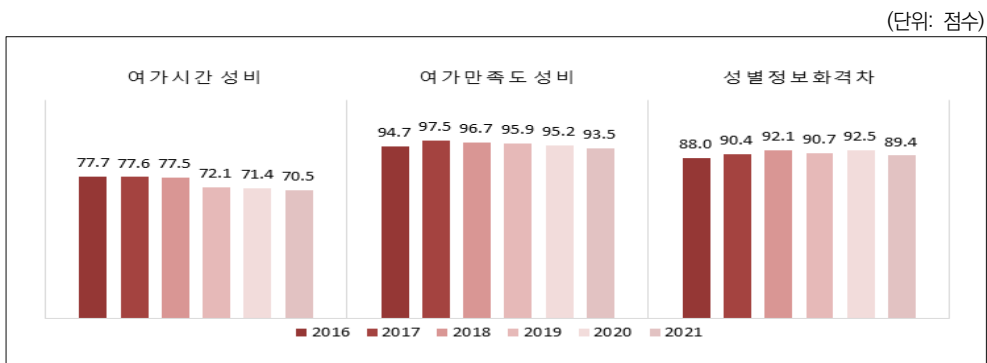
성별 정보화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정보화 수준은 2016년 106.4%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2021년 105.6%로 소폭 하락한다. 여성의 정보화 수준은 2016년 93.6%에서 2018년 95.9%로 상승하고 이후 등락하면서 2021년 94.4%를 보인다. 이에 따라 성별 격차는 2016년 12.8%p에서 2021년 11.2%p로 다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2012-2015). 「정보화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2016-2021)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그림 III-38] 성별 정보화 격차 변화 추이

문화·정보 분야 지표의 성평등 변화 추이를 보면, 여가시간 성비는 2016년 77.7점에서 지속해서 낮아져 2021년 70.5점이 되었다. 문화·정보 분야에서 다른 지표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는 여가만족도 성비는 2016년 94.7점에서 2017년 97.5점까지 상승하였지만 이후 하락하여 2021년 93.5점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성별 정보화 격차는 2016년 88.0점에서 2021년 89.4점으로 동기간 1.4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III-39] 문화·정보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이상에서 살펴본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2020년 대비 2021년 성평등지수 변화를 요약하면 아래 <표 Ⅲ-3>과 같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3개 분야 중에서 2020년 대비 지수 상승을 보면 가족 분야 1.7점 상승한 반면에, 문화·정보 분야 1.9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 분야는 육아휴직자 비율 성비가 2020년 32.4점에서 2021년 35.6점으로 3.2점 높아져, 가족 분야의 주된 상승원인이 되었고, 가족관계만족도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 가사노동시간 성비에서 각각 2.9점, 0.1점, 0.7점의 개선을 보였다. 문화·정보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성평등한 분야라고 할 수 있으나 2020년 대비 1.9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분야의 하락은 구성 지표 세 개가 모두 하락했기 때문이며, 특히 2020년 대비 성별정보화격차가 3.1점 감소하여 이 분야의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 성평등지수 변화

(단위: 점수, %)

분야별 지수 변화				지표 변화			
분야	2020	2021	격차	지표	2020	2021	격차
가족	63.6	65.3	1.7	가사노동시간 성비	31.3	32.0	0.7
				가족관계만족도 성비	91.2	94.1	2.9
				셋째아 이상 출생 성비	99.4	99.5	0.1
				육아휴직자 비율 성비	32.4	35.6	3.2
문화·정보	86.4	84.5	-1.9	여가시간 성비	71.4	70.5	-0.9
				여가만족도 성비	95.2	93.5	-1.7
				성별정보화격차	92.5	89.4	-3.1



## IV

# 국제성평등지수와 한국의 성평등 수준

- 1.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63
- 2. 유엔개발계획의 성개발지수와 성불평등 지수 76
- 3. 국제성평등지수 비교와 한국 성평등 수준 차이 95



## 1.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 가.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소개<sup>26)</sup>

#### 1)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이하 GGI) 특징

GGI는 2006년부터 세계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sup>27)</sup>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수로서 경제, 교육, 건강, 정치에 대한 성 격차를 통해 국가별 성평등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가장 최근 자료는 2022년에 발표되었다.

GGI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수준(level)’보다 ‘격차(gap)’에 초점을 둔다. 다시 말해, 한 국가의 실제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과 기회의 수준이 아니라, 자원과 기회에 대해 접근하는 성별 격차를 측정한다. 선진국들은 교육과 보건의 기회에 있어 사회 전체 구성원이 더 많은 접근 기회를 얻게 되지만, 이러한 사실이 성격차를 자동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GGI 지수는 자원의 접근에 있어 절대 수준보다 성별 차이를 주목한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가 작을수록 국가에 더 높은 성평등 점수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교육 성취도의 경우 성별 교육 수준이 아닌 남성 대비 여성의 비(ratio)를 기초로 산정한다.

둘째, ‘수단(means)’에 따른 차이보다 ‘성과(outcomes)’에 따른 차이를 평가하여 측정한다. GGI는 성과지표와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 즉 경제참여, 교육, 건강, 정치 권한 부여 등에서 여성과 남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보는 데 목적을 둔다. 단, 국가의 특정 정책, 문화 또는 관습 등 투입지표는 지수 산정에 활용하지 않고, 국가의 프로필 작성을 위한 보조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여성 권한(women’s empowerment)’보다 ‘성평등(gender equality)’에 더 중점을 두고 측정한다. GGI는 여성의 권한 부여 수준이 아닌 성평등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한다. GGI의 목적은 선택된 지표에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감소해 왔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그리고 GGI는 여성에 대한 성과와 남성에 대한 성과가 평등한 국가들에게 좋은 점수를 제공한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을 능가하는

26) 성격차지수(GGI : Gender Gap Index)의 구성과 소개는 거의 변화가 없어 주재선, 정성미, 한진영, 박송이(2019). 「2019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pp. 74-79, 김경희, 이민아, 이은아, 김은경(2020). 「2020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p. 84-94; 주재선, 김영란, 조선미, 송치선(2021). 「2021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p. 63-74의 원문을 대부분 발췌 및 인용하여 작성하였다.

27) 세계경제포럼(WEF)은 스위스에 있는 각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 최고 경영자 등이 모여 세계 경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비영리 국제기구임. 매년 글로벌 경쟁력보고서(GCR)와 성평등 보고서(GGGR)를 발표하고, 다보스 포럼을 개최한다.

경우에는 지표에 대한 페널티를 따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GGI는 선택된 지표에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감소할 경우 평등한 국가로 본다.

## 2) 지표의 구성과 선정 근거

GGI는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권한 부여’의 네 가지 영역에 총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은 남녀 간 빈곤의 불균형을 낮출 뿐 아니라, 가계 수입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여성의 경제적 개입의 질과 관련되어 의미를 갖는다. 경제활동 영역은 참여(participation), 급여(remuneration), 승진(advancement)의 관점에서 성별 격차를 파악하고 있으며 구성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 유사업무 임금성비, 추정 소득, 입법·고위직 및 관리직 비율, 전문·기술직 비율의 5개 지표이다. GGI의 두 번째 영역인 교육적 성취는 여성의 권한을 증진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구성 지표는 총 4개로 문해율과 초등, 중등, 고등교육 취학률에 대한 남성 대비 여성 비율이다. GGI의 세 번째 영역은 건강과 생존으로 출생 성비와 건강 기대수명 성비의 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역은 기본적으로 남녀가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면서도 근본적인 개인의 안전과 관련 있는 주제이다. GGI의 네 번째 영역인 정치 권한 부여 영역은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 여성의 대표성을 파악하는 영역으로 국회의원 비율, 장관 비율, (지난 50년 동안) 국가 수장 재직기간의 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표 IV-1〉 GGI의 구성 및 각 영역별 지표

영역	지표	내용 및 산정 방법
경제참여와 기회	경제활동참가율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남성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참가율: 15-64세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비율
	유사업무 임금성비	유사업무에서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수준 경영자 의견 조사 <sup>1)</sup> 를 통해 측정
	추정소득	여성 추정소득/남성 추정소득 국가별 GDP(PPP \$US)를 성별 경제활동인구 비율, 비농촌 임금 성비, 성별 인구의 결합으로 산정
	입법·고위직 및 관리직 비율	입법, 고위직 및 관리자 중 여성 비중/남성 비중
	전문·기술직 비율	전문 및 기술직 중 여성 비중/남성 비중
교육 성취도	문해율	여성 문해율/남성 문해율 * 문해율: 15세 이상 인구의 문자 해독률
	초등교육 취학률	여성 초등교육 취학률/남성 초등교육 취학률 <sup>2)</sup> * (6-11세 재적 학생수)/(6-11세 적령인구)×100
	중등교육 취학률	여성 중등교육 취학률/남성 중등교육 취학률 <sup>2)</sup> * (12-17세 재적 학생수)/(12-17세 적령인구)×100
	고등교육 취학률	여성 고등교육 취학률/남성 고등교육 취학률 <sup>2)</sup> * (대학교 재적 학생수)/(고졸 직후 연령 <sup>3)</sup> 부터 5세 연령구간 인구)×100
건강과 생존	출생 성비	여아 <sup>4)</sup> 출생수/남아 출생수
	건강기대수명	여성 건강 기대수명/남성 건강 기대수명
정치권한 부여	국회의원 비율	국회의원 여성 비중/국회의원 남성 비중
	장관 비율	장관 여성 비중/장관 남성 비중
	국가수장 재직기간	최근 50년 이내 총리 이상 여성 재직년수/남성 재직년수

주: 1) 경영자 의견조사의 질문은 “한국에서 유사 업무에 대한 여성들의 임금과 남성들의 임금은 동등합니까”이며, 답항은 7점 척도로 아주 낮다 1점, 남녀가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 7점으로 되어 있음  
 2) 초등, 중등 취학률은 순취학률(Net enrolment ratio)로 산정하며, 대학 취학률은 총취학률(Gross Enrolment Ratio)로 산정함  
 3) 고졸 직후 연령은 일반적으로 18세임  
 4) 여아를 기준으로 남아 출생비를 보는 일반적인 출생성비와 정의를 달리함

### 3) 지표별 자료원

성격차지수 산정에 활용되는 자료원은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 자료를, 교육 성취도 영역은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이하 UNESCO) 또는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이하 UNDP)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과 생존 영역의 지표들은 세계은행(World Bank)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 자료를, 정치 권한부여 영역은 국제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이하 IPU)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지수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국제기구가 공표하는 정량적 통계 수치를 사용하고, 각국 정부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표 IV-2〉 GGI의 지표구성과 자료원

하위지수	지 표	자 료 원
경제참여와 기회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노동기구(ILO), ILOSTAT, 2019 Modelled Estimates
	유사업무 임금 수준	세계경제포럼(WEF), 기업임원의견조사(Executive Opinion Survey), 2019-2020 또는 가장 최근 자료
	추정소득	국제노동기구(ILO), ILOSTAT
	입법·고위직 및 관리직 비율	국제노동기구(ILO), ILOSTAT
	전문·기술직 비율	국제노동기구(ILO), ILOSTAT
교육성취도	문해율	유네스코(UNESCO), UIS Education Statistics Data portal. 2018 또는 최근; 없는 경우는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Human Development Reports 2020에서 2008년과 2018년 사이 가장 최근 가능한 자료
	초등교육 취학률	국제의회연맹(IPU), UIS Education Statistics Data portal, 2018 또는 최근 자료
	중등교육 취학률	국제의회연맹(IPU), UIS Education Statistics Data portal, 2018 또는 최근 자료
	고등교육 취학률	국제의회연맹(IPU), UIS Education Statistics Data portal, 2018 또는 최근 자료
건강과 생존	출생 성비	세계은행(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건강 기대 수명	세계보건기구(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base, 2019년 혹은 가장 최근 자료
정치권한 부여	국회의원 비율	국제의회연맹(IPU)
	장관 비율	국제의회연맹(IPU)
	(지난 50년 동안) 국가수장 재직기간	세계경제포럼(WEF) 산정 자료

자료: WEF(2022),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22」, pp. 57-59

#### 4) 측정방법

GGI는 수준보다는 격차, 정책보다는 성과, 여성권한보다는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이 지수는 절대적인 기준에 비해 성과를 수량화하는 지수로(Grieg et al., 2006), 성평등과 관련된 주요 영역과 지표를 담고 있다. 초기 GGI 지수는 정량(hard data)적인 지표와 함께 104개 국가의 9,000명의 기업총수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세계경제포럼의 기업임원 의견조사(Executive Opinion Survey)를 통한 질적(soft data)인 척도도 함께 사용했으나, 최근 산정에 활용되는 지표는 자료입수의 한계와 조사의 주관적 요소 때문에 정량적인 지표만을 사용하고 있다. GGI지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단계의 과정을 통해 산정된다(WEF, 2019).

- 1단계 : 모든 자료는 남성 대비 여성 비(성비)로 변환한다. 예를 들어, 여성의원의 비율이 20%인 국가의 경우 남성 대 여성 비가 80대 20으로 성비는 0.25가 된다. 이 과정은 여성과 남성의 성취 그 자체가 아닌 여성과 남성의 격차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 2단계 : 성비는 평등기준점 1에서 절삭한다. 이는 여성과 남성이 완전 평등할 때 1값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단, 출생성비는 0.944, 기대수명은 1.06이 평등 기준점으로 활용된다.
- 3단계 : 지표별 표준편차의 변화(1%p 변화)를 이용해 가중치를 부여한다(〈표 IV-3〉 참조).
- 4단계 : 각 영역별 평균값을 단순 평균해 지수를 산정한다. 하위 지표와 마찬가지로 최종 지수는 0과 1 사이의 범위를 갖게 된다. 이를 통해 국가 간 상대적 순위를 파악함으로써 국가 비교가 가능해진다.

#### \* 산정된 지수 해석 시 유의사항

모든 차원에서 가장 높은 점수는 1(완전 평등)이고 가장 낮은 점수는 0(완전 불평등)이다. 모든 점수는 평등과 불평등, 0과 1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표별 가중치는 전체 GGI 점수 산정에 활용되지 않으며, 각 지표의 점수 산정에만 활용된다. 또한 GGI 점수는 비율 값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계산된 점수를 해석하는 데 있어 엄격한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 점수는 단지, 한 나라의 성격차가 얼마나 증감했는지에 대한 지표로만 의미를 두어야 한다.

〈표 IV-3〉 GGI 지수 산출을 위한 가중치

영역	지표	단위	가중치	
			지표별	전체
경제참여와 기회	경제활동참가율	비율 (ratio)	0.199	$(0.199+0.310+0.221+0.149+0.121) \times (1/4)$
	유사업무 임금 수준		0.310	
	추정소득		0.221	
	입법·고위직 및 관리직 비율		0.149	
	전문·기술직 비율		0.121	
교육 성취도	문해율	0.191	$(0.191+0.459+0.230+0.121) \times (1/4)$	
	초등교육 취학률	0.459		
	중등교육 취학률	0.230		
	고등교육 취학률	0.121		
건강과 생존	출생 성비	0.693	$(0.307+0.693) \times (1/4)$	
	건강 기대 수명	0.307		
정치권한부여	국회의원 비율	0.310	$(0.310+0.247+0.443) \times (1/4)$	
	장관 비율	0.247		
	(지난 50년 동안) 국가수장 재직기간	0.443		

주: 하위영역가중치는 지표값 표준편차의 역수임

## 5) 발표 및 재산정 일정

성격차지수는 매년 10월경 WEF의 홈페이지를 통해 ‘성 격차 보고서’를 발표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발표연도에 따라 발표 시점이 다소 변경되고 있고, 2022년 보고서는 2022년 7월에 발표되었다.

## 나. GG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sup>28)</sup>

### 1) 한국의 GGI 수준

2022년 발표된 GGI 순위는 전체 146개국 중 99위로 2021년도 102위에 대비해 3계단 상승하였다. 2022년도의 점수는 0.689점으로 2021년의 0.687점에 비해 0.002점

28) WEF(2022).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22」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작성함

상승하였다. GGI는 점수가 1이면 완전평등상태이고 0이면 완전불평등상태로 점수가 상승하였다는 것은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위가 상승한 주된 이유는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에서 점수가 향상됐기 때문이다. 반면, 정치적 권한 분야는 2021년보다 2022년에 점수가 하락하였다.

2022년 지표별 현황을 살펴보면, 출생성비는 0.944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문해율 역시 1점으로 완전 평등한 상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법·고위직 및 관리직 비율(0.194점, 125위), 추정소득(0.493점, 120위), 고등교육 취학률(0.817점, 113위), 국회의원 비율(0.229점, 104위) 등은 100위권 아래로 성격차 순위가 매우 낮아 해당 지표의 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분야별로 보면 2022년은 건강과 생존 분야가 52위로 전체 분야 중 가장 높았다. 정치적 권한 분야는 72위로 2021년에 비해 점수가 0.002점이 하락하면서 순위 또한 4개 순위가 하락하였다. 교육적 성취 분야는 97위로 2021년에 비해 0.003점 상승하였고 순위는 7단계 상승하였다. 경제참여 및 기회 분야는 115위로 2021년에 비해 점수는 0.006점 상승하였고 순위는 8단계 상승하였다.

지난 15년간의 추이를 보면 점수는 2006년의 0.616점에 비해 2022년은 0.689점으로 0.073점이 증가하였다. 영역별로 보면 건강과 생존 분야는 2007년에 비해 54단계, 정치적 권한 분야는 23단계 상승하였고, 경제참여와 기회는 25단계, 교육적 성취는 3단계 하락하였다. 특히 경제참여와 기회 분야는 2006년 96위에서 115위로 하락하여,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낮은 순위에 머물고 있으나, 2021년도 대비 8단계 상승하였다. 점수를 보면 정치적 권한 점수가 2006년 대비 2022년 0.145점 상승하여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경제참여와 기회 0.111점, 교육적 성취 분야는 0.028점, 건강과 생존 분야는 0.009점 상승하였다.

〈표 IV-4〉 한국의 GGI 수준 추이

(단위: 점수, 순위)

발표년도	순 위	점 수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2022	99/146	0.689	0.592(115위)	0.976(97위)	0.976(52위)	0.212(72위)
2021	102/156	0.687	0.586(123위)	0.973(104위)	0.976(54위)	0.214(68위)
2020	108/153	0.672	0.555(127위)	0.973(101위)	0.980(1위)	0.179(79위)
2018	115/149	0.657	0.549(124위)	0.973(100위)	0.973(87위)	0.134(92위)
2017	118/144	0.650	0.533(121위)	0.960(105위)	0.973(84위)	0.127(90위)
2016	116/144	0.649	0.537(123위)	0.964(102위)	0.973(76위)	0.120(92위)
2015	115/145	0.651	0.557(125위)	0.965(102위)	0.973(79위)	0.107(101위)
2014	117/142	0.640	0.512(124위)	0.965(103위)	0.973(74위)	0.112(93위)
2013	111/136	0.635	0.504(118위)	0.959(100위)	0.973(75위)	0.105(86위)
2012	108/135	0.636	0.509(116위)	0.959(99위)	0.973(78위)	0.102(86위)
2011	107/135	0.628	0.493(117위)	0.948(97위)	0.974(78위)	0.097(90위)
2010	104/134	0.634	0.520(111위)	0.947(100위)	0.973(79위)	0.097(86위)
2009	115/134	0.615	0.520(113위)	0.894(109위)	0.973(80위)	0.071(104위)
2008	108/130	0.615	0.487(110위)	0.937(99위)	0.967(107위)	0.071(102위)
2007	97/128	0.641	0.580(90위)	0.949(94위)	0.967(106위)	0.067(95위)
2006	92/115	0.616	0.481(96위)	0.948(82위)	0.967(94위)	0.067(84위)
2006-2022 점수 변화		△0.073	△0.111	△0.028	△0.009	△0.145

각 분야별로 GGI 수준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참여와 기회 분야의 구성 지표를 살펴보면, 전문·기술직 비율에서 2021년 80위 0.968점에서 2022년 68위 0.998점으로 0.03점으로 가장 높은 상승이 나타났다. 또한 유사업무 임금성비 역시 2021년 116위 0.574점에서 2022년 98위 0.603점으로 0.029점 상승하였다. 그 외에 입법·고위직 및 관리직 비율에서 2021년 134위 0.185점에서 2022년 125위 0.194점으로 0.009점 상승하였고, 추정소득(US \$)에서는 2021년 119위 0.492점에서 2022년 120위 0.493점으로 점수는 0.001점 상승하나 순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활동참가율 경우 2022년 전년 대비 0.037점 성평등 점수가

하락하나, 순위는 두 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참여와 기회 분야의 경우 2020년 이래 성평등 점수와 순위가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인다. 지표별로 보면, 유사 업무 임금성비, 입법·고위직 및 관리직 비율, 전문·기술직 비율에서 점수와 순위가 모두 상승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순위는 꾸준히 상승하나 코로나 환경에서 경제활동참가율 성평등 점수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추정소득은 점수는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나 순위는 120위 전후에서 큰 변화가 없다.

〈표 IV-5〉 경제참여와 기회 분야의 GGI 수준 추이

지표(F/M)	2022년		2021년		2020년		2018년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경제참여와 기회 분야 전체	115	0.592	123	0.586	127	0.555	124	0.549
경제활동참가율	90	0.737	92	0.774	92	0.756	88	0.750
유사업무 임금성비	98	0.603	116	0.574	119	0.551	121	0.532
추정소득(US \$)	120	0.493	119	0.492	121	0.476	121	0.457
입법·고위직 및 관리직 비율	125	0.194	134	0.185	142	0.108	133	0.141
전문·기술직 비율	68	0.998	80	0.968	88	0.927	86	0.927

주: 발표연도 기준

교육적 성취 분야를 구성 지표별로 보면, 초등 취학률(net)이 2022년 70위 1.000점으로 2021년 85위 0.998점보다 15단계, 0.002점 상승하였고, 고등교육 취학률(gross)도 2022년 113위 0.817점으로 2021년 121위 0.791점보다 8단계, 0.026점 상승하였다. 중등 취학률(net)은 2022년 82위 0.994점, 2021년 108위 0.996점으로 0.002점 하락하였으나 전년대비 순위는 26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해율은 2022년과 2021년 모두 변함없이 1위 1점으로 나타났다. 교육적 성취의 모든 지표가 전년보다 순위가 상승하여 성평등 격차가 조금씩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6〉 교육적 성취 분야의 GGI 수준 추이

지표(F/M)	2022년		2021년		2020년		2018년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교육적 성취 분야 전체	97	0.976	104	0.973	101	0.973	100	0.973
문해율	1	1.000	1	1.000	1	1.000	-	-
초등교육 취학률(net)	70	1.000	85	0.998	84	0.998	1	1.000
중등교육 취학률(net)	82	0.994	108	0.996	107	0.996	1	1.000
고등교육 취학률(gross)	113	0.817	121	0.791	120	0.791	113	0.780

주: 발표연도 기준

건강과 생존 분야는 건강기대수명에서 하락이 있었는데, 2021년 62위 1.048점에서 2022년 57위 1.047점으로 0.001점 소폭 하락하였다. 출생성비는 2021년과 2022년 모두 1위 0.944점으로 변동 없었다. 지난 4년간 추이를 보면, 출생성비는 2018년 137위에서 2022년 1위로 급격한 순위 상승이 확인되었다. 반면 건강기대수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위를 유지하다가 2021년부터 62위로 순위 하락이 나타났다.

〈표 IV-7〉 건강과 생존 분야의 GGI 수준 추이

지표(F/M)	2022년		2021년		2020년		2018년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건강과 생존 분야 전체	52	0.976	54	0.976	1	0.980	87	0.973
출생 성비	1	0.944	1	0.944	1	0.944	137	0.935
건강기대수명	57	1.047	62	1.048	1	1.060	1	1.060

주: 발표연도 기준

정치적 권한 분야를 구성 지표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분야별 전년대비 순위는 소폭 상승하였고 점수는 국회의원 비율을 제외한 분야에서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비율로 2021년 107위 0.235점에서 2022년 104위 0.229점으로 0.006점 하락하였고, 장관비율과 지난 50년 동안 국가 수장(총리 이상)의 재직기간은 2022년 전년대비 점수는 동일하나 순위는 2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8년 발표 이래 장관 비율은 순위의 상승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국회위원 비율 또한, 순위가 점차 상승

하고 있다. 반면 국가수장의 재직기간은 점수 하락과 더불어 순위가 소폭 하락였다.

〈표 IV-8〉 정치적 권한 분야의 GGI 수준 추이

지표(F/M)	2022년		2021년		2020년		2018년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정치적 권한 분야 전체	72	0.212	68	0.214	79	0.179	92	0.134
국회의원 비율	104	0.229	107	0.235	108	0.200	102	0.205
장관 비율	58	0.385	60	0.385	73	0.285	119	0.100
지난 50년 동안 국가 수장 (총리 이상)의 재직기간	31	0.104	33	0.104	29	0.104	28	0.189

주: 발표연도 기준

## 2) 주요 국가의 GGI 수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회원국의 2022년 GGI 수준을 보면 전체 38개 국가 중 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가 1위부터 4위까지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99위로 이는 38개 국가 중 35번째이다. 터키가 38위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고, 바로 위 37위가 일본이다.

종합 성격차지수 점수는 1위인 아이슬란드가 0.908점으로 한국의 0.689점에 비해 0.219점이 높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참여와 기회 분야에서는 스웨덴이 0.812점을 기록해 전체 5위이고 OECD 국가 중 1위이다. 이어서 146개국 중 라트비아가 9위, 아이슬란드 11위, 슬로베니아가 12위이다. 한국의 점수는 115위 0.592점으로 OECD 국가 중 1위인 스웨덴과 0.22점의 차이를 보인다.

교육적 성취 분야에서는 38개국 중 핀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아일랜드,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콜롬비아, 체코, 일본이 완전 평등상태인 1.000점을 기록하여 한국의 0.976보다 0.024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과 생존 분야는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가 0.980점으로 동일하게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국은 52위 0.976점으로 1위 국가와 0.004점 차이가 있었다.

정치적 권한 분야는 아이슬란드가 1위로서 점수는 0.874점이며, 한국은 0.212점으로 무려 0.662점이 낮아 이 분야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9〉 OECD국가 중 GGI 1위 국가와 한국간의 점수격차(2022년)

구분	종합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영향력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1위 국가	1	0.908	11	0.803	68	0.993	121	0.964	1	0.874
대한민국	99	0.689	115	0.592	97	0.976	52	0.976	72	0.212
점수 격차	-	▽0.219	-	▽0.211	-	▽0.017	-	△0.012	-	▽0.662

주: 발표연도 기준

〈표 IV-10〉 OECD 회원국의 GGI 현황(2022년)

국가명	종합 순위	종합 점수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한국	99	0.689	115	0.592	97	0.976	52	0.976	72	0.212
아이슬란드	1	0.908	11	0.803	68	0.993	121	0.964	1	0.874
핀란드	2	0.860	18	0.789	1	1.000	78	0.970	2	0.682
노르웨이	3	0.845	27	0.765	79	0.989	119	0.964	3	0.662
뉴질랜드	4	0.841	39	0.738	1	1.000	100	0.966	4	0.660
스웨덴	5	0.822	5	0.812	1	1.000	124	0.963	10	0.515
아일랜드	9	0.804	35	0.746	1	1.000	113	0.964	11	0.507
독일	10	0.801	75	0.695	81	0.988	70	0.972	8	0.550
리투아니아	11	0.799	21	0.781	85	0.986	1	0.980	22	0.450
코스타리카	12	0.796	94	0.645	31	0.999	64	0.973	6	0.565
스위스	13	0.795	47	0.729	82	0.988	117	0.964	13	0.499
벨기에	14	0.793	52	0.723	1	1.000	91	0.968	18	0.480
프랑스	15	0.791	40	0.737	1	1.000	81	0.970	20	0.457
스페인	17	0.788	64	0.709	36	0.998	107	0.965	17	0.481
오스트리아	21	0.781	81	0.673	61	0.994	82	0.970	16	0.487
영국	22	0.780	44	0.733	33	0.999	105	0.965	24	0.423
캐나다	25	0.772	43	0.736	1	1.000	94	0.968	31	0.386
라트비아	26	0.771	9	0.803	25	1.000	34	0.979	45	0.301
미국	27	0.769	22	0.778	51	0.996	83	0.970	38	0.332
네덜란드	28	0.767	79	0.675	1	1.000	127	0.962	23	0.432

IV. 국제성평등지수와 한국의 성평등 수준 75

국가명	종합 순위	종합 점수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포르투갈	29	0.766	41	0.737	75	0.990	67	0.973	33	0.364
멕시코	31	0.764	113	0.597	60	0.994	54	0.975	15	0.490
덴마크	32	0.764	54	0.722	40	0.998	114	0.964	32	0.370
슬로베니아	39	0.744	12	0.802	26	1.000	48	0.977	79	0.197
호주	43	0.738	38	0.741	87	0.985	90	0.968	50	0.258
룩셈부르크	46	0.736	51	0.724	32	0.999	110	0.965	51	0.258
칠레	47	0.736	105	0.616	62	0.994	76	0.970	34	0.363
에스토니아	52	0.733	34	0.747	1	1.000	47	0.977	73	0.210
이스라엘	60	0.727	69	0.701	1	1.000	111	0.964	61	0.241
이탈리아	63	0.720	110	0.603	59	0.995	108	0.965	40	0.319
슬로바키아	67	0.717	70	0.699	24	1.000	1	0.980	83	0.189
콜롬비아	75	0.710	93	0.649	1	1.000	56	0.975	70	0.215
체코	76	0.710	95	0.645	1	1.000	41	0.978	67	0.216
폴란드	77	0.709	74	0.695	70	0.992	1	0.980	87	0.171
헝가리	88	0.699	67	0.703	42	0.998	1	0.980	117	0.114
그리스	100	0.689	83	0.672	84	0.986	98	0.966	108	0.130
일본	116	0.650	121	0.564	1	1.000	63	0.973	139	0.061
터키	124	0.639	134	0.493	101	0.973	99	0.966	112	0.123

주: 발표연도 기준

## 2. 유엔개발계획의 성개발지수와 성불평등 지수

### 가. 남녀개발지수의 소개

#### 1) GDI의 의미와 특징<sup>29)</sup>

유엔개발계획(이하 UNDP)은 2014년부터 새롭게 개선한 성개발지수(Gender Development Index, 이하 GDI)를 발표하였다. GDI는 1995년 제4차 여성대회에서 처음 발표한 이래로 2009년까지 약 10여년간 매년 발표되었으나, 여러 한계로 인해 2009년에 폐기되었다. 현재 GDI는 2014년에 개편된 것이다. 기존의 GDI가 HDI(Human Development Index)를 기준으로 성별 격차를 고려할 경우 HDI가 얼마나 바뀌게 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개선된 GDI는 여성과 남성의 HDI를 개별로 계산함으로써 여성집단과 남성집단의 HDI를 각각 산출하였다. 그 결과 남녀 간의 HDI 수치의 절대 격차에 기초하여 순위를 매기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별, 지역별, 연도별 남녀 HDI의 절대수치의 비교가 가능하게 되었다<sup>30)</sup>.

〈표 IV-11〉 기존 GDI와 새로운 GDI 비교

지수명	기존 GDI	새로운 GDI
영문명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ender Development Index
우리나라 순위	2009년 <sup>1)</sup> 155개국 중 25위	2021/2022년 <sup>1)</sup> 191개국 중 106위 <sup>2)</sup>
발표기간	1995년-2009년	2014년-현재
지수 구성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생시 기대여명</li> <li>• 성인 문해율(15세 이상 인구)</li> <li>• 초중고 취학률</li> <li>• 1인당 추정소득(GD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생시 기대여명</li> <li>• 평균 교육년수(25세 이상 인구)</li> <li>• 기대 교육년수</li> <li>• 1인당 추정소득(GNI)</li> </ul>
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표별 성불평등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li> <li>• 국가별 수준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HDI를 산정 후 성비를 산출하는 방식</li> <li>• 국가별 수준 미반영, 성별격차만 반영</li> </ul>

주: 1) 발표연도 기준

2) 191개국 중 GDI 점수가 산출되지 않은 국가(19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순위임

29) GDI 지표 구성과 소개는 거의 변화가 없어 주재선, 정성미, 한진영, 박송이(2019). 「2019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pp. 86-89; 김경희, 이민아, 이은아, 김은경(2020), 「2020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p. 63-74; 주재선, 김영란, 조선미, 송치선(2021). 「2021년 국가성평등 보고서」, pp. 75-83의 원문을 대부분 발췌 및 인용하여 작성하였다.

30) 자료: Frequently Asked Questions- GDI, UNDP HDR 웹 페이지 <http://hdr.undp.org>

새로 발표된 GDI는 인간개발의 기본적인 세 가지 차원인 건강, 교육, 경제(적절한 표준 삶)에서의 성취 수준에 대한 성별 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UNDP, 2014: 7). 이에 따라 GDI는 해당 국가의 HDI 수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었던 과거의 집계방식에서 벗어나, HDI의 성별 차이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즉, 성별에 따른 HDI를 산정한 후 성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측정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의 HDI에서 국가의 발전 수준이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배제하고, 남녀 간의 격차만이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을 의미한다.

### 2) 지표의 구성

GDI는 3개 영역의 총 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영역으로는 평균수명, 교육영역으로는 2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년수와 기대 교육년수, 경제영역으로는 국민총생산(GNI)을 기준으로 한 1인당 추정소득이다.

출생시 기대여명은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를 말한다. 기대 교육년수는 연령별 취학을 패턴이 지속된다면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교육년수이다. 1인 당 GNI(추정소득)는 1인당 국민소득을 미국 달러 기준의 구매력 평가 환율로 변경한 것으로 성별 인구 비중, 경제활동인구 비중, 임금 격차의 세 변수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표 IV-12〉 GDI 영역과 지표

영역	2009년 GDI 지표 구성	2014년 이후 GDI 지표 구성
건 강	•출생 시 기대여명	•출생 시 기대여명
교 육	•성인 문해율 •총 취학률	•2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년수 •기대 교육년수
경 제	•1인당 GDP(PPP\$)	•1인당 GNI(PPP\$)

### 3) 지표별 자료원

지수산정에 활용된 자료원을 보면 출생시 기대여명은 유엔경제사회국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기대 교육년수는 UNESCO 통계연구소(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 CEDLAS와 세계은행, ICF Macro, UNICEF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평균 교육년수는 UNESCO 통계연구소 자료 및 Barro와 Lee의 방법론에 의해 산출된 자료와 함께,

OECD, ICF Macro, UNICEF 통계 자료가 사용되었다. 추정소득은 ILO, IMF, 세계은행, UN 통계위원회, UN 경제사회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유엔개발보고서 담당자들이 산출하고 있다(UNDP, 2022: 6).

〈표 IV-13〉 GDI 지표별 자료원(2022년)

지표	자료원
출생시 기대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DESA(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22 Revision.</li> </ul>
기대 교육년수 (학령기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EDLAS and World Bank(2022). Socio-Economic Database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li> <li>• ICF Macro(various years).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li> <li>•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2022). UIS Developer Portal, Bulk Data Download Service,</li> <li>• UNICEF(various years).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li> </ul>
평균 교육년수 (25세 이상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rro and Lee(2018). Dataset of Educational Attainment.</li> <li>• ICF Macro(Various years).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li> <li>• OECD(2022). OECD.Stat.</li> <li>•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2022). UIS Developer Portal, Bulk Data Download Service.</li> <li>• UNICEF(various years).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li> </ul>
추정소득 (PPP\$)	<p>UNDP-HDRO(Human Development Report Office)가 하단 자료로부터 남녀 경제 활동인구 비율 및 남녀 임금 비율(전 부문, 2017년 GNI 기준, PPP\$), 남녀 인구비율을 환산하여 계산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LO(2022). ILOSTAT database.</li> <li>• IMF(2022).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li> <li>• UNDESA(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22 Revision.</li> <li>•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2022). National Accounts Main Aggregate Database.</li> <li>• World Bank(2022).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li> </ul>

자료: UNDP(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 - Technical notes. p6  
[https://hdr.undp.org/sites/default/files/2021-22\\_HDR/hdr2021-22\\_technical\\_notes.pdf](https://hdr.undp.org/sites/default/files/2021-22_HDR/hdr2021-22_technical_notes.pdf)  
 (2022년 12월 17일 접속)

4) 측정방법

GDI는 네 단계의 순서를 거쳐 계산된다(UNDP, 2020).

첫째 단계는 남녀별 소득의 추정이다. 이를 위한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S_f = \frac{W_f / W_m \cdot EA_f}{W_f / W_m \cdot EA_f + EA_m}$$

$S_f$  : 여성의 임금비율

$W_f / W_m$  : 남성대비 여성임금비

$EA_f$  : 경제활동참가인구 중 여성비중

여성 1인당 소득추정은 국민총생산에 여성 임금비율과 여성인구 비중을 곱하여 구한다.

$$GNI_{pcf} = GNI_{pc} \cdot S_f / P_f$$

$P_f$  : 여성인구 비중

남성 1인당 소득추정 역시 국민총생산에 남성 임금비율과 남성인구 비중을 곱하여 구한다.

$$GNI_{pcm} = GNI_{pc} \cdot S_m / P_m$$

$P_m$  : 남성인구 비중

둘째 단계는 지표들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모든 지표들을 0에서 1까지의 척도로 전환한다.

〈표 IV-14〉 GDI의 최대·최소값 설정

지표	최소값	최대값
기대 교육년수	0	18
평균 교육년수	0	18
추정소득	100	75,000
기대여명		
여자	22.5	87.5
남자	17.5	82.5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용하여, 지표의 표준화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text{지표의 표준화} = \frac{(\text{실제값} - \text{최소값})}{(\text{최대값} - \text{최소값})}$$

두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 분야는 각 지표의 지숫값을 구하여 산술 평균값을 취한다.

셋째 단계는 여성 HDI값과 남성 HDI값을 산출하는 것이다.

여성 HDI와 남성 HDI는 세 분야 지수들의 기하평균값을 취한다.

$$HDI_f = (I_{Healthf} \cdot I_{Educationf} \cdot I_{\in come f})^{1/3}$$

$$HDI_m = (I_{Healthm} \cdot I_{Educationm} \cdot I_{\in come m})^{1/3}$$

넷째 단계는 GDI를 계산하는 것이다.

$$GDI = \frac{HDI_f}{HDI_m}$$

## 나. GD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 1) 한국의 GDI 수준<sup>31)</sup>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는 각 국가의 GDI 점수를 발표하되, 순위를 매기지 않고, 대신 5그룹으로 나누어 각 국가들이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를 집계하고 있다. 이 분류에 따르면, 1그룹은 GDI 점수가 0.975 이상인 국가이다. 다시 말해 남성과의 격차가  $\pm 2.5\%$  이하인 국가를 1그룹(0.975~1.000 또는 1.000~1.025)으로 상정하였다. 2그룹은 격차가  $\pm 5\%$  이하(0.950~0.975 또는 1.025~1.050), 3그룹은  $\pm 7.5\%$  이하(0.925~0.950 또는 1.050~1.075), 4그룹은  $\pm 10\%$  이하(0.900~0.925 또는 1.075~1.100), 5그룹은  $\pm 10\%$ 를 초과(0.900 미만 또는 1.100 초과)인 국가로 범주화하였다.<sup>32)</sup> 국가별 순위 대신 수준을 범주화한 이유는 이 GDI 지표의 개발 의도가 국가별 비교보다는

31) UNDP(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작성함

32) GDI는 남녀 개발의 절대적 수준보다는 여성과 남성의 얼마나 동등한지의 상대적 격차를 중심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GDI가 1에 가까울수록 성평등 수준이 높다. 따라서 GDI 점수의 절대값과 그룹 등급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상황 역시 성평등이 낮은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높은 GDI 점수가 곧 높은 성평등 수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즉, GDI는 GDI 점수와 그룹 등급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해석이 필요하다.

남녀 개발지수의 격차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를 감소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기준에 따라 2022년 발표된 한국의 GDI 수준은 0.944점으로 성격차 수준 5그룹 중 3그룹에 속해 있고, 그룹 등급(남녀간 격차가 높은 순위)과 관계 없이 GDI 점수 순위(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순위)로 산정한다면 OECD 38개 국가 중 37번째 순위로 매우 낮다. 순위가 낮은 가장 큰 원인은 남녀 소득수준 격차가 큰 이유가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추정소득이 여성은 \$29,300, 남성은 \$59,737이다.

총점수를 보면 여성 HDI가 0.894, 남성 HDI가 0.947로 집계되고 있어 기준연도 2015년에 비해 2022년 여성은 0.033점 증가했으며 남성은 0.021점 증가했다.

〈표 IV-15〉 한국의 GDI 수준

발표 연도	순위/대상	GDI	인간개발지수 (HDI)		출생시 기대여명(년) <sup>1)</sup>		평균 교육년수(년) <sup>2)</sup>		기대 교육년수(년) <sup>3)</sup>		추정소득 (2011 PPP\$) <sup>4)</sup>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22	3그룹 (106/191)	0.944	0.894	0.947	86.8	80.4	16.1	16.9	11.9	13.2	29,300	59,737
2020	3그룹 (111/189)	0.936	0.881	0.941	86.0	79.9	11.4	12.9	15.9	17.0	27,734	58,309
2018	3그룹 (109/189)	0.934	0.870	0.932	85.8	79.7	11.5	12.9	15.8	16.9	23,228	50,241
2017	3그룹 (108/189)	0.932	0.866	0.929	85.3	79.2	15.9	17.1	11.4	12.9	22,572	49,297
2016	3그룹 (104/188)	0.929	0.863	0.929	85.2	78.8	11.5	12.9	15.8	17.3	21,308	47,934
2015	3그룹 (104/161)	0.930	0.861	0.926	85.0	78.5	11.2	12.7	16.0	17.7	21,896	46,018
2015-2022 (통계발표기준) 점수 변화	-	△ 0.014	△ 0.033	△ 0.021	△1.8	△1.9	△4.9	△4.2	▽4.1	▽4.5	△7,404	△ 13,719

주: 1) 출생시 기대여명 : 0세의 평균 기대수명  
 2) 평균 교육년수 : 2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년수  
 3) 기대 교육년수 : 학령기 아동이 기대하는 평균 기대 교육년수  
 4) 1인당 GNI : 1인당 국민소득을 미국 달러 기준의 구매력평가 환율로 변경한 소득

기존 GDI의 한국 수준을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2009년의 경우 155개 국가 중 25위로 HDI 순위인 26위보다 한 계단 높다. 이와 같이 GDI의 한국 수준이

높은 이유는 첫째, 교육수준 지표에서 사용한 문맹률의 남녀차이가 없었기 때문이고, 둘째, HDI 수준을 기준으로 남녀차이를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 개선된 GDI는 해당 국가의 절대적인 HDI 수준에 무관하게 남녀차이만을 순수하게 보여주려 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표 IV-16〉 기존 GDI의 한국 수준

연도	대상 국가	순위	평균 수명(년)		성인 문해율(%)		초중고 취학률(%)		추정소득 (PPP\$)		HDI 순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00	143	30	76.2	69.0	95.9	99.0	84.0	94.0	8,342	18,529	31
2005	144	27	80.6	73.3	99.0	99.0	87.0	100.0	11,698	24,167	28
2009	155	25	82.4	75.8	99.0	99.0	90.6	105.8	16,931	32,668	26

## 2) 주요 국가의 GDI 수준

2014년에 개편된 GDI는 이전의 GDI와 달리 해당 국가의 경제적 수준과 비례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즉 이전의 GDI는 추정소득이 높을수록 GDI 점수가 높게 나와 해당 국가의 GDP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새로 바뀐 GDI는 남녀의 차이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관관계가 약화되었다.

2022년 발표된 OECD 국가의 GDI 현황을 보면 HDI 순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에 비해 GDI 점수는 넓게 퍼져있다. 리투아니아가 점수가 1순위로 가장 높지만, 한국은 전체 OECD 국가 38개국 중 37위, 튀르키예가 38위로 최하위이다. 등급별 분포를 보면 GDI 점수가 가장 높은 리투아니아는 2등급이며<sup>33)</sup>,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등 28개 국가는 GDI 1등급에 속해 있고, 스위스, 호주, 네델란드, 일본 등 8개 국가는 GDI 2등급에 속해 있지만,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는 GDI 3등급이다.

지표별 차이를 보면 GDI 1등급 국가 중 상당수가 평균 교육연수에서 여성이 남성을 앞지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웨덴, 아일랜드, 핀란드, 캐나다 등 다수 국가가 여성 평균 교육연수가 남성보다 길고, 2등급 국가의 경우 여성의 평균 교육연수가 남성보다 긴 국가는 호주, 리투아니아이다. 한국은 여성이 11.9,

33) 1등급 범주인 0.975-1.000과 1.000-1.025의 범위를 벗어나서 2등급이다. 즉 여성의 HDI가 남성이 비해 높은 경우에도 격차에 따라 등급화하고 있다.

남성이 13.2로 여성 평균 교육년수가 남성보다 짧다. 기대 교육년수 지표 역시 한국은 여성이 16.1, 남성이 16.9년으로 0.8년의 차이를 보인다. OECD 회원국 중 기대 교육연수는 1등급과 2등급 국가 중 일본, 룩셈부르크, 스위스를 제외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기대 교육연수를 보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3등급 국가인 튀르키예가 여성의 기대 교육년수가 남성보다 짧게 나타났다.

〈표 IV-17〉 OECD 회원국의 GDI 현황(2022년)

국 가 명	GDI		HDI		출생시 기대여명(년)		기대 교육년수(년)		평균 교육년수(년)		추정소득 (PPP US\$)	
	그룹	성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대한민국	3	0.944	0.894	0.947	86.8	80.4	16.1	16.9	11.9	13.2	29,300	59,737
리투아니아	2	1.030	0.888	0.862	78.8	68.8	16.7	15.9	13.6	13.4	33,891	42,500
라트비아	1	1.025	0.873	0.852	77.8	69.2	16.8	15.6	13.6	12.9	27,882	38,506
에스토니아	1	1.021	0.898	0.879	81.2	72.8	16.8	15.1	13.8	13.3	30,995	45,866
폴란드	1	1.008	0.878	0.872	80.4	72.6	16.8	15.3	13.3	13.0	25,261	41,336
미국	1	1.001	0.920	0.919	80.2	74.3	16.9	15.6	13.7	13.6	51,539	78,238
슬로베니아	1	0.999	0.915	0.916	83.8	77.6	18.4	16.9	12.8	12.8	33,038	46,386
슬로바키아	1	0.999	0.847	0.848	78.4	71.5	15.0	14.0	12.9	13.0	24,849	36,813
코스타리카	1	0.996	0.806	0.810	79.8	74.4	17.1	16.0	8.9	8.7	16,568	23,376
포르투갈	1	0.994	0.863	0.867	84.1	77.8	17.0	16.7	9.6	9.5	28,713	38,127
룩셈부르크	1	0.993	0.925	0.931	84.8	80.4	14.4	14.4	13.0	13.0	70,117	98,991
이스라엘	1	0.992	0.915	0.922	84.3	80.2	16.7	15.4	13.4	13.3	34,960	48,126
프랑스	1	0.990	0.898	0.907	85.5	79.4	16.2	15.5	11.4	11.8	38,403	53,988
핀란드	1	0.989	0.934	0.945	84.7	79.3	19.9	18.3	13.0	12.7	41,698	57,394
체코	1	0.989	0.884	0.893	80.9	74.7	16.8	15.7	12.7	13.0	30,455	47,289
멕시코	1	0.989	0.753	0.761	74.9	66.1	15.2	14.5	9.1	9.4	12,456	23,600
스웨덴	1	0.988	0.941	0.952	84.9	81.1	20.5	18.3	12.8	12.4	49,580	59,326
캐나다	1	0.988	0.929	0.941	84.7	80.6	16.9	15.9	13.9	13.7	38,652	55,065
아일랜드	1	0.987	0.934	0.947	83.8	80.2	19.2	18.6	11.8	11.4	61,104	91,506
영국	1	0.987	0.922	0.934	82.8	78.7	17.8	16.8	13.4	13.4	37,374	53,265
헝가리	1	0.987	0.84	0.851	77.9	71.1	15.3	14.8	12.1	12.4	25,909	40,262
스페인	1	0.986	0.896	0.909	85.8	80.2	18.4	17.4	10.5	10.7	31,213	45,784
콜롬비아	1	0.984	0.744	0.756	76.4	69.4	14.7	14.2	9.0	8.7	10,281	18,599

국 가 명	GDI		HDI		출생시 기대여명(년)		기대 교육년수(년)		평균 교육년수(년)		추정소득 (PPP US\$)	
	그룹	성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노르웨이	1	0.983	0.950	0.966	84.9	81.6	18.9	17.5	13.1	12.9	54,699	74,445
덴마크	1	0.980	0.937	0.957	83.3	79.5	19.3	18.1	13.2	12.8	49,876	70,961
오스트리아	1	0.980	0.906	0.924	84.1	79.0	16.4	15.6	12.0	12.6	43,414	64,148
독일	1	0.978	0.931	0.952	83.2	78.1	17.0	17.0	13.8	14.3	46,150	63,143
벨기에	1	0.978	0.925	0.946	84.3	79.4	20.7	18.5	12.3	12.4	42,533	62,295
아이슬란드	1	0.976	0.947	0.971	84.2	81.2	20.3	18.1	13.9	13.7	47,136	64,004
뉴질랜드	1	0.975	0.925	0.948	84.3	80.6	20.8	19.7	12.9	13.0	36,864	51,377
일본	2	0.970	0.908	0.936	87.7	81.8	15.2	15.2	13.3	13.4	30,621	54,597
이탈리아	2	0.970	0.879	0.906	85.1	80.5	16.6	15.9	10.6	10.9	31,100	55,187
그리스	2	0.969	0.872	0.90	82.9	77.5	20.1	20.0	11.1	11.7	22,890	35,368
호주	2	0.968	0.932	0.963	85.8	83.2	21.8	20.3	12.8	12.6	37,486	61,161
네덜란드	2	0.968	0.925	0.956	83.4	80.0	19.0	18.4	12.4	12.8	46,301	65,778
스위스	2	0.967	0.944	0.976	85.9	82.0	16.4	16.6	13.5	14.2	54,597	79,451
칠레	2	0.967	0.838	0.867	81.4	76.5	17.0	16.5	10.8	11.0	17,553	31,677
튀르키예	3	0.937	0.806	0.860	79.1	73.0	17.9	18.8	7.9	9.4	19,079	42,929

주: 1) 발표연도 기준  
 2) GDI 점수 순위로 정렬; 그룹: GDI 1그룹 0.975 이상, 2그룹 0.950~0.975 미만, 3그룹 0.925~0.950 미만, 4그룹 0.900~0.925 미만, 5그룹 0.900 미만  
 자료: UNDP(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

## 다. 성불평등지수 소개<sup>34)</sup>

### 1)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이하 GII) 특징<sup>35)</sup>

GIIn은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를 통해 2010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지수로, 1995년 이래 발표했던 여성개발지수(Gender-related

34) GII지표 구성과 소개는 거의 변화가 없어 주재선, 정성미, 한진영, 박송이(2019). 「2019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pp. 93-96; 김경희, 이민아, 이은아, 김은경(2020). 「2020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p. 74-84; 주재선(2021). 국제성평등지수로 보는 한국의 성평등 수준; 주재선, 김영란, 조선미, 송치선(2021). 「2021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p. 83-92의 원문을 대부분 발췌 및 인용하여 작성하였다.

35) 본 절은 주재선(2021). “국제성평등지수로 보는 한국의 성평등 수준”의 원문을 대부분 발췌 및 인용하여 작성하였다.

Development Index, 이하 GDI)와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이하 GEM)를 대체하는 지수이다. GII는 생식건강, 권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불이익을 파악하도록 지표가 구성된다. GII는 성평등할 때 인간개발이 최적화될 수 있다는 개념 하에,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인간개발의 손실로 접근한다.

GII는 기존 GDI와 GEM의 한계와 비판을 수용하여 개발되었기에 지표의 선정과 지수 산정 방법에 있어 차별화된다. 지표 선정은 기본적으로 개념적 연관성<sup>36)</sup>(Conceptual relevance), 해석의 명확성<sup>37)</sup>(Non-ambiguity), 통계의 신뢰성<sup>38)</sup>(Reliability), 가치 부가<sup>39)</sup>(Value added)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국가의 발전 수준에 의존하지 않는 지표로 구성하였다. GII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비교변수가 아닌 여성만의 생식건강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GII가 발표되기 이전 UNDP에서 발표해오던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가 경제 분야와 정치 분야에서 대표성과 관련된 지표 즉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국회의원 여성 비율, 전문기술직 여성 비율 등의 지표를 포함시켰던 점을 상기한다면 상당히 큰 차이 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과거의 GEM 지표 중 위의 지표들이 소수 엘리트 여성의 상태를 제한적으로 반영한다는 비판을 수렴한 결과로 보인다. 즉, 국회의원 여성 비율을 제외하고 다른 지표들을 없애는 대신 대부분의 여성에게 해당하는 모성사망률과 청소년 출산율이라는 보다 인간 개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표로 교체하였다.

둘째, GII는 기존 지수 추정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던 자료 대체(Imputation)에 의존하지 않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GDI와 GEM의 지표 중 소득은 절대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와 순위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국가의 3/4 이상은 소득을 추정하여 지수를 산정하였다. 특히 소득은 GDI에 있어 HDI와 격차를 가져오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추정에 의한 측정은 주요 문제점 중의 하나였다. 이에 GII는 소득수준이 성격차를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임에도 지표구성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다.

셋째, GII는 성불평등 수준만을 고려하여 지수를 산정하도록 하여, 국가의 발전 정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GII는 세 가지 영역에서 성 불평등으로 인한 발생

36) 인간개발 정의와 이론과 강력한 관련성. 즉, 지표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37) 해석이 단순해야 한다는 것으로, 각각의 영역에서 지표 값이 높을수록(혹은 낮을수록)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38) 정의, 통계의 질, 생산과정 등에서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는 개념이다

39) 각 지표는 명확히 새로운 정보를 주어야 한다.

하는 성취의 손실을 파악한다. 따라서 지수는 인간개발에서 불평등이 전혀 없는 경우 '0'에서, 완전불평등한 경우 '1'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넷째, GII 측정은 영역 간의 불이익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즉, 영역들이 서로 보완적(Complementarities)임을 고려하여 영역 간의 남녀불평등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때, 불평등 수준이 더 커지도록 설계하였다. 즉, 교육 분야의 불평등은 취업 기회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되고, 이는 여성 빈곤으로 이어져 모성 사망비 증가 등의 복합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일 때 불평등이 더 높아지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와 같은 측정방법은 GII의 주요한 특징으로, 특정 영역의 낮은 성취는 다른 영역의 높은 성취에 의해서 완전하게 보상될 수 없게 구성한 것이다.<sup>40)</sup> 그리고 GGI 등 대부분의 성평등지수는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어떠한 영역이나 지표를 대상으로 추진해도 동일한 상승효과를 보이나, GII는 불평등 정도가 높은 영역 혹은 지표에 추진할 경우 보다 높은 상승효과를 나타낸다.

## 2) 지표의 구성과 선정 근거

GI는 생식 건강, 여성 권한, 노동 참여의 3개 영역으로 구축되어 있고 총 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 지표구성을 보면 첫째, 생식건강 영역은 모성 사망률과 청소년 출산율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영역의 지표들이 남녀를 비교한 데 비해, 이 영역의 지표는 여성 특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두 지표의 선정 근거는 여성특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관련된 여성의 건강이 남녀의 격차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출산과 관련한 산모의 사망 위험은 기초교육, 적절한 영양, 피임에 대한 접근성, 의료서비스, 숙련된 출산조력자를 통해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대부분 큰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에도, 상당수의 여성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고 있어 여성의 건강유지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청소년 출산율로 측정되는 조기 출산은 건강에 대한 문제와 아울러 산모의 미래 인간개발 기회의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지표로 선정되었다. 청소년 출산은 산모와 아기 건강에 대한 높은 위험과 관련이 있고, 출산여성의

40) GII는 영역간의 상관관계가 정(+)의 방향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구축한 지수이다. 기존의 국제성평등지수의 경우 성불평등 해소 정책을 어떤 영역이나 지표를 대상으로 추진하여도, 성불평등 개선 정도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반면, GII의 경우 어떤 영역 혹은 지표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정책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다.

교육 중단과 그로 인한 저숙련 일자리 취업의 가능성이 크다.

둘째, 여성 권한 영역은 여성의원 비율과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비율이라는 두 개의 지표로 구성되어있다. 여성의원 비율은 대부분의 성평등지수에서 선택하고 있는 지표로써 정치 분야의 권한을 측정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가장 대표적으로 모든 영역의 여성의 지위와 권한을 보여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은 권한 영역에서 교육 분야의 성불평등을 파악하기 위해 선택한 지표이다. 교육수준은 경제와 정치 등 향후 여성의 지위와 연관된 지표로, GII지수는 중등 및 고등 교육 성취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참여 영역은 경제활동참가율로 측정하고 있다. GII는 GDI, GEM, GGI 등 대부분의 지수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득변수를 지표에서 제외하고 있다. 소득 통계가 국가별로 충분하지 않고 대부분 추정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IV-18〉 GII의 영역과 지표

영역 (차원)	지 표	내 용
생식건강	모성 사망비	여성의 임신, 분만 및 관련 합병증으로 인해 출생 10만 명당 사망하는 여성의 수
	청소년 출산율	15~19세 여성인구 1,000명 당 출산 수 (UN의 출산율 전망치 활용)
여성권한	여성의원 비율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인구 비율	2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성별 인구 비율
노동참여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UNDP(2022), Human Development Index 2021/2022, p.295.

### 3) 지표별 자료원

지수산정에 활용된 자료원은 모성사망비는 유엔 모성사망 추정 집단 결과(2019)를 활용했고, 청소년 출산율은 유엔 경제사회국(UNDESA, 2022)의 자료를 활용했다. 여성의원 비율은 국제의원연맹(IPU)의 데이터베이스(2022)를 근거로 하였고,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인구 비율은 유네스코 통계연구소(2022)와 Barro and Lee(2018)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국제노동기구(ILO, 2022)의 노동시장 지표에서 수집하였다.

〈표 IV-19〉 GII 지표별 자료원

영역	지표	자료원
생식건강	모성사망비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World Bank Group and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2019). Trends in Maternal Mortality: Estimates by WHO, UNICEF, UNFPA, World Bank Group and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청소년 출산율	• UNDESA(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22 Revision.
여성권한	여성의원비율	• IPU(2022). Parline database: Monthly ranking of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비율	• Barro and Lee(2018). Dataset of Educational Attainment • ICF Macro(various years).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 • OECD(2022). OECD.Stat. •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2022). UIS Developer Portal, Bulk Data Download Service. •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various years).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
노동참여	경제활동 참가율	• ILO(2022). ILOSTAT database.

자료: UNDP(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 - Technical notes. p8.  
[https://hdr.undp.org/sites/default/files/2021-22\\_HDR/hdr2021-22\\_technical\\_notes.pdf](https://hdr.undp.org/sites/default/files/2021-22_HDR/hdr2021-22_technical_notes.pdf)  
 (2022년 12월 17일 접속).

#### 4) 측정방법

GII는 여성과 남성간의 불평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지표 간 연관에서 변화에 민감하도록 설계하였다. 지수산정은 Atkinson 불평등지수 산정방식을 원용하고 있다. 지수는 성별차이를 균등배분(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지수<sup>41)</sup>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표준화하여 측정하게 된다. 단계별 측정 과정은 다음의 다섯 단계를 거친다(UNDP, 2020: 9).

첫 번째 단계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다루는 단계이다. 기하평균을 계산할 때는 0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지표의 최소값을 0.1로 지정한다. 모성사망비 추정 경우에는 100,000명 출생 당 최소값 10, 최대값 1,000으로 조정한다. 이는 사실상 모성

41) 개별지표를 균등배분지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불평등에 대한 혐오수준을 정해야 한다. 불평등 혐오수준( $\epsilon$ )은 만약에 불평등에 대한 혐오가 없으면  $\epsilon=0$ 으로 설정하며, 혐오가 높을수록  $\epsilon$ 값을 높인다. GII는 불평등 혐오수준( $\epsilon$ )을 GDI 산정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epsilon=2$ 를 설정하여 계산하고 있다.

사망비가 1,00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국가가 모성건강을 위한 조건과 지원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10명 이하인 경우는 국가 간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판단에 기반한다.

두 번째 단계는 기하평균을 이용하여 전체영역의 성별 지표를 계산함으로써 여성 ( $G_F$ )과 남성( $G_M$ ) 각각에 대해 차원 간 통합을 한다. 먼저 여성 지표값 산출을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G_F = \sqrt[3]{\left(\frac{10}{MMR} \cdot \frac{1}{AFR}\right)^{\frac{1}{2}} \cdot (PR_F \cdot SE_F)^{\frac{1}{2}} \cdot LFPR_F}$$

- $MMR$ : 모성사망비
- $AFR$ : 청소년 출산율
- $PR_F$ : 여성의원 비율
- $SE_F$ :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여성 비율
- $LFPR_F$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남성 지표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G_M = \sqrt[3]{1 \cdot (PR_M \cdot SE_M)^{\frac{1}{2}} \cdot LFPR_M}$$

- $PR_M$ : 남성의원 비율
- $SE_M$ :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남성 비율
- $LFPR_M$ :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에서 산출한 수치에 대해 조화평균을 이용하여 여성과 남성 지표를 계산한다. 기하평균의 조화평균은 여성과 남성의 불평균 측정하고 영역간 연관성을 수정하기 위해 실시한다.

$$HARM(G_F, G_M) = \left[ \frac{(G_F)^{-1} + (G_M)^{-1}}{2} \right]^{-1}$$

네 번째 단계는 생식건강, 권한, 노동시장 영역에 대한 산술평균에 대해 기하평균을 계산한다. 동일한 가중치를 사용하여(즉, 남녀를 동일하게 쳐우함) 남녀 지수 값을 합산함으로써, 불평등정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참고수준(Reference standard)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영역별로 지수 값을 합산한다. 여기서 참고수준은 영역 내 지표를 산출평균한 후 영역 간 동일가중치를 사용하여 기하평균으로 구한다.

$$G_{F,\bar{M}} = \sqrt[3]{\overline{Health} \cdot \overline{Empowerment} \cdot \overline{LFPR}}$$

위 산출 공식의 각 구성요소를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overline{Health} = \left( \sqrt{\frac{10}{MMR} \cdot \frac{1}{ABR}} + 1 \right) / 2$$

$$\overline{Empowerment} = \frac{\left( \sqrt{(PR_F) \cdot (SE_F)} + \sqrt{(PR_M) \cdot (SE_M)} \right)}{2}$$

$$\overline{LFPR} = \frac{(LFPR_F + LFPR_M)}{2}$$

마지막 단계는  $HARM(G_F, G_M)$ 을  $G_{F,\bar{M}}$ 으로 나눈 후 다음의 식으로 성불평등 정도를 산출한다. 이는 Atkinson 지수 산정 방법과 같다.

$$GII = 1 - \frac{HARM(G_F, G_M)}{G_{F,\bar{M}}}$$

## 라. GI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sup>42)</sup>

### 1) 한국의 GII 수준

GI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높은 수준이다. 정확히 말하면 인간개발에서의 성 불평등이 낮은 국가이다. 2022년 발표 기준으로 보면 2022년 한국의 GII는 0.067점으로 191개국 중 15위를 차지하였다. 2020년 11위 0.064점과 비교하면 순위가 4단계 하락하고 성불평등이 약 0.003점 더 높아진 것이지만, 2014년과 비교하면 점수와 순위 모두 개선되었다.

성불평등이 약간 증가한 주요한 원인으로는 청소년 출산율이 2020년 1.4명에서 2.2명으로 0.8명 다소 증가한 요인이 큰 것으로 추측된다. 그 외 지표들의 경우, 모성 사망비는 2020년, 2022년 모두 11명으로 동일하게 유지하였고, 국회 여성의원 비율(%), 중등교육 이상 받은 여성 인구(%),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20년 대비 2022년의

42) UNDP(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의 남녀 격차는 2020년 대비 2022년 크게 감소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의 남녀 격차 또한 2020년 대비 2022년 소폭 감소하였다.

영역별로 보면 생식건강은 모성 사망비가 11명, 청소년 출산율이 2.2명으로 성불평등 수준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국회 여성의원 비율(%)과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 비율 등의 여성권한 영역은 비교적 높은 성불평등 수준을 보이며, 노동 참여 영역 또한 성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지표별로 보면, 모성사망비는 2013년 이래 10만명 당 11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청소년출산율은 2013년 이래 계속 감소하다가 2022년 2.2명으로 증가하였다. 국회 여성 의원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나 전반적으로 개선 추이를 보여, 2022년 19.0%로 나타났다. 2022년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 비율(%)은 2020년 대비 남성은 감소, 여성은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의 경우 매년 상승 추이를 유지하여 성별 격차가 축소되고 있으나, 2022년 기준 성별 격차가 19%p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한국의 순위 변화를 보면, 2013년의 27위에서 2014년에 17위로 크게 상승하였다가 2015년은 23위로 다시 하락하였고, 2017년부터 10위로 급상승한 이후 2019년도까지 10위를 유지하였다. 2020년은 한 단계 하락한 11위였지만 2022년 4단계 하락하면서 하락 폭이 커졌다. 이전의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순위에서 한국이 최하위권이었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상승된 결과로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표 IV-20〉 한국의 GII 수준 추이

발표 연도	순위/대상	점 수 <sup>1)</sup>	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	
			모성 사망비 <sup>2)</sup>	청소년 출산율 <sup>3)</sup>	국회 여성의원 비율(%)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 <sup>4)</sup>		경제활동참가율(%)	
						여 성	남 성	여 성	남 성
2022	15/191	0.067	11	2.2	19.0	83.1	93.1	53.4	72.4
2020	11/189	0.064	11	1.4	16.7	80.4	95.5	52.9	73.1
2019	10/189	0.058	11	1.4	17.0	89.8	95.6	52.8	73.3
2018	10/189	0.063	11	1.6	17.0	89.9	95.6	52.2	73.2
2017	10/188	0.067	11	1.6	16.3	88.8	94.6	50.0	71.8
2015	23/155	0.125	27	2.2	16.3	77.0	89.1	50.1	72.1
2014	17/152	0.101	16	2.2	15.7	77.0	89.1	49.9	72.0
2013	27/148	0.153	16	5.8	15.7	79.4	91.7	49.2	71.4
2013-2022 (기준연도) 점수 변화	-	▽ 0.086	▽ 5	▽ 3.6	△ 3.3	△ 3.7	△ 1.4	△ 4.2	△ 1.0

주: 1) 모성사망비(UN Maternal Mortality Estimation Group) : 임신, 출산 관련 합병증으로 출생 10만명 당 사망 수

2) 청소년 출산율(UNDESA) : 15~19세 여성인구 1,000명 당 출산 수

3)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비율(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 25세 이상 중, 중등 교육(중·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인구 비율

4) 국제노동기구 통계(ILO)

## 2) 주요 국가의 GII 수준

2022년 GII의 순위별 국가를 보면 덴마크(1위, 0.013), 노르웨이(2위, 0.016), 스위스(3위, 0.018), 스웨덴(4위, 0.023), 네델란드(5위, 0.025), 핀란드(6위, 0.033), 아이슬란드(8위, 0.043), 룩셈부르크(9위, 0.044), 벨기에(10위, 0.048), 오스트리아(12위, 0.053), 이탈리아(13위, 0.056), 스페인(14위, 0.057)에 이어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이 0.067로 15위이다. 한편, 미국, 캐나다, 영국은 1인당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낮은 순위를 보인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높은 편이고 일본(22위, 0.083)의 경우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낮은 편이다.

영역별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생식건강 경우 모성사망비가 낮은 국가는 노르웨이, 이탈리아, 폴란드가 각각 2%로 가장 낮았다. 그 뒤를 핀란드, 이스라엘, 그리스, 체코가 3%였다. 이에 반해 한국은 11%로 전체 OECD 국가 중 낮은 순위에 위치

하였다. 청소년 출산율은 덴마크가 1.9%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이 스위스와 한국이 각각 2.2%로 나타났다. 여성권한 영역에서, 국회의원 비율은 멕시코가 49.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뉴질랜드(49.2%), 아이슬란드(47.6%) 순이었다. 한국은 19.0%로 OECD 38개국 중 35위에 위치하여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의 비율 경우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캐나다에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중등 이상 교육을 받은 인구가 100%에 달했다. 한국은 여성이 83.1%, 남성이 93.1%로 여성의 참여 비율이 낮았고, 상대적으로 남성과 격차도 높은 편이었다. 노동참여에서는 경제활동 참가율의 남녀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뉴질랜드(65.1%), 네덜란드(62.4%), 아이슬란드(61.7%) 순이었다. 한국은 여성참여율이 53.4%로 전체 OECD 국가 중 24위로 낮은 편인 반면, 남성은 72.4%로 5위를 차지하면서 노동참여에서 남녀 격차가 높게 나타났다.

〈표 IV-21〉 OECD 회원국의 GII 현황(2022년)

국 가 명	종합 순위	종합 점수	생 식 건 강		여 성 권 한			노 동 참 여	
			모성 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국회 여성의원 비율(%)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여 성	남 성	여 성	남 성
대한민국	15	0.067	11	2.2	19.0	83.1	93.1	53.4	72.4
덴마크	1	0.013	4	1.9	39.7	95.1	95.2	57.7	66.7
노르웨이	2	0.016	2	2.3	45	99.1	99.3	60.3	72.0
스위스	3	0.018	5	2.2	39.8	96.9	97.5	61.7	72.7
스웨덴	4	0.023	4	3.3	47	91.8	92.2	61.7	68.0
네덜란드	5	0.025	5	2.8	39.1	89.8	92.7	62.4	71.3
핀란드	6	0.033	3	4.2	46	99.0	98.5	56.5	64.0
아이슬란드	8	0.043	4	5.4	47.6	99.8	99.7	61.7	70.5
룩셈부르크	9	0.044	5	4.3	35	100.0	100.0	58.5	65.5
벨기에	10	0.048	5	5.3	42.9	87.2	89.7	49.8	58.8
오스트리아	12	0.053	5	5.5	39.3	100.0	100.0	55.5	66.3
이탈리아	13	0.056	2	4	35.3	78.6	86.1	39.9	57.6
스페인	14	0.057	4	6.3	42.3	78.5	83.2	52.7	62.4
포르투갈	15	0.067	8	7.4	40	59.7	61.9	54.0	62.2

국 가 명	종합 순위	종합 점수	생 식 건 강		여 성 권 한			노 동 참 여	
			모성 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국회 여성의원 비율(%)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여 성	남 성	여 성	남 성
캐나다	17	0.069	10	7	34.4	100.0	100.0	60.8	69.7
슬로베니아	18	0.071	7	4.5	21.5	97.6	98.7	53.8	62.2
호주	19	0.073	6	8.1	37.9	94.6	94.4	61.1	70.5
독일	19	0.073	7	7.5	34.8	96.1	96.5	56.8	66.0
아일랜드	21	0.074	5	5.9	27.3	88.1	86.0	56.5	68.6
일본	22	0.083	5	2.9	14.2	95.9	92.7	53.3	71.0
이스라엘	22	0.083	3	7.6	28.3	91.6	93.7	58.5	66.1
프랑스	22	0.083	8	9.5	37.8	83.5	87.9	51.9	59.7
뉴질랜드	25	0.088	9	12.6	49.2	82.0	81.8	65.1	75.3
영국	27	0.098	7	10.5	31.1	99.8	99.8	58.0	67.1
에스토니아	28	0.1	9	8.8	25.7	97.6	98.1	57.5	70.2
리투아니아	30	0.105	8	10.4	27.7	95.5	97.9	57.3	67.9
폴란드	31	0.109	2	9.7	27.5	86.5	90.7	49.2	65.5
그리스	32	0.119	3	8.5	21.7	69.9	77.8	43.3	58.1
체코	34	0.12	3	9.7	22.1	99.8	99.8	51.7	68.1
라트비아	40	0.151	19	11.2	29	99.7	99.3	54.5	66.8
미국	44	0.179	19	16	27	96.5	96.4	55.2	66.4
슬로바키아	45	0.18	5	26.3	22.7	98.9	99.2	54.7	66.4
칠레	47	0.187	13	24.1	32.7	80.3	83.5	44.2	65.5
헝가리	55	0.221	12	22.1	13.1	97.6	98.8	52.1	67.2
코스타리카	60	0.256	27	37.1	45.6	56.2	54.5	47.5	71.1
튀르키예	65	0.272	17	16.9	17.3	56.3	75.9	31.8	69.4
멕시코	75	0.309	33	54.4	49.8	65.1	66.7	43.8	75.4
콜롬비아	102	0.424	83	59	19.6	58.9	56.5	52.2	78.0

주: 발표연도 기준

### 3. 국제성평등지수 비교와 한국 성평등 수준 차이

#### 가. 국제성평등지수와 한국 성평등 수준 차이 비교

국제성평등지수의 대표적 사례로 성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 성개발지수(GDI, Gender Development Index), 성불평등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를 살펴보았다. 세 지표는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데 산출 방식과 하위지표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성평등 수준이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2022년 GGI, GDI, GII를 기준으로 한국의 성평등 현황을 OECD 38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표 IV-22〉 참고).

전체 OECD 38개국 대상으로 성평등 수준에 대한 한국의 순위를 살펴보면, GGI 35위, GDI 37위, GII 13위로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GGI, GDI에서는 하위권에, GII에서는 중위권에 있었다.

GGI는 ‘경제 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생존’, ‘정치 권한’의 네 가지 영역에서 성비 수준을 중심으로 측정된다. 전체 총점에서 1위는 아이슬란드(0.908), 38위는 터키(0.639)로 나타났다. 한국(0.689)은 1위인 아이슬란드와 0.219점 더 낮아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38위인 터키보다 0.050점 정도 약간 더 높아 전반적으로 성별 격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 1위인 아이슬란드와 비교하면, 경제참여와 기회는 0.803으로 한국(0.592)보다 0.211점, 교육성취는 0.993으로 한국(0.976)보다 0.017점, 정치 권한은 0.874점으로 한국(0.212)보다 0.662점 더 높았다. 반면 건강과 생존은 아이슬란드 0.964, 한국 0.976로 한국이 더 0.012점 높았다. 우리나라와 1위와의 격차가 높은 영역은 ‘경제적 참여와 기회’ 및 ‘정치권한 영역’이었으며, 동 영역은 타 영역과 달리 가장 높은 순위(아이슬란드)와 마지막 순위(터키) 국가 사이에서도 높은 격차가 나타났다. GGI는 영역별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균등 산정하기 때문에, 두 영역은 GGI 순위의 국가 간 차이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GDI는 ‘건강(기대여명)’, ‘교육(기대 교육연수, 평균 교육연수)’, ‘소득(추정 소득)’의 세 가지 영역에서 성별 차이와 절대 수준을 종합하여 측정한다. 전체 GDI 총점을 기준으로 1위는 리투아니아(1.030)였고, 38위는 튀르키예(0.937)였다. 한국은 0.944점으로 37위에 있었으며, 1위보다 0.086점 낮고, 38위보다 0.007점 더 높았다. 영역별로 1위인 리투아니아와 비교하면, 한국의 여성 기대여명은 86.8으로 리투아니아의 78.8보다 높았다. 그러나 기대 교육연수는 리투아니아가 16.7로 한국 16.1보다 0.8, 평균 교육연수는 리투아니아가 13.6로 한국 11.9보다 1.7 더 높아, 여성 교육수준이 더

높았다. 추정소득에서는 리투아니아가 여성이 33,891, 남성이 42,500로 나타났지만, 한국은 29,300, 59,737로 나타나 리투아니아보다 여성의 절대적 소득 수준도 4,591 더 낮고 남녀 격차(리투아니아 8,609, 한국 30,437)도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 수준의 남녀 격차와 함께, 특히 소득에서의 남녀 격차는 한국의 낮은 GDI 순위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GII는 '생식건강(모성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여성권한(여성의원 비율, 중등교육 이상 교육받은 비율)', '노동참여(경제활동참가율)'의 세 가지 영역을 포함하며, GDI와 마찬가지로 성별 차이와 절대 수준을 종합하여 측정한다. 전체 총점에서 1위는 덴마크(0.013), 38위는 콜롬비아(0.424)였다. 한국(0.067)은 1위인 덴마크보다 0.054점 더 높았고 38위인 콜롬비아보다 0.357 더 낮아 분포 상 1위와 더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영역별로 1위인 덴마크와 비교하면 덴마크의 모성 사망비는 10만명 당 4명으로 우리나라의 11명에 비해 7명이 적다. 청소년 출산율은 15~19세 여성인구 1,000명당 1.9명으로 우리나라의 2.2명에 비해 0.3명 적다. 청소년 출산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 덴마크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회 여성의원 비율(%)을 보면 덴마크는 39.7%로 우리나라의 19.0%보다 20.7%p가 높다. 또한 덴마크는 중등 이상 교육받은 인구가 여성은 95.1%, 남성은 95.2%로 거의 100%에 가까운 높은 수치를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 여성은 83.1%로 덴마크와 12%p 격차를 보이지만 남성은 93.1%로 2.1%p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수준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덴마크는 여성이 57.7%로 우리나라의 53.4%에 비해 4.3%p 높은 반면 남성은 덴마크는 66.7%, 우리나라는 72.4%로 덴마크보다 5.7%p 높았다. 종합하면, GII에서 한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는 낮은 모성사망비와 청소년 출산율이 기여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국은 1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및 경제 활동 영역에서 남녀 격차가 높았고, 특히 여성의원 비율(19.0)이 38위인 콜롬비아(19.6)보다 낮은 등 현저히 낮은 순위에 위치하면서 중간 수준의 순위에 머무르는 결과를 야기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V-22〉 국제성평등지수와 OECD 회원국(38개국) 내 한국의 현황

국제성평등지수	영역	한국 현황		
		1위 국가	38위 국가	한국(순위)
GGI(2022)	전체 영역(총점)	아이슬란드(0.908)	터키(0.639)	0.689(35위)
	경제 참여와 기회	0.803	0.493	0.592
	교육 성취	0.993	0.973	0.976
	건강과 생존	0.964	0.966	0.976
	정치 권한	0.874	0.123	0.212
GDI(2022)	전체 영역(총점)*	리투아니아(1.030)	튀르키예(0.937)	0.944(37위)
	기대 여명			
	여성	78.8	79.1	86.8
	남성	68.8	73.0	80.4
	기대 교육연수			
	여성	16.7	17.9	16.1
	남성	15.9	18.8	16.9
	평균 교육연수			
	여성	13.6	7.9	11.9
	남성	13.4	9.4	13.2
추정 소득(PPP US\$)				
여성	33,891	19,079	29,300	
남성	42,500	42,929	59,737	
GII(2022)	전체 영역(총점)	덴마크(0.013)	콜롬비아(0.424)	0.067(13위)
	모성사망비	4	83	11
	청소년 출산율	1.9	59	2.2
	여성의원 비율	39.7	19.6	19.0
	중등교육 이상 교육받은 비율			
	여성	95.1	58.9	83.1
	남성	95.2	56.5	93.1
	경제활동참가율			
여성	57.7	52.2	53.4	
남성	66.7	78.0	72.4	

주: 1) 발표연도 기준

2) 국가명(점수), 각 영역별 점수는 1위 국가 및 38위 국가 기준

3) \*GDI는 GDI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순위를 산정함

출처: 1) GGI: WEF(2022).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22.

2) GDI, GII: UNDP(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

## 나. 국제성평등지수에서 나타난 한국의 순위 해석 및 시사점

국제성평등 지수에서 2022년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지수(GGI) 및 유엔개발계획(UNDP)의 성개발지수(GDI)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유엔개발계획(UNDP)의 성불평등지수(GII)에서는 높은 편이었다. 즉, GGI에서는 전체 146개국 기준 99위, OECD 38개 국가 기준 35위, GDI에서는 전체 5그룹 국가 중 3그룹, OECD 38개 국가 중 37위로 하위권에 머문 반면, GII에서는 전체 191개국 중 15위, OECD 38개국 중 13위로 비교적 높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었다.

국제성평등지수 GGI, GDI, GII에서 한국의 순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각 지수를 구성하는 지표의 산출기준 및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지수 간 성평등 수준의 측정 정의가 다르다. GGI와 GDI는 상대적으로 남녀의 성비(남녀간 상대적 차이)를 성평등 수준의 중요한 고려 요건으로 보는 반면, GII는 지표별 남녀의 절대 수준과 남녀의 성비를 함께 고려하는 산정방식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GGI와 GDI에서 한국이 낮은 순위에 위치한 이유는 영역별 여성의 절대적 성취 수준이 낮은 것보다 각 영역별 성취 수준에서 남녀 격차가 높은 것에 더 영향 받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지수를 구성하는 하위지표에서 영역 간 가중치 부여 방식이나 영역간 상관관계 고려 여부에 따라 산출방식의 차이가 있다. 즉, 산출방식에 있어 GII는 영역 간 상관성이 높을 때 불평등이 높게 측정되며(기하평균 방식 활용), 하위 영역 간 성평등 개선 정도가 1:1로 대응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때 하위 영역 간 성 불평등이 서로 상관관계가 높을 때 전체 불평등 수준이 더 높아지도록 설계하기 때문에, 특정영역의 낮은 성취가 다른 영역의 높은 성취에 의해 완전 보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GGI는 하위 영역 간 성평등 개선 정도가 1:1로 대응 가능하며 성별 격차(성비)의 산술평균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때 영역 간 상관관계 고려 없이 단순 평균하므로, 영역별 높은 성격차가 낮은 성 격차 값을 서로 보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편, GII는 여성과 남성 각각 세 가지 하위영역을 기하평균하면서, 각 성별 내에서는 영역별 높은 성취 값이 낮은 성취 값을 서로 보상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그러나 각 최종 지수를 산출할 때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환산하여 전체 성취 수준에서 성격차를 설명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산정방식의 차이는 순위의 차이를 야기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GII 지수는 여성의원 비율, 중등교육 이상 교육 비율,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영역에서는 성별 격차는 높으나, 생식건강영역(모성사망률, 청소년출산율)의 경우 타 국가보다 월등히 낮은 편이다. 이로 인해 영역 간 기하평균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생식건강영역의

매우 낮은 통계로 인해 GII의 성불평등 수준이 낮게 측정된다. 반면, GDI에서는 한국의 남녀 소득수준 격차가 다른 영역보다 현저히 높고, 여성의 낮은 정치적 권한 부여가 전체 순위를 끌어내리면서 낮은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세 지수를 구성하는 하위지표의 종류가 다르다. GGI는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 성취도,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의 네 가지 영역에 관한 14개의 하위영역 지표들로 구성된다. GDI는 정치권한에 대한 지표는 없는 대신, 건강, 소득, 교육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한 4개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GDI는 교육 부문의 지표가 없고, 생식건강, 여성 권한, 노동참여의 세 가지 영역의 5가지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세 가지 국제성평등 지수 결과로부터 우리나라의 성평등 현황을 요약하면, ‘인간개발 과정에서의 성 불평등으로 인한 성과의 손실’은 낮지만, ‘자원의 접근 기회와 권한 배분’과 ‘인간 개발 수준’에 있어 성 격차가 높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개발의 절대적 성취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과 남성의 상대적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이 성평등 수준을 개선하는데 관건이 될 것이다, 특히 타 국가와 비교할 때 건강 및 생식건강 영역의 현저하게 높은 수준과 달리, 소득 수준과 정치적 권한에서는 성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만큼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IV-23〉 국제성평등지수 비교

지수명	성격차지수(GGI)	성개발지수(GDI)	성불평등지수(GII)
발표기관	세계경제포럼(WEF)	유엔개발계획(UNDP)	
산출방식	남녀의 성비를 중요하게 고려		지표별 절대값과 성비 고려
측정목적	• 자원의 접근 기회와 권한 배분에 대한 성 격차 측정	• 인간 개발수준에 대한 성격차 측정	• 인간개발 과정에서의 성 불평등으로 인한 성과의 손실 측정
지수 구성요소	• 건강과 생존 - 출생성비 - 건강기대수명	• 건강 - 출생 시 기대수명	• 생식건강 - 모성 사망비 - 청소년 출산율
	• 정치권한 - 국회의원 비율 - 장관 비율 - 여성 국가수장 재임기간 (50년간)	-	• 여성권한 - 여성의원 비율 - 중등교육 이상 교육받은 인구 비율
	• 경제참여와 기회 - 경제활동참가율 - 유사업무 임금성비	• 소득 - 추정소득(1인당 GNI, PPP\$)	• 노동참여 - 경제활동 참가율

지수명	성격차지수(GGI)	성개발지수(GDI)	성불평등지수(G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소득</li> <li>- 관리직 비율</li> <li>- 전문직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적 성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해율</li> <li>- 초등학교 취학률</li> <li>- 중등학교 취학률</li> <li>- 고등교육기관 취학률</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균 교육연수</li> <li>- 기대 교육연수</li> </ul> </li> </ul>	-
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표 산정시 성비(남녀 격차) 수준에 영향 받음</li> <li>• 4가지 하위 영역 간 상관관계 고려 없이 단순 평균하므로, 영역별 높은 성격차가 낮은 성격차 값을 서로 보상 가능하도록 구성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표 산정시 지표 산정시 성비(남녀 격차) 수준과 함께, 남녀의 절대적 수준을 고려하지만, 성비에 더 큰 영향을 받음</li> <li>• 성별로 세 가지 하위 영역을 기하평균하기 때문에 각 성별 내 영역별 높은 성취값이 낮은 성취 값을 서로 보상 가능하도록 구성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표 산정시 성비(남녀 격차) 수준과 함께, 남녀의 절대적 수준을 고려함</li> <li>• 하위 영역 간 성 불평등이 서로 상관관계가 높을 때 불평등 수준이 더 높아지도록 설계하기 때문에, 특정 영역의 낮은 성취가 다른 영역의 높은 성취에 의해 완전 보상되지 않음</li> </ul>
점수	0.689점 (‘1’이면 완전 평등)	0.944점 (0.975 이상이면 1그룹)	0.067점 (‘0’이면 완전 평등)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99위/146개국</li> <li>• OECD: 35위/38개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3그룹/5그룹</li> <li>• OECD: 37위/38개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15위/191개국</li> <li>• OECD: 13위/38개국</li> </ul>
발표연도	2022년		

주: 발표연도 기준

출처: 1) 주재선, 김영란, 조선미, 송치선(2021). 2021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p. 96-97 발췌 및 수정보완

2) GGI: WEF(2022).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22.

3) GDI, GII: UNDP(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



---

## 국가성평등 관리방안

- 1. 국가성평등지수와 성평등 정책의 연계 103
- 2. 국가성평등지수 활용 및 관리방안 114



## 1. 국가성평등지수와 성평등 정책의 연계<sup>43)</sup>

국가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과 동시에 개선 정도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실행되고 있는 성평등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해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정부의 국정과제와 부처별 성평등 정책 혹은 여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을 세부사업 수준에서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별 지표와 연계하고 있다. 연계를 위해 활용된 주요 정책 목록은 <표 V-1>과 같다.

<표 V-1> 연계표에 활용된 성평등 정책 목록

성평등 정책	출입말
현 정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국정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양평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
「제6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018~2022)」	일가정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8~2022)」	건가

성평등 정책은 국가성평등지표와 연계하기 위해 정책 연번을 두고 있다. 정책 연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경우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번호를 부여하였고,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안(2018~2022)」은 중과제 수준을 정책 번호로 부여하고 세부과제 내용을 세부 사업으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9-9-9'는 국정과제와 여성가족부, 합동부처 정책 이외 다른 행정부처의 여성 관련 기본계획 및 정책을 나타낸다. 정책 연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제4차 저출산 고령 사회기본계획」, 「제6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018~2022)」<sup>44)</sup>,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8~2022)」이다.

경제활동 분야는 2016년 이후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상용근로자 비율과 성별 임금 격차는 2019년까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2020년부터는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활동 분야와 연계되는 성평등 정책은 매우

43) 본 절은 주재선 외(2021), 『2021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p.103-115을 인용 및 수정함.

44) 제6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2018~2022)은 여성 고용노동정책 로드맵으로 수립 발표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 대책"(17.12.26.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함.

많은 편이다. 국정과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제6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에 경제활동 분야 여성정책과의 연계표는 <표 V-2>와 같다.

<표 V-2> 국가성평등지수와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지표명	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경제활동참가율	양평 2-1	고용 기회의 성평등 제고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일자리 확대
			여성 집중 직종의 남성 진출 확대
			성별 직업분리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양평 2-3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 강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창업 지원
			경력단절 여성 지원 인프라 확충
고용 9-9-9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	분야별 일자리 기회 확대	
저출산 1-2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성평등한 일터 조성 여성 집중 돌봄노동 분야 일자리 질 개선	
저출산 3-1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 기반 강화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 정책 강화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 지원 미래 여성핵심인력 양성 기반 구축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양평 2-2	고용현장의 성차별 개선	성별 임금격차 해소
	국정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양성평등일자리 구현-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 조성
	일가정 9-9-9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 구축	양질의 일자리 환경 구축 (임금격차 개선)
		경력단절 예방	출산·육아의 사각지대 해소,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일·생활 균형 문화확산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고용유지 촉진

자료: 주재선·김영란·조선미·송치선(2021), 『2021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105, 인용 및 수정.

경제활동 분야의 경우 향후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성별 임금격차는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나지만, 여성의 경력단절이 가장 주된 원인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경제활동참가율 하락과 더불어 기존에 고착화된 성별 직업분리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은 재취업할지라도 여성은 낮은 임금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경제활동 분야의 여성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대에 가장 큰 걸림돌인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 재취업을 위한 교육 및 지원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경력단절 이후 일자리는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 안정성이 낮은 직장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고용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감축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자율적 임금차별 시정 움직임을 지원하고 동일 직무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체계를 확산시키는 보다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채용-임직원-임금 현황으로 체계화하여 성별근로공시제를 도입하고 빠른 시간에 도입·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의사결정 분야는 지난 5년간 성평등 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분야이나 여전히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다. 국회의원 여성 비율과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지표의 절대적 수준이 매우 낮다는 특징을 보인다. 관리자 여성 비율은 2016년부터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에 취업자 중 관리자 비율 성비는 2016년 14.9점에서 2021년 25.8점까지 개선된다. 의사 결정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선진국 수준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V-3〉의 의사결정 분야와 양성평등정책들을 연계해서 살펴보면 양성평등기본계획은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민간기업의 여성 대표성 제고와 여성리더십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정과제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과제로 여성 대표성 제고와 차별 없는 균형 인사를 세부 사업으로 점검한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환경 조사를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대상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2016년과 비교하면 공공분야 여성 대표성은 비교적 크게 상승한 편임에도 여전히 낮은 공공분야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 노력은 매우 필요하다. 더불어 2016년 이래 지속적으로 여성 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인 여성 관리자 비율은 성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 내 여성 관리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승진 시 차별에 대한 지속적 지도 감독,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의 확대 등 민간과 공공기업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육성과 같은 고용개선조치를 지속으로 점검 및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V-3〉 국가성평등지수와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지표명	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국회의원 비율	양평 3-1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양평 3-3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차세대 여성 정치 리더 양성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양평 3-1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정부·공공기관에서의 적극적 조치
관리직 비율	양평 3-2	민간기업 등의 여성 대표성 제고	기업의 성평등 조직혁신 지원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의 확대
			전문직 직능단체 등의 여성 지위 강화
	양평 3-3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여성 관리자 양성 지원
	일가정 9-9-9	양질의 일자리 환경 조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대상 확대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양평 4-1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	정부위원회에서 적극적 조치

자료: 주재선·김영란·조선미·송치선(2021), 『2021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107, 인용 및 수정.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8개의 성평등 분야 중 2번째로 높은 분야이며, 관련 지표의 성별 격차도 낮은 분야이다. 이 분야의 지표별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평균교육연수의 경우 남성이 더 길지만, 여성의 교육연수 증가율이 남성보다 높아 성 격차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경험 비율 성비 또한 개선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08년 이래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특징을 보임에 따라 완전평등 상태인 100점을 보인다. 이에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정책은 교육 수준을 높이는 정책보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 사회취약계층 교육지원,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 교육 등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재직자 직업훈련과 관련해서는 경력단절 예방 지원강화 차원의 정책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 분야의 성평등 정책은 세부 사업별로 정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꾸준히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표 V-4〉 국가성평등지수와 교육·직업훈련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지표명	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평균 교육년수	국정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 사각지대 해소
			평생학습 기회 보장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국정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디지털 인재양성
	국정 83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학사제도 유연화 대학중심의 창업 생태계 구축
	국정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수요 맞춤형 교육, 대학 중심 산학협력·평생교육
	양평 1-2	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 강화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교육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비율	국정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 과 일터학습 지원	경단여성·중장년 친화적인 맞춤형 훈련 확충
	양평 2-3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 강화
	일가정 9-9-9	여성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강화	여성 사회적 경제 기업가 양성 (여성 사회적기업가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일가정 9-9-9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	경력단절 재고용·고용유지 촉진 (고학력 경력단절 특화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강화)
	저출산 3-2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체계적인 생애경력개발 지원 평생교육·직업훈련의 다양화 및 확대 누구나 평생교육·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자료: 주재선·김영란·조선미·송치선(2021), 『2021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108, 인용 및 수정.

복지 분야의 경우 꾸준히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분야이다. 지표별로 보면 여성 빈곤율은 2016년 이후 점차 상승 추이를 보인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남성 빈곤율도 상승함에 따라 빈곤율의 성별 격차는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즉, 여성의 빈곤율은 높아지나, 성격차는 낮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서 공적연금 가입률은 여성 가입자 수의 빠른 증가로 인해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2021년 세 연금의 가입률이 여성은 63.3%로 남성(70.4%)에 비해 7.1%p 낮다. 더욱이 장애인고용률은 2021년 여성이 22.2%로 남성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여성 장애인 고용률 또한 개선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표 V-5〉는 복지 분야와 성평등 정책을 연계하고 있다. 빈곤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앞서 언급했듯, 여성 인구 빈곤율은 개선이 되지 않은 지표로 이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현재 정책과제에 따른 세부 사업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으로 구성 되어있고 빈곤 여성인구에 대한 특화된 정책이 부족한 편이다. 향후 국정과제의 추진 과정에서 빈곤 여성인구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고용률을 꾸준히 높이기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장애인고용의무 이행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함과 동시에 남성의 절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강화될 필요가 있다.

〈표 V-5〉 국가성평등지수와 복지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지표명	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비빈곤 인구 비율	국정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저소득층 생계안정, 위기대응 지원 강화, 민생 안정 세제지원
	저출산 2-1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체계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국가책임 강화: 기초연금,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국정 42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상생의 연금 개혁,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40만원),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저출산 2-1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체계	공·사적연금의 다층노후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 급여 수준제고, 퇴직연금의 연금성 강화 등
장애인 고용률	국정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차별 없는 균형 인사

자료: 주재선·김영란·조선미·송치선(2021), 『2021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109, 인용 및 수정.

보건 분야는 8개 분야 중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이다. 이러한 이유로는 보건 분야 정책에 있어 한국은 선진국 수준이고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성별 격차가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성 지표별로는 여전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관련 지표별 정책과제를 검토·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보건 분야와 관련된 정책들을 살펴보면,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성평등한 건강증진 기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여성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여성 건강 개선에 접근하고 있고, 국정과제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의 기존 과제를 점검하며 건강지원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V-6〉 국가성평등지수와 보건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지표명	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양평 5-4	성평등 건강증진 기반 강화	성인지적 보건의로 정책기반 마련
			성인지적 건강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
			안전한 피임과 임신·출산에서의 건강권 보장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국정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국정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방향으로 서비스 강화 및 질 제고	
저출산 2-2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예방적·통합적 돌봄 강화	
건강검진 수검률	양평 5-4	성평등 건강증진 기반 강화	거동불편 고령자를 위한 방문형 건강관리·의료 서비스 활성화
	국정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성인지적 보건의로 정책기반 마련
	국정 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ICT를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국정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농어촌 지역 등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복지부),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도입('22~)
	저출산 2-2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모든 여성어업인에게 특화건강검진 제공('24~)
스트레스 인지율	양평 5-4	성평등 건강증진 기반 강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원 (국가 건강검진 확대 등)
	국정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성인지적 보건의로 정책기반 마련
			일반건강검진과 별도의 정신건강검진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

자료: 주재선·김영란·조선미·송치선(2021), 『2021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110, 인용 및 수정.

안전 분야는 2017년부터 성평등 개선이 빨라지는 특징을 보인다. 안전 분야는 최근을 기준으로 지난 5년과 비교하여 6.1점 성평등이 개선하며,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1.0점 상승한다. 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개선된 주된 이유는 2016년 이래 여성 대상 폭력

(특히 성폭력)이 증가하여 놓아진 여성들의 불안감이 2018년 이래 낮아졌기 때문이다.

〈표 V-7〉 국가성평등지수와 안전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지표명	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의식	양평 5-1	젠더폭력 근절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젠더폭력 수사·사법적 대응의 실효성 제고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국정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강력범죄(흉악법) 피해자	국정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국정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 마련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양평 5-1	젠더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젠더폭력 수사·사법적 대응의 실효성 제고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양평 5-2	다양한 젠더폭력 대응력 제고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 피해 대응 강화
			스토킹·데이트 폭력 대응 강화
			조직 내 젠더폭력 대응 강화
	양평 5-3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연계·협력 강화
젠더폭력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피해자 중심의 지원 및 인식 제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문제 해결			

자료: 주재선·김영란·조선미·송치선(2021), 『2021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111, 인용 및 수정.

안전 분야의 현재 성평등 정책들을 살펴보면 젠더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대응력 제고 및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등으로 젠더폭력에 대한 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다양한 젠더폭력을 대응하는 전략들로 요약된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강력범죄 피해자 수를 줄이기 위해 관련된 정책과제는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다양해진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력 강화, 군 장병 인권 보장 측면에서의 성폭력 처벌 강화로 주로 젠더폭력 예방과 처벌에 초점을 두고 세부사업들이 추진된다.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세부 사업 시행으로 최근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의 수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전체 범죄피해자 수를 줄이는 방안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예방 정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치료 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가족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낮으나, 지난 5년간 성평등 개선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육아휴직자는 최근 남성 육아휴직자가 많이 증가하여 가족 분야 성평등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2021년 성비는 35.6점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출생 시 남아선호에 대한 태도를 보기 위한 셋째 아 출생성비는 남아선호가 사회에서 거의 사라짐에 따라 2016년 이래 거의 완전평등 상태에 접근했다. 가족관계만족도의 성 격차는 높은 편은 아니나, 2019년까지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 2021년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었다. 2021년은 전년 대비 성비가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성의 가족관계만족도는 63.5% 미만으로 높지 않다. 가사노동시간의 경우 성별 격차가 축소되고는 있으나 절대적 차이는 여전히 큰 상태이다. <표 V-8>은 가족 분야의 양성평등 정책을 연계한 표이다. 국정과제 46은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과제에서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및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추진,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 검토, 부모급여 신설,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모·부성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국정과제는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차원에서 육아·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과제가 추진 된다. 또한,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경우 가족 상담 활성화, 양성평등 가족문화 조성, 일·가정양립제도, 남성의 일·가정양립 지원강화와 같이 일·생활 균형과 가족문화 조성에 대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표 V-8〉 국가성평등지수와 가족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지표명	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 만족도	양평 1-3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생활 속 성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
	양평4-3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가족친화인증제 활성화 기업에 대한 일·생활 균형 지원 및 지도 강화 일·생활 균형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인식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
	국정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 의 균형 실현	육아·돌봄 지원 확대
	건가 1-2	가족상담 활성화	가족상담 서비스 확대
	건가 5-4	양성평등 가족문화 조성	양성평등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서비스 확대 양성평등 가족문화 조성 캠페인 확산
	저출산 4-1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기반 마련 다양한 가족의 아동양육 지원 강화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	국정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양평 5-4		성평등 건강증진 기반 강화	안전한 피임과 임신·출산에서의 건강권 보장
육아휴직자	국정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부모급여 신설,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양평 4-1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남성 가사·육아 참여권리 보장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 개선
	양평 4-2	근로자의 모·부성권 보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법정근로시간 준수
			유연한 근무형태 활성화
	건가 4-1	일·가정 양립제도 정착	근로자의 휴가 활성화
	건가 4-2	남성의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육아휴직 활성화 및 복귀 강화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남성 맞춤형 정보·교육지원,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저출산 9-9-9	남성·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일·가정양립 실천 여건 강화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저출산 1-1	모두가 누리는 워라벨	일-양육 병행 가능한 노동 환경 실현(부모 모두 의 육아휴직 확산 및 육아휴직 사용 문화 정착)	

자료: 주재선·김영란·조선미·송치선(2021), 『2021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113, 인용 및 수정.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은 2018년 이래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2020년 소폭 상승 하기도 하였으나, 여가시간과 여가만족도가 2017년 이래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점차 하락하고 있다. 여가시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감소하는 추세이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여가를 보내는 것도 변하지 않는다. 여가만족도는 남녀 모두 상승 추세를 보이지만 만족도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항상 더 높게 나타나며, 2018년 이래 성비도 낮아지는 추세이다. 정보의 접근, 역량, 활용으로 산정하고 있는 정보화 격차 점수는 2020년 하락세에서 반등하지만 2021년 다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문화·정보 분야의 지표와 정책을 연계해 보면 <표 V-9>와 같다. 여가는 취약계층 등의 문화누림 기회 확대, 품격 있는 문화시민 역량 강화,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 산업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책들이 추진되며, 정보 분야는 인프라 조성 및 융합 확산/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정책 목적으로 추진된다. 국정과제와 『양성평등정책 기본 계획』과 여가시간에 대한 성별 차이를 직접 연계할 수 있는 세부사업이 없다. 단,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 여가 활용에 가족 참여 프로그램 확대와 가족 여가 인프라 구축·활용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표 V-9> 국가성평등지수와 문화·정보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지표명	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여가시간 성비 /여가만족도	국정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 복지 실현	취약계층 등의 문화누림 기회 확대, 품격 있는 문화시민 역량 강화
	국정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대체공휴일 확대
			관광산업 육성
건가 1-3	가족여가활동 확대	가족참여 프로그램 확대 가족여가 인프라 구축·활용	
성별 정보화 격차	국정 59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국민 생애주기별 격차없는 맞춤형 교육 제공

자료: 주재선·김영란·조선미·송치선(2021), 『2021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114, 인용 및 수정.

시간이라는 제한된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가사노동시간이 긴 여성의 여가시간은 상대적으로 남성과 비교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가족 분야의 가사노동시간에서 성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과 함께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지원 체계 구축과 성별 수요를 반영한 여가 모델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과 남성

모두 여가만족도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삶의 질 제고의 측면에서 문화향유 실태를 파악하고 문화행복지수를 개발하고 측정해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별 정보화 격차를 통해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와 문화·예술 분야에서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 2. 국가성평등지수 활용 및 관리방안

국가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작성되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성평등 수준과 개선 정도를 보여줌과 동시에 국가 성평등 정책과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에 국가성평등지수가 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수의 활용과 관리방안<sup>45)</sup>을 제안한다.

첫째, 국가성평등지수는 지표의 관리기관과 협력하여 지표를 개선·관리해야 한다. 국성평등지수는 2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지표는 측정 결과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4항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 조사 결과,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8조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6.22.〉)”) 이에 성평등지수는 체계적 관리하기 위해서 지표별 관리기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관리기관의 역할은 성평등 지표의 개선 주체로써, 성평등 등락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즉, 여성가족부는 국가성평등지수의 생산 및 발표의 주체로서, 국가성평등 수준에 대해 분석하고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대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관리기관은 해당 지표에 대해 생산 및 관리를 담당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표 V-10〉는 지표별 관리기관과 통계 생산기관을 제시하고 있다.

45) 본 제안은 주재선 외(2016, 2017, 2018, 2019),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에서 제안했던 일부를 인용, 수정 및 보완하여 제시하고 있음.

〈표 V-10〉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별 관리와 생산기관

분야	지표	관리기관	통계생산기관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성비(15-64세)	고용노동부	통계청
	성별 임금격차(성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상용근로자 성비	고용노동부	통계청
의사결정	국회의원 성비	국회사무처/각 정당	국회의원연맹(IPU)
	4급 이상 공무원 성비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관리자 성비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통계청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비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교육· 직업훈련	평균교육년수 성비	교육부	통계청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교육부	교육부
	직업교육훈련 경험률 성비	고용노동부	통계청
복지	비빈곤 인구 비율	보건복지부	통계청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장애인 고용률의 성비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의 성별 격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안전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성비	검찰청/경찰청	통계청
	강력범죄(홍악범) 피해자 비율	검찰청/경찰청	대검찰청
가족	가사노동시간 성비	여성가족부	통계청
	육아휴직 성비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여성가족부	통계청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성가족부	통계청
문화·정보	여가시간 성비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여가만족도 성비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성별정보화격차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통계생산의 안전적 체계를 갖추기 위해 관리기관뿐 아니라 통계생산기관과도 협조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즉, 통계관리기관은 통계 생산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통계 품질을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수집 및 분석해야할 것이다.

둘째, 중앙행정 부처는 성평등 관리지표에 대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과의 연계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성평등지수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과 연계하여 추진 되는 경우가 많으나, 국가성평등지수는 각 부처의 성별영향평가 혹은 성인지예산과 연계 되어 분석되는 비율이 높지 못하다. 국가성평등지수의 활용은 성주류와 제도와 결합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성평등 지수가 측정되면 성 불평등이 높거나 개선된 지표 혹은 성평등이 낮거나 개선되지 않은 지표로 분류하고, 성불평등이 높아진 지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수준과 관련된 사항을 작성해 양성평등위원회와 여성정책조정회의 등에 보고하고 성평등 수준이 부진한 분야와 지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점검 방법으로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불평등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공동으로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UNDP(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 - Technical notes
- WEF(2022), The Global Gender Gap Index 2022.
- 경찰청, 「범죄분석」.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 김경희·주재선·김수정·김은경(2019), 「국가성평등지수 개편 및 활용방안」, 여성가족부.
- 김은경·김복태·이수연·김민정·전선영(2020), 「국회 여성 비례대표 의원의 역할인식과 활동 성과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태홍·전기택·주재선(2010), 「2010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 김태홍·주재선·박건표(2016), 『2016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 대검찰청, 「범죄분석」.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
- 여성가족부(2018),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 여성가족부,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이행점검 결과」.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통계연보」.
- 인사혁신처, 「행정부 국가공무원통계 인사통계」.
- 주재선(2021). “국제성평등지수로 보는 한국의 성평등 수준”, 기관명
- 주재선·김영란·이진숙·박송이(2021), 『2021년 지역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 주재선·김영란·조선미·송치선(2021), 『2021년 국가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 주재선·김태홍·배호중(2017), 『2017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 주재선·정성미·한진영(2018), 『2018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 주재선·정성미·한진영·박송이(2019), 『2019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통계」.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계청, 「인구총조사」.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사회조사」.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e-나라지표.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 〈인터넷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양성평등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법>.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11.2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시행(2006년) 이후 여성 근로자 비율 6.92%p, 관리자 비율 10.7%p 증가.  
중앙일보 오피니언(2021.8.3.), '성과 추구하는 경영자라면 여성인재로 눈 돌려라'.  
UNDP HDR 홈페이지, <http://hdr.undp.org>.  
국제의원연맹 홈페이지, <https://www.ipu.org>.  
인사혁신처 보도자료(2021.9.17.). 공공부문 모든 분야에서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 달성.



## 부 록

〈부록 1〉 분야별 성평등 지표의 통계표	121
〈부록 2〉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개요	130
〈부록 3〉 개편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134



## 〈부록 1〉 분야별 성평등 지표의 통계표

### 가. 경제활동

#### 〈부표 1-1〉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68.7	69.2	69.3	69.5	68.6	69.0
여성	58.3	59.0	59.4	60.0	59.1	59.9
남성	78.9	79.3	79.1	78.8	77.9	78.0

주: 1) 15세-64세 인구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부표 1-2〉 성별 임금 격차(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단위: 천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여성	1,869	1,946	2,087	2,197	2,239	2,314
남성	2,918	3,010	3,135	3,241	3,306	3,439
임금격차	64.1	64.7	66.6	67.8	67.7	67.3

주: 1) 1인 이상 기준

2) 월급여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상여금과 특별급여는 제외)

3) 남성대비 여성 임금 비율=여성근로자의 월급여총액/남성근로자의 월급여총액×10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부표 1-3〉 상용근로자

(단위: 천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13,062	13,428	13,772	14,216	14,521	14,887
여성	4,980	5,196	5,425	5,680	5,855	6,092
남성	8,082	8,232	8,347	8,536	8,667	8,795

주: 15세 이상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나. 의사결정

〈부표 1-4〉 국회의원

(단위: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300	300	300	300	295	300
여성	51	51	51	51	51	57
남성	249	249	249	249	244	243
여성비율	17.0	17.0	17.0	17.0	17.3	19.0

자료: 국제의원연맹 홈페이지

〈부표 1-5〉 4급 이상 공무원

(단위: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7,917	7,979	8,093	8,235	8,244	8,479
여성	961	1,057	1,185	1,330	1,464	1,672
남성	6,956	6,922	6,908	6,905	6,780	6,807
여성비율	12.1	13.2	14.6	16.2	17.8	19.7

주: 행정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연구·지도·우정직·전문직·외무·별정·일반임기제 제외  
 자료: 인사혁신처, 「행정부 국가공무원통계 인사통계」

〈부표 1-6〉 관리자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335	313	371	408	395	393
여성	33	39	54	63	62	64
남성	302	274	317	345	334	329
여성비율	9.9	12.5	14.6	15.4	15.7	16.3

주: 15세 이상 인구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1-7〉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중앙행정기관)

(단위: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위원	7,725	7,901	9,060	8,700	9,129	9,450
여성위원	2,805	3,028	3,548	3,522	3,607	3,765
여성위원 비율	37.8	40.2	41.9	43.0	43.2	42.4

자료: 여성가족부,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이행점검 결과」

## 다. 교육·직업훈련

〈부표 1-8〉 평균 교육년수

(단위: 년)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전체	10.3	10.5	11.2	11.6	12.1	12.5
여성	9.4	9.8	10.5	10.9	11.4	12.0
남성	11.2	11.5	12.1	12.4	12.8	13.1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통계표 분석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부표 1-9〉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단위: %)

구분	계	여성	남성
2016	69.8	73.5	66.3
2017	68.9	72.7	65.3
2018	69.7	73.8	65.9
2019	70.4	74.5	66.6
2020	72.5	76.1	69.3
2021	73.7	77.4	70.3

주: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포함), 각종고등교육기관 진학자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부표 1-10〉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단위: 천명, %)

구분	전체	여성(A)	남성(B)	여성비율 (A/(A+B))
2016	11,252	4,694	6,558	41.7
2017	11,333	4,694	6,640	41.4
2018	11,326	4,802	6,523	42.4
2019	11,075	4,706	6,369	42.5
2020	10,664	4,535	6,129	42.5
2021	10,019	4,303	5,716	42.9
2022	10,243	4,403	5,840	43.0

주: 임금근로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원자료 분석

## 라. 복지

〈부표 1-11〉 빈곤율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여성	19.4	19.2	18.7	18.1	16.9	16.9
남성	15.8	15.3	14.6	14.4	13.7	13.7

주: 경상소득 중위값 50% 이하 기준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부표 1-12〉 공적연금 가입자

(단위: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계	19,080,383	19,436,115	20,093,494	20,458,317	20,558,200	20,854,360
	여성	8,367,307	8,646,882	9,035,169	9,271,909	9,385,592	9,602,726
	남성	10,713,076	10,789,233	11,058,325	11,186,408	11,172,608	11,251,634
국민연금	계	17,659,255	17,998,055	18,612,582	18,939,569	19,009,014	19,262,617
	여성	7,707,145	7,968,295	8,322,391	8,531,930	8,619,802	8,807,043
	남성	9,952,110	10,029,760	10,290,191	10,407,639	10,389,212	10,455,574
공무원연금	계	1,107,972	1,120,458	1,160,586	1,195,051	1,221,322	1,261,421
	여성	493,705	506,810	536,205	558,708	579,527	605,802
	남성	614,267	613,648	624,381	636,343	641,795	655,619
사학연금	계	313,156	317,602	320,326	323,697	327,864	330,322
	여성	166,457	171,777	176,573	181,271	186,263	189,881
	남성	146,699	145,825	143,753	142,426	141,601	140,441

주: 국민연금가입자 내 지역가입자에서 납부예외자 제외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인사혁신처 「인사혁신통계연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 및 내부자료

## 〈부표 1-13〉 장애인고용률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36.1	36.5	34.5	34.9	34.9	34.6
여성	20.8	22.4	21.4	20.3	22.7	22.2
남성	47.1	46.8	44.1	45.6	43.8	43.8

주: 15세 이상 인구 기준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마. 보건

〈부표 1-14〉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단위: 점)

구분	전체	여성	남성	격차(여성/남성)
2016	0.953	0.941	0.965	0.975
2017	0.956	0.947	0.966	0.980
2018	0.953	0.941	0.966	0.974
2019	0.955	0.945	0.966	0.978
2020	0.960	0.951	0.969	0.981
2021	0.962	0.953	0.970	0.982

주: 19세 이상  
 자료: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통계」

〈부표 1-15〉 건강검진 수검률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77.7	78.5	76.9	74.1	67.8	66.1
여성	76.5	77.2	75.8	72.6	66.3	64.6
남성	78.9	79.7	78.0	75.6	69.2	67.5

주: 1) 수검률 =  $\frac{\text{건강검진수검인원}}{\text{건강검진대상인원}} \times 100$   
 2) 건강검진대상인원 = 1차건강검진대상인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부표 1-16〉 생활 스트레스 인지율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19세 이상	27.9	29.1	27.3	28.6	29.0
	65세 이상	18.5	21.8	18.2	17.5	16.1
여성	19세 이상	28.8	30.7	29.6	29.8	30.6
	65세 이상	23.4	26.8	21.7	22.7	20.7
남성	19세 이상	27.0	27.5	24.9	27.4	27.5
	65세 이상	11.9	15.1	13.4	10.7	10.3

주: 19세 이상 인구,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 바. 안전

〈부표 1-17〉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단위: %)

구분	2016	2018	2020	2022
전체	13.2	20.5	31.8	33.4
여성	10.6	16.6	27.6	29.7
남성	15.9	24.5	36.0	37.0

주: 13세 이상(전반적 안전의식은 매우 안전+비교적 안전 합)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부표 1-18〉 강력범죄(흉악범죄) 피해자

(단위: 건,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여성비율
2016	30,868	27,542	3,326	89.2
2017	33,937	30,490	3,447	89.8
2018	32,851	29,313	3,538	89.2
2019	32,831	29,304	3,527	90.3
2020	30,989	27,640	3,349	89.3
2021	30,558	27,245	3,313	89.2

주: 미상 제외.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 사. 가족

〈부표 1-19〉 성별, 취업여부별 평균 가사노동 시간

(단위: 시:분)

구분	1999		2004		2009		2014		2019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전체	3:57	1:26	3:44	1:22	3:38	1:24	3:30	1:27	2:52	1:30
여성	5:14	2:50	4:54	2:36	4:41	2:34	4:02	2:27	3:50	2:24
남성	0:54	0:27	0:55	0:30	1:04	0:36	0:54	0:40	1:06	0:49

주: 주: 20세 이상 인구(2019년 15세이상)의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시간(요일평균)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1-20〉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단위: 명, 여아 백 명당)

구분	계	여아	남아	성비
2016	39,636	19,112	20,524	107.4
2017	34,962	16,940	18,022	106.4
2018	28,164	13,673	14,491	106.0
2019	25,654	12,627	13,027	103.2
2020	22,564	10,919	11,645	106.6
2021	21,236	10,282	10,954	106.5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부표 1-21〉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구분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전체	55.7	54.6	56.5	56.7	58.8	64.5
여성	54.2	53.8	54.7	54.4	56.1	63.5
남성	58.2	56.6	58.3	59.0	61.5	65.5

주: 13세 이상 인구, 가족관계만족도 매우만족+약간만족 합 기준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부표 1-22〉 육아휴직자

(단위: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89,795	90,122	99,199	105,165	112,038	110,555
여성	82,179	78,080	81,537	82,868	84,617	81,516
남성	7,616	12,042	17,662	22,297	27,421	29,039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 아. 문화·정보

〈부표 1-23〉 성 및 취업상태별 여가시간

(단위: 분)

구분		2009	2014	2019
미취업자	여성	363	338	267
	남성	503	453	391
취업자	여성	203	195	159
	남성	251	231	200

주: 20세 이상 인구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부표 1-24〉 여가만족도(전 연령)

(단위: %)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계	19.3	27.0	26.0	27.2	28.8	27.0
여성	18.0	25.8	24.9	26.9	28.2	26.1
남성	20.7	28.4	27.1	27.6	29.4	27.9

주: 13세 이상 인구(매우만족+약간만족 합)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부표 1-25〉 성별 정보화 격차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여성	93.6	95.0	95.9	95.1	96.1	94.4
남성	106.4	105.1	104.1	104.9	103.9	105.6
여성/남성×100	88.0	90.4	92.1	90.7	92.5	89.4

주: 일반국민을 100.0으로 두었을 때 남성과 여성의 수준을 구함, 종합지수는 디지털정보접근 수준(0.2), 디지털 정보역량 수준(0.4), 디지털정보활용 수준(0.4) 구성되어 있음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부록 2〉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개요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경제 활동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비(여성/남성)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성별 임금격차	근로자*의 월급여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의 성비(여성/남성)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자영업자 제외)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년
	상용근로자 비율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취업자 중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상용, 임시, 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의사 결정	국회의원 비율	25세 이상 인구 대비 국회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 DB	4년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중 4급 이상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사통계」	1년
	관리직 비율	15세 이상 취업자 중 관리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 2010년 직업분류(제6차개정)상 관리직 - 공공 및 기업 고위직,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전문서비스 관리직,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등으로 구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중앙정부)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중앙정부 각종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위원 비율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1년
교육 직업 훈련	평균 교육년수	6세 이상 인구 중에서 재학중인 학생수를 제외한 전국민에 대한 평균 교육년수의 성비(여성/남성) ※ 각 학교급별 중퇴자의 경우는 초등중퇴 3년, 중학중퇴 7.5년, 고교중퇴 10.5년, 전문대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원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1년 (5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중퇴 13년, 대학중퇴는 14년, 석사·박사중퇴는 17년으로 계산함. ※ 국민의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문맹률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문맹자가 거의 없으므로 국민 평균 교육수준만 지표로 채택하였음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고등학교 졸업자 중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학생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포함), 각종 고등교육기관을 포함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비율	전체 임금근로자 중 재직자직업훈련에 참여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사업체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지원금, 사업주능력개발(유급휴가훈련 포함), 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카드제,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등의 고용노동부 지원을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고용통계DB 분석	1년
복지	비빈곤인구 비율	전체 인구 중 비빈곤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비빈곤인구: 경상소득 중간값 50% 이하 인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1년
	공적연금가입자 비율	15~59세 인구 중 공적연금*에 가입한 인구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공무원연금, 사립·교직원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수 합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	1년
	장애인고용률의 성비	만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성비(여성/남성)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3년 (1년)
보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 관련 삶의 질(EQ-5D)*의 성비(여성/남성) *건강 관련 5개 지표, 즉, 자기관리(Self-care), 일상 활동(Usual activity), 통증/불편감(Pain/ Disability), 그리고 불안과 우울(Anxiety and Depression)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결과를 종합한 값(19세 이상 인구 대상으로 조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건강검진 수검률	건강검진 대상자 중 건강검진 수검자가 차지하는 비율 *건강검진 대상자: 1차 대상 인원 합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1년
	성별 스트레스 인지율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인 사람의 성별 비율	질병관리공단, 「국민건강영양조사」	1년
안전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13세 이상 인구 중 전반적 사회 안전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전반적 사회 안전: 국가안보(전쟁가능성, 북핵문제 등), 건축물 및 시설물(붕괴, 폭발 등), 교통사고, 먹거리(불량식품, 식중독 등), 정보보안(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해킹 등), 신종 전염병(신종 바이러스, 조류독감 등), 범죄위험 *5개 척도: 안전(매우안전, 비교적 안전), 보통, 불안(매우 불안, 비교적 불안)	통계청, 「사회조사」	2년
	강력범죄(홍약범) 피해자 비율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의 성비	대검찰청, 「범죄분석」	1년
가족	가사노동시간	20세 이상 인구의 하루평균 평균 가사노동 시간 가사노동시간: 경제적 목적이 아닌 가사업무(음식준비, 청소 등)와 가족 보살피기(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부모 보살피기 등) 시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5년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	출생순위별로 셋째 출생아에 대한 성비(여성/남성)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년
	가족관계 만족도	만13세 이상 인구 중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자녀 등에 대한 가족관계 만족도 *5개 응답척도: 만족(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통계청, 「사회조사」	2년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자 수의 성비 역수(남성/여성) *육아휴직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5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 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여성 육아휴직자 수의 10%에 도달하는 것을 완전 성평등 기준으로 설정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1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문화 정보	여가시간	20세 이상 인구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 *교제 활동, 미디어 이용,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적 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 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교제 및 여가 활동 관련 물품 구입, 일반인 학습 등과 관련된 교제와 여가활동 시간 ※ 여가시간이란 생활시간 이외의 자유로운 시간이며, 생계를 위해 필요한 의무적 시간이 아닌 스스로 만족을 얻기 위한 자유로운 활동을 행하는 일을 말함.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5년
	여가만족도	13세 이상 인구 중 각종 여가활동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5개 응답 척도: 만족(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통계청, 「사회조사」	2년
	성별정보화격차	정보화 수준에 대한 성비(여성/남성) *정보화 수준은 접근지수, 역량지수, 활용지수(양적, 질적)를 종합한 값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1년

〈부록 3〉 개편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목표	영역	지표	자료원
동등한 권한	의사 결정	국회의원 비율	국제의원연맹(IPU)
		장관 비율	국제의원연맹(IPU), 인사혁신처, 내부자료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인사혁신처, 「인사혁신통계연보」
		법원, 검찰, 경찰 고위직 비율	인사혁신처, 「균형인사연차보고서」 경찰청, 홈페이지
		관리자 성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원의 동등한 접근	고용	고용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정규직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노동시장 직종 분리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경력단절 여성 비율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부가조사
	소득	임금 격차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빈곤위험(빈곤율)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공적연금 수급률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 국방부 군인연금,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교육	평균 교육 연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분석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건강수명	통계청, 「생명표」
		스트레스 인지율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평등한 관계	돌봄	가사노동 시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육아휴직 참여	통계청, 「육아휴직통계」
		노인돌봄 분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젠더 의식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노동시장 성평등 태도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실태조사」

## 2022년 국가성평등보고서

---

2022년 12월 17일 인쇄

2022년 12월 20일 발행

발행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 02-2100-6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1030-10